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2호 12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8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12호 (157)

1958년 12월 15일

내 용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 당 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김 일 성

나는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 형편 특히 금후의 경제 발전 전망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는 공산주의적 사상 교양 문제에 관하여 말하려 합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고조기에 들어섰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는 계속 앙양되고 있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받들고 당 중앙 위원회가 제기한 모든 과업들을 더욱 높은 성과로써 실천하기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진군하는 이 기세는 참으로 조선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이 기세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주위에 전체 인민이 한몸같이 뭉쳐 당의 호소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난관이라도 헤치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5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첫 두 해 동안에 우리는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1957년에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44%나 장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업 생산이 작년에 비하여 35—36% 장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빠른 템포는 참으로 그 류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템포로 나아간다고 하면 공업 부문에서는 명년에 5개년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문의 로동 생산 능률을 2배 또는 3배 이상 높일 것을 결의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년에 공업 생산을 금년 실적에 비하여 50—60%만 높여도 벌써 5개년 계획에서 예견된 1961년 생산 수준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언제나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남보다 빨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들은 일찍 부르조아 혁명을 수행하고 문명한 사회를 건설하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갓 쓰고 당나귀 타고 다녔으며 앉아서 시나 읊고 술이나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공장을 건설하고 상품을 생산하며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구태의연히 농사나 짓고 락후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빈궁밖에 물려 준 것이 없습니다.

구라파 나라들에 가보면 어디나 길도 다 좋고 농촌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벽돌집을 쓰고 사는데 그것은 이 나라들이 일찍부터 나라의 생산력과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대손손으로 내려 오면서 오막살이 초가집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 힘으로 지하 자원 하나 개발하지 못했으며 공장 하나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빈궁하고 락후하게 살던 처지에서 나라는 일본 사람들에게 강점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의 모든 부원을 긁어 가지고 공장도 짓고 철도도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착취하고 략탈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조선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천대 받고 어렵게 살던 조선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여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게 되였을 때에 어찌 용기 백배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종파 분자는 조선 사람이 싸움을 잘 하는 것은 우둔하기 때문이요, 건설을 잘 하는 것도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조선 사람은 어렵게 살았지만 실상 유식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째서 유식하다고 말하는가? 조선 사람들의 지식은 마치 깨끗한 백지에 써 놓은 글과 같이 분명하여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사람들은 한 가지를 알아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은 어렵게 살아 왔기 때문에 배우자는 욕망이 또한 남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옷은 허술하게 입고 집은 오막살이에서 살아 왔지만 우리의 사상은 남만 못지 않게 진보적이며 빨리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남보다 더욱 높으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혁명적 기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빨리 나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해방된 형제 국가 인민들은 이미 세 차례의 5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본래 락후한 데다가 3년 간의 전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여지 없이 파괴되여 더욱 뒤떨어지게 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도 형제 국가 인민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그들이 세 차례의 5개년 계획으로 도달할 수준을 우리는 두 차례의 5개년 계획으로 달성해야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투쟁하는 기세를 보면 한 차례의 5계년 계획으로써도 그 목표에 능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진 속도가 사회주의 진영내에서 비상히 높은 것이라고 할진대 자본주의 국가와 대비하면 더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나는 동무들에게 한 가지 흥미 있는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으로 부르죠아 혁명을 거쳤고 일찍 개명하여 한 때 우리 나라를 강점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을 때 그들은 5련발을 쏘았는데 우리는 화승대도 잘 만들지 못하는 형편이였습니다.

그들은 기관차요, 화차요 하는 문명 리기를 만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당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먼 옛이야기로 되였습니다.

오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명년에 우리는 인구 1인당 중요 공업 생산량에서 능히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1957년에 일본의 인구 1인당 전력 생산량은 853키로와트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년이면 1인당 850—900키로와트시를 생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력 생산에서 일본을 따라 앞서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구 1인당 석탄 생산량은 568키로그람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벌써 690키로그람을 생산합니다.

명년에 우리는 1,2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명년에 우리가 인구 1인당 1,200키로그람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철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의 1인당 선철 생산량은 75키로그람인데 우리는 명년에 가서 80—100키로그람을 생산하게 됩니다. 일본의 1인당 쎄멘트 생산량은 167키로그람입니다. 우리는 명년에 가서 쎄멘트를 약 300만 톤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화학 공업성에서 생산하는 것만 치더라도 1인당 280키로그람에 달하게 되니 쎄멘트에 있어서도 우리는 일본을 앞서는 것입니다.

직물에 있어서는 아직 일본만 좀 못합니다. 그러나 3—4년 후에는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중 많다고 하는 어획고도 인구 1인당 53키로그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벌써 65키로그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부 경공업을 제한 외에는 대부분의 중공업 부문들에서 우리가 벌써 일본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계 공업이 우리보다 많이 발전한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계 공업에서도 우리는 멀지 않아 일본을 따라 잡게 될 것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벌써 자체로 자동차, 뜨락또르, 엑쓰까와또르 기타 많은 기계들과 선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계 공업의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기계 공업의 발전 전망은 일본 공업과 대비하면 비할 바 없이 우월합니다.

일본 공업은 비록 그의 현재 발전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원료 보장의 제약과 사회 제도의 락후성으로 인하여 그의 발전 템포는 극히 제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본에 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전진하자는 각오 정도는 비할 바 없이 높으며 우리에게는 철, 유색 금속 기타 필요한 원료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 공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을 속히 따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과거에 전 아세아를 정복하고 쏘련에까지 침략의 손을 뻗치려던 일본을 우리가 오늘 따라 잡으며 넘어 선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락후한 봉건 국가도 아니며 식민지적 농업 국가도 아니며 자립적인 민족 공업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한 걸음 더 비약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우리는 큰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시간내에 아무런 풍파도 없이(물론 계급 투쟁이 없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순조롭게 농업 협동화를 완성하였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북반부는 땅이 적고 척박하여 옛날부터 식량이 부족하던 지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 개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극력 농업 생산을 발전시킨 결과 적은 땅을 가지고도 오늘 능히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벌써 금년부터 우리는 쌀을 수입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를 식량이 부족하던 지대로부터 식량을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지대로 전변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대한 승리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알곡만도 370만 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감자까지 알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약 390만 톤에 달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인구 1인당 370키로그람의 알곡이 차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량으로는 대체로 300키로그람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명년에 알곡을 500만 톤 이상 생산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습니다.

농촌 경리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놓았습니다. 관개 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수리 불안전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해 놓았고 지금은 밭 관개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곡 생산 기지와 공예 작물 생산 기지를 완전히 축성해 놓았습니다.

정전 직후 빈농은 전체 농호의 약 30% 가량 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빈농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습니다. 수매 량정성에서 경제 토대가 미약한 협동 조합들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협동 조합들에서 국가 납부곡을 다 바치고 식량, 종자, 비료 교역곡, 공동 폰드 및 기타를 다 공제한다 해도 모자라는 량곡은 약 4만 톤 밖에 안 됩니다.

산간 지대에서는 과거에 중농이라고 하더라도 이듬 해 봄에 한두달씩 식량이 떨어지는 것은 보통이였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 농촌에는 빈농이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농민 생활은 거의 다 중농 수준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농민 생활을 과거의 부유한 중농 이상의 수준으로 올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금후 1—2년 내에 완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승리들은 우리가 전후 불과 5년 동안에 이룩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전후 3개년 계획을 폐허 우에서 실행했고 또 그 후에 5개년 계획을 2년 간 악전 고투하여 실행한 결과 우리 나라를 단시일내에 이와 같이 자립적인 공업 농업 국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이며 참으로 위대한 승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승리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 중앙의 령도가 정확했고 당의 경제 정책이 정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을 받들고 전체 인민이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단결되여 내외의 적들을 분쇄함으로써만 이 승리는 쟁취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정당한 정책에 대해서 한 때 반당 종파 분자들의 시비가 많았습니다.

당내에서도 시비가 많았고 당외에서도 많았습니다.

우리 당이 처음에 중공업을 위주로 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내놓았을 때 별말이 다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새 로선을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감히 실현하겠다고 당돌하게 나선다는 등 별별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인민 생활이 당장 곤난한데 자꾸 공장만 건설하려고 드니 도대체 기대에서 밥이 나온단 말이냐고 하였습니다.

실상 기대에서 밥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당 분자들은 그것을 볼 줄도 몰랐으며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당의 옳은 정책을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반당 종파 분자들은 인민 생활이 가장 어려웠던 엄중한 시기에 당과 군중을 리탈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옳지 못한 요언을 많이 류포시켰습니다.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5개년 동안에 다 한다니 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5년 동안 걸린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2년 동안에 다 해버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개인 상공업의 협동화를 통한 개조 정책에 대하여 잘 납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매우 빨리 그리고 순조롭게 완수되였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또 소위 식자가 있다는 사람들 속에서 기계에 대한 신비론이 나왔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동차, 뜨락또르 기타 기계들은 신비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이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비주의를 때려 부시고 나니 자동차, 뜨락또르, 라지오 기타 많은 기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달성한 오늘의 승리는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을 받들고 전 당과 인민이 내외의 원쑤들을 물리쳤으며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온갖 그릇된 경향을 분쇄하고 당의 로선을 관철시킨 결과에 쟁취된 것입니다.

우리 당이 쟁취한 력사적 승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달성한 승리는 위대하나 당은 항상 승리할수록 자만하지 말도록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있습니다.

당은 더욱 큰 새로운 승리를 향해서 계속 부단히 전진하며 더욱 빠른 템포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더욱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약진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 편지에서 제기한 중심 과업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중요한 과업은 5개년 계획을 1년 반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받들고 궐기한 전체 당원들은 5개년 계획을 1년 반이 아니라 2년 단축할 것을 결의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공업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더욱 빨리 완성하고 더욱 높은 생산력을 가진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7년이 아니라 4—5년 내에 전력은 200억 키로와트시, 선철은 300—400만 톤, 쎄멘트는 500만 톤, 비료는 200만 톤, 직물은 5억 메터, 석탄은 2,500만 톤을 생산할 과업을 내 세웠습니다. 편지는 또한 특수한 일부 기계를 제외하고는 대량적으로 소요되는 기계를 다 자체로 생산할 과업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하고 점차 공산주의로 넘어 가자면 높은 생산력을 가져야 하며 강력한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전기, 선철, 쎄멘트, 비료 및 각종 기계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하며 직물도 더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빨리 완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 갈 때 우리도 뒤떨어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공산주의로 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공업화의 템포를 더욱 높이지 않고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는 바로 이것을 전체 당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농업에서는 2—3년 내에 농촌의 수리화를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지 면적은 이것저것 재하면 약 180만 정보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 경사지를 내놓고 140만 정보를 다 수리화하여 우리 농업을 흉풍을 모르는 선진적 농업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농업의 수리화는 우리 나라 농업의 기술적 개조의 중심 고리입니다.

다음으로 계속하여 농촌을 전기화하며 또 기계화하자는 것입니다.

농촌마다 전등을 켜고 라지오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농촌마다 라지오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곧 농촌에 정치 지식과 과학 지식은 물론이요 음악 기타 문화 예술을 일상적으로 보급시킴으로써 문화 혁명의 임무를 급속히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전기

화를 해야 일하기도 쉽습니다. 탈곡기도 전기로 돌리고 목욕탕과 세탁소도 전기로 운영하고 물을 끌어 올리는 것도 전기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3년 내에 전기화를 하자고 하였는데 도 당 위원장들의 보고에 의하면 당원들은 다 명년 1년 동안에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금년내로 다 하겠다고 합니다. 자강도 오수덕은 하늘 아래 첫 동리인데 옛날에는 송아지를 지고 올라 가서는 거기서 키워서 부려 먹던 곳입니다. 오늘 신문에는 자강도에서도 유명한 산'골인 이 오수덕에 풍력 발전소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농촌의 전기화 사업은 벌써 나라의 면모를 변경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농촌의 기계화입니다.

우리는 금후 4—5년 내에 30,000—35,000대의 뜨락또르와 25,000—30,000대의 자동차를 농촌에 보내자고 합니다.

명년에 우리는 벌써 외국에서 수입한 것과 자체로 생산한 것을 합해서 뜨락또르 5,000대와 자동차 2,500대를 농촌에 보낼 작정입니다.

전 당이 동원되여 농촌에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를 속한 기간내에 완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능히 알곡을 700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으며 목화, 피마주, 아마 등 공예 작물을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알곡 문제가 해결된 조건하에서 축산물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해결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는 인민들에게 육류, 우유, 계란 등을 원만히 공급할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밥과 김치와 된장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축산업을 발전시켜 고기도 먹고 우유와 계란도 먹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조선소에서 젖짜 먹을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조선소 한 마리에서도 1년에 1—1톤 반의 젖을 넉근히 짤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네들은 송아지가 애처러워서 젖을 못 짜겠다고 하는데 송아지를 먹이고도 젖은 얼마든지 짤 수 있습니다.

축산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과수업도 같이 발전시켜 과실을 많이 먹도록 해야 합니다.

10만 정보 과수 면적 확장에 대하여 계속 선전 사업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한 정보의 과수 밭에서 과실을 못 따도 10톤씩은 딸 수 있습니다.

정주에서는 정보당 100톤씩 따는데 적게 보아 한 정보에서 20톤씩만 쳐도 10만 정보면 200만 톤이 됩니다. 200만 톤이면 한 사람 앞에 과실 200키로그람씩 차례집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도 만들고 과실즙도 만들고 해야 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나라는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동무들에게 우리 나라는 그리 큰 나라가 아니지만 땅도 좋고 기후도 좋기 때문에 평방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립방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장내 웃음). 가까운 장래의 농업 발전 전망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만약 우리가 공업에서 높은 생산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기계화, 자동화를 도입하며 농업에서도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를 실행하고 알곡 생산 뿐만 아니라 목축업, 과수업 등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그때에는 어떻게 될것입니까? 그때에는 사회주의 건설은 완성되고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점차 이행하는 과업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산주의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1—2년 간 더 악전 고투하고 4—5년 내에 이미 말한 과업들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2—3년 내에 알곡을 500—700만 톤 생산한다면 식량은 대단히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귀할 때면 너도 나도 더 먹자고 하지만 흔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쌀더미를 잔뜩 쌓아 놓고 마음대로 가져 가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천도 5억 메터를 생산하면 1인당 50메터씩 차례지는데 이것은 과연 굉장한 수'자입니다.

일전에 삼룡 농업 협동 조합에 나갔을 때 녀성 동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공산주의를 하자고 하는데 당신들은 대관절 천을 얼마나 요구하는가?

한 동무가 대답하기를 1년에 한 두벌 새 옷을 장만하면 될가요 하기에 그것 가지고 되겠는가 좀더 많이 부르라고 했더니 기껏 해서 세 벌이면 된다(장내 웃음)고 말하였습니다.

옷 세 벌하자면 20—25메터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다시 그 녀성 동무에게 그때에 가서는 외투도 요구될 것이요, 로동복도 요구될 것이요, 출입복, 보통 입는 의복, 내복, 잠옷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할터이니 많은 천이 요구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더니 그는 지금 같애서는 한 서너벌이면 돼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천도 거저 주고 쌀도 거저 주며 농민들에게도 로동자들과 같이 임금제를 실시하여 공산주의 분배 원칙과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데로 넘어 가면 어떠냐고 물으니 그 동무는 말만 들어도 좋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는 미구에 이것을 실현할 가망이 있습니다.

어제'날의 공상은 오늘에는 리상으로 변하고 또 이 리상은 래일에는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4—5년 후 또는 좀 더 빨리 3—4년 후이면 우리의 이 리상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을 300—400만 톤 생산하고 세멘트를 500만 톤 생산한다면 우리는 도로도 포장하고 집도 짓고 도랑도 치고 다리도 놓고 철도와 항만도 건설하고 기타 얼마든지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탁아소, 휴양소와 구락부 기타 모든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강철을 많이 뽑아서 자동차, 뜨락또르, 전동기, 배 기타 기계들을 많이 생산하면 일은 헐하게 되고 생산 능률은 더욱 높아지며 모든 생산물은 더욱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각자는 능력대로 각자에게는 수요대로》라는 원칙이 실현되는 공산주의 사회의 문어구에 가까이 들어 서게 될 것입니다.

간고한 투쟁이 없이 우리가 이 위대한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 편지는 전체 당원들을 헌신적인 투쟁에로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반부에서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누구나 다 일을 하며 일도 아주 헐하게 한다면 그것이 남반부 인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비록 리 승만이 파견한 정탐들이 북반부에 와 보고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다 일하며 일도 헐하게 하고 수입이 높으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령 리 승만은 이미 죽어 없고 두번째 리 승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앉아 있기가 대단히 곤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

하고 점차 공산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하루 속히 준비할수록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그만큼 가까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조국이 통일된 후에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속히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서기 위해서는 근로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철저한 사상 교양 사업과 사상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전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 대중의 머리 속에 아직 남아 있는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사상 잔재 즉 봉건적,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은 곧 온갖 낡은 것을 분쇄하고 새 것을 창조하는 투쟁입니다.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총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 이것이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 투쟁의 내용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는 일체 낡고 부패한 것을 쓸어 버리는 과정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리마를 타고 진군하고 있는데 낡은 것이 우리의 뒤꽁무니에 매여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진보하려고 하는데 보수 분자들이 우리의 진로에 장애물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소극 분자들은 우리의 열의와 기세를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집단주의 정신으로 나가려 하는데 개인주의가 우리의 공동 위업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본주의 사상의 여독이며 이 사상적 독소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낡은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위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낡은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혁명의 고조를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당원들 특히 선전원 선동원 동무들 앞에 나선 현 시기의 중심 과업입니다.

리 승만은 우리를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합시다.

우리는 자신이 붉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색도 아니며 회색도 아닙니다. 우리는 붉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인 붉은 색으로 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빨갱이》를 몹시 무서워하면 할수록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을 철두철미 붉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상 교양 사업의 중점을 어디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교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극소수의 착취자와 압박자들에게는 《천당》이지만 절대 다수 피착취, 피압박 근로자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실례를 들어 봅시다.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에서는 생산은 많은데 근로자들은 바로 그들이 많이 생산하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굶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오래 갈수는 없습니다.

착취자들과 압박자들은 이 사회를 사수하려 하지만 그들의 어떠한 수단도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수백만 근로 대중의 해방 투쟁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폐허 우에 새로 건립된 사회주의 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모르며 거기에서는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은 근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리하여 매개 근로자들은 자신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일하게 되므로 사회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문화의 개화는 력사상 일찌기 그 류례를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이러한 우월성을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와의 대비는 곧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좋은 대비로 될 것입니다.

금년 초에 남조선에서 혀객기가 의거하여 왔을 때에 거기서 심부름하던 녀자가 따라 왔었는데 그가 한 말은 매우 흥미 있습니다.

이 녀자는 말하기를 평양에서는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고 일만 하면 먹고 입을 걱정은 없으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쓸쓸하게 고루 입고 다니더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이면 녀자들도 공장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장마당엘 가보면 《화려한》 물건은 없으나 그 대신 보통 입는 옷감, 쌀 같은 것은 많더라고 말하였습니다.

필시 부르죠아 사상으로 가득찬 이 남조선 녀성도 북반부에서 능히 이와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부자들이 호화롭고 부화방탕하게 살 수 있는 사치한 물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는 400 여 만의 실업자와 수십만의 고아들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 일보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경상북도 한 도에만도 16—20만의 걸식 아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남북반부의 사정을 대비하면서 북반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소수 착취자들만 호의호식하고 대다수 인민은 기한에 떠는 자본주의 제도가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제도가 좋은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 자신이 명확한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을 오직 이와 같이 교양함으로써만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공산주의 사회에로 전진하도록 고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멸망한다는 진리를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새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초기에 있어서는 미약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발전의 법칙에 의하여 조만간 낡고 부패한 자본주의 세력을 타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사회주의의 발생 발전 및 승리의 전 력사적 행정이 똑똑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레닌이 처음에 공산당을 조직하였을 때 그의 력량은 매우 미약하였으나 공산당은 로씨야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을 교양하여 그들을 불패의 혁명적 력량으로 조직하였으며 마침내 짜리 제도를 타도하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하였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까지 사회주의 국가는 오직 쏘련 한 나라 뿐이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발광적으로 공격한 독일, 일본, 이태리 등 제국주의 국가 군대들은 처음에는 강대한 것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패배하였으며 쏘련은 위대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것은 쏘련이 미래를 대표하는 신생 력량이였으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지지를 받은 반면에 파씨스트 군대는 대다수 인민들로부터 고립되였기 때문입니다.

낡은 봉건 사회가 멸망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발생 발전한 것처럼 자기 세기를 다 산 자본주의 제도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

주의 제도에 자리를 내 주어야 하는 것은 항거할 수 없는 발전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칙에 의하여 오늘은 아직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미 제국주의는 조만간 멸망하고야 말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에서의 항일 해방 투쟁사를 돌이켜 봅시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을 믿고 싸웠습니까. 그들은 비록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력량이였으나 인민의 숙망과 정의를 대표한 새로운 힘으로서 인민 대중의 지지와 전 세계 혁명 세력과의 련대성에 의거하였으며 낡고 부패한 일본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싸웠던 것입니다.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는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되였습니다.

해방후에 또 미 제국주의자들이 일제를 대신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16개국의 련합 군대가 공화국 북반부를 침습하였을 때에도 우리 로동당원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궐기하였으며 세계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전 세계 인민들로부터 고립된 미 제국주의는 반드시 패배하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미제는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였으며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독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비하면 인구는 많지만 당시 무장은 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기 발발한 신생 력량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은 낡고 부패한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타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혁명 전통을 학습하는 것도 과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와 용감히 싸운 그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산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의 공산주의적 개조에서 커다란 장애로 되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는 사회주의적 소유 즉 집단적 소유와 전 인민적 소유를 공고화하는데 장애로 되며 나아가서 전체 포괄적인 공산주의적 전 인민적 소유를 창설하려는 우리의 전진 운동을 저애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의 협동화를 완성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달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종국적 목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협동 경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인민적 소유에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사회의 이러한 개조 과정은 낡은 자본주의의 사상 잔재인 리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함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함에 있어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와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협동 조합 재산과 국가 재산을 자기 개인 재산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왕 사회주의적 소유를 옹호하는데 전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다 용납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사상적 여독입니다.

다음으로 **공산주의 사상 교양에서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는 데로부터 다시 말하면 자기의 농촌, 자기의 어촌, 자기 도시를 사랑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착취가 없고 평화롭게 잘 살고 일할 수 있

는 자기의 직장, 자기의 농촌과 도시를 사랑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 잘 살며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자기의 사회주의적 조국을 사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와 같은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근로자들을 사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고 전력을 다하여 그의 위력을 강화함으로써만 전 세계 로동 계급의 국제적 리익을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근로 인민이 국가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적 복무는 곧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매개 근로자들이 자기의 사회주의적 향토의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때 그는 동시에 자기의 사회주의적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자로 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로동 계급의 공동 리익을 위한 국제주의 전사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한 향토와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조국을 침해하려는 원쑤와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사회주의 전취물을 확고히 고수하는 투사로 되게 하여야 하며 세계 근로자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자들과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하는 투사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는 문제입니다.**

로동은 인간 사회의 부를 창조하며 인류의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착취 제도하에서는 놀고 먹는 것이 마치도 잘난 일로 되여 왔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것이 원칙으로 되여 있는 우리 사회주의하에서는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계급 사회에서 로동은 천하고 무거운 고역으로 되여 왔으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영예롭고 즐거운 일로 되고 있습니다.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자는 남의 덕으로 사는 기생충입니다.

지금 전국을 뒤끓게 하고 있는 천리마의 행진을 더욱 재촉하기 위하여 우리 대렬내에서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놀고 먹는 자들, 건달부리는 자들을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을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부단히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혁명적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은 계속 부단한 전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한 개의 혁명 과업의 실행으로써 만족할 수는 없으며 계속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또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달성한 승리는 앞으로의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이며 더 전진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우리의 과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조국 통일의 임무가 남아 있으며 통일후에는 또 남조선에서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등 민주 개혁을 실시할 임무가 있습니다.

남반부에서 민주 혁명 과업을 실행한 후에는 계속 사회주의 건설로 넘어 가야 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한 후에는 또 북반부와 같이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옳게 수행한다면 우리는 국제 혁명 사업에서 부과된 자기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반부에서의 공산주의 교양 사업은 반드시 조국 통일의 임무와 결부시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즉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조국 통일의 담보라는 사상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매개 근로자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열렬한 건설자로, 철두철미 붉은 사상으

로 무장된 공산주의 전사로 교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구라파에서와 같이 로동 계급의 대렬을 분렬시키며 그의 계급 의식을 부르죠아 사상으로 마비시키는 우익 사회 민주주의의 사상적 지반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상 사업이 비교적 덜 복잡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내 생각 같애서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공산주의 교양은 대체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교양 사업과 관련해서 나는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기술을 배우며 새 기술을 창조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호의 하나입니다.

근로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기술을 배우며 또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무식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구나 다 적어도 중등 이상의 지식을 소유한 유식한 사람으로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들을 더욱 빨리 더욱 철저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전원들과 선동원들은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협동 조합에서나, 공장에서나 어디서나 할 것 없이 문화 혁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과 성인 교육을 실행하는 외에 체육, 문학, 예술 크루쇼크, 기술 크루쇼크 등 각종 크루쇼크를 광범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장과 농촌에서 구락부를 잘 운영하고 당보와 사회 단체 신문 등 각종 신문을 잘 리용하며 공장 신문, 벽신문 등 선전 수단을 옳게 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문화 혁명의 선전자일 뿐만 아니라 조직자로 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 임무를 옳게 실행해야만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임무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를 나와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중학을 나와야 중학 지식이 있고 대학을 나와야 대학 지식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학교 졸업증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지 문화 수준과 지식 수준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동무들은 남의 리력서를 보고 대학 졸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상당한데》(장내 웃음) 하고 소학 졸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 문화 수준이 대단히 낮구만》 이렇게 속단합니다.

나는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가를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대학 졸업생이라고 해서 만나보니 허다한 사람이 대학 지식은커녕 판무식쟁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며 또 소학 졸업생이라고 해서 모두 허수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들 중에는 아주 점잖고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동무들이 대학 신비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동무들은 대학에 못 간다고 해서 자기를 과소 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우쭐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자고자대하여 계속 학습하는 것을 게을리 하다나니까 오늘 현실에 몹시 어두워지고 뒤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신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집에서 공부해도 다 대학 수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열심히 학습하여 우선 중학 수준으로, 다음에는 대학 수준으로 자기의 문화 수준과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창성이라든지 백두산 포태리와 같은 두메산'골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공부해서 대학 수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지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계속 학습하여 더욱 더 발전해야 합니다.

중학이나 대학을 나왔다고 자만자족하여 학습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반드시 부단한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한시도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단히 발전하는 것만큼 동무들은 항상 새 과학을 배우며 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근로자들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나 공산주의 교양 사업이나 다 당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문제와 결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원이나 비당원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로동당에 충실해야 합니다. 당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조선 인민의 지도적 력량입니다.

당에 대해서 충실하다는 것은 곧 혁명에 대해서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을 당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교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당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당성이란 당의 정책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힘,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바쳐 싸우려는, 당과 인민에 대하여 무한히 충성스러운 그러한 전투 정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 즉 당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철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보위하기 위하여 항상 투쟁하는 데서 표현되여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당의 통일이 없으면 그 당은 무력하여 마침내 혁명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몰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과거의 중앙 위원회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 당은 종파 분자들을 교양할 목적으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중앙 위원회에 포섭하였습니다.

박 헌영 일파도 있었고 최 창익을 괴수로 하는 엠엘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이 그들을 교양하고 개조하기 위해서 포섭한 것이지 그들과 사상적으로 타협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당의 성의 있는 교양에도 불구하고 종파 분자들은 끝끝내 자신의 죄과를 시정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의 단결을 와해하고 당의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갖은 음모를 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은 종파 분자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오래 동안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 세력은 철저히 분쇄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해방전에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장기간 투쟁한 세련된 공산주의자들과 해방후 당 및 국가 건설에 헌신적으로 참가한 검열된 투사들로 구성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당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를 보위하며 그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 종파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말고 그를 분쇄하기 위하여 단호히 투쟁해야 합니다.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석 선전하며 그들을 공산주의 정신으로 교

양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전원 선동원 동무들의 첫번째 과업이 자기의 당성을 높이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성이 없는 선전원과 선동원이 당 정책을 옳게 선전하며 군중을 옳게 동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상 전선에서 일하는 동무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당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해야 하며 당 중앙 위원회를 훼손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경향과도 견결히 투쟁할 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적 준비가 되여 있는 선전원과 선동원이야말로 우리 당이 요구하는 진정한 선전 일'군입니다.

동무들이 당 정책을 해설하고 군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동원시킬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자고 하면 동무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당 정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동무들 자체가 당 정책을 잘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옳게 선전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저 결정서의 문'구나 외워가지고 류성기통과 같이 옮겨 놓는 그런 사업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전원과 선동원 동무들은 우리 당의 정책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적용된 맑스—레닌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무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학습함과 동시에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조가 외부에서 들어 오든가 불순한 사상 경향이 내부에서 나타날 때에 그것을 철저히 분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무들은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동무들은 계속 부단한 수양과 학습을 통하여 이러한 사상과 지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군중과 밀접히 련계를 맺고 군중 속에서 활동하는 우리 당의 전사가 되여야 합니다.**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기 위해서는 군중과 같이 일하며 군중과 같이 호흡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최 용건 동무가 함남에 갔다 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사실 우리가 오래 동안 혁명 사업을 해 오면서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왔고 군중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받들고 일어난 우리 근로자들의 그와 같이 위대한 힘은 처음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래에 와서 우리 당 중앙으로부터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상론하며 그들을 동원하는 지도 사업의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당 사업에 유해로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사업 작풍이 기본적으로 극복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개별적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만 허 가이식의 당 사업 작풍은 완전히 극복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도원들이 지도 검열 나간다고 하면 그저 허물만 들추어 옵니다. 허물을 잘 들추어 내야 일 잘하는 지도원으로 되지 그렇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사업 방법은 이와는 판이합니다. 사업 검열의 목적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정해 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검열이라는 용어부터 《지도, 방조》로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도원들이 농촌에 나가서 마당도 쓸어 주고 일도 같이 하고 쉬는 짬에 담화도 하고 나쁜 점은 고치도록 이야기해 주고 이와 같이 군중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되니까 거기서 자연 나쁜 놈도 발견해 낼 수 있고 옳지 못한 경향도 찾아낼 수 있고 군중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무들도 이렇게 해서 군중 속에 들어 가야 합니다. 농촌에 나가서는 농민들과 같은 의복을 입고 탈곡하는 데 가서는 탈곡도 같이 하고 쉬는 시간에는 한자리에 앉아 담화하고 일하면서도 사업을 조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선전원이야 하고 머리도 괴상하게 깎고 녀성 동무들은 모양만 내고 핸드빽을 들고 다니고 하면 농민들은 곁을 주지 않을 것이며 따라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핸드빽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극장엘 갈 때에는 좋지만 군중 속에 사업하러 갈 때에는 그런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웃음) 과거에 행세'거리로 공산주의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는 것은 없고 공산주의 냄새는 피워야 하겠으니까 목책에다 무슨 《이데올로기》요, 《헤게모니》요, 《프로레타리아》요 하는 등의 서양말 술어를 적어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 할 때에는 이런 남이 알아 듣지 못할 말들을 섞어서 올려 헤구 내려 헤구 하였습니다. 함남에 이런 풍속이 많았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당 상무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한 번 신중하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중 앞에 나서서 연설한다면 로동자, 농민들이 무슨 소린지 알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행세'거리로 공산주의 하는 자들의 본을 딸 생각으로 철 없는 사람들은 또 이 행세'군들 한테서 그 목책을 빌려서 베껴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버릇은 아예 걷어 치워야 합니다.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

선전원과 선동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이 알아 듣고 깨닫게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이 알아 듣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요구를 알아 주며 이를 제때에 해결하며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하고 동원할 줄 아는 선전원이라야 우리 당의 진정한 선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과거의 종파'군들과 행세식 공산주의자들의 사업 작풍의 여독을 완전히 빼 버리고 인민 속으로 깊이 들어 가야 합니다.

동무들이 해야 할 과업은 구경 두 가지에 귀착합니다.

첫째 과업은 부단히 학습하여 자체의 수준을 높이며 당성을 단련하는 것이요,

둘째 과업은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서 그들을 교양하고 동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동무들이 공장과 광산, 농촌과 어촌 이르는 곳마다에서 공산주의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이 다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속기록에서 발취한 요지)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자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가장 절박하고도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그것은 얼마 전에 시, 군당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시기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위대한 력사적 과업 즉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여야 할 과업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류례 없는 급격한 전변의 시기, 가장 위대한 전환의 시기에 처하여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 과업의 하나인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회주의적 토대의 축성은 이미 완성되였으며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주의가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의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변혁이였다.

이 기초 우에서 우리 앞에는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는 과업이 전면에 나서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력사적인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에 들어 서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 등 객관적으로 준비된 물질적 제 조건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창조적 적극성, 그리고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은 류례 없는 대고조에 들어 섰으며 계속 앙양의 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는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한층 더 높은 새로운 앙양의 발단을 열어 놓았으며 생산력 발전에 비상한 충격을 주고 있다. 금년에 공업 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약 2배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는 오늘로써 래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이다.

그리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에 들어 서던 때에는《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이 문제로 되였다면 계획 실행에서 두 해를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벌써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 공산주의에로의 이행 준비가 일정에 오르고 있다.

이것은 실로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새로운 위대한 비약이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러한 비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가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제시한 위대한 강령적 과업을 6—7년이 아니라 4—5년 이내에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 1차 5개년 계획 과제를 2년 간 앞당겨 명년에 완수하려 하며 명년에 도달할 그 수준으로 2년 간 더 분투하여 예정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두 차례의 5개년 계획 과제를 수행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당은 또한 우리 농촌을 흉풍을 모르는 사회주의적 농촌, 공산주의적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농촌의 수리화, 전기화는 2—3년 내에, 기계화는 가까운 수년내에 완성할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실로 위대한 력사적인 과업이며 가장 긴장된 정력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이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공산주의의 문어구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의 개조도 완성하여야 한다.

의식의 개변은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부분이다. 사회주의는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이에 상응한 물질 생산적 토대를 축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회의 잔재들도 완전히 청산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된다.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김 일성).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급속히 촉진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력사적 위업을 승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긴절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켜야 할 과업과 관련된다.

지금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소유, 생산, 분배, 류통 등 경제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사회 관계가 지배하고 있으며 공고화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 및 습성의 개변은 아주 급속한 템포로 비교적 순조롭게 완수된 사회 경제적 변혁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완전히 적응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의식과 생활 관습 및 문화 수준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연설 중에서). 이리하여 근로자들 속에는 낡은 사회의 사상 잔재, 즉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가 남아 있으며 각양각색으로 발현되고 있다.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및 습성의 잔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사회 관계와 그리고 비약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생산력 발전의 속도와 모순됨으로써 이러저러한 형태로 우리의 전진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 제도의 공고화 및 그의 가일층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낡은 의식과 습성의 잔재들 즉 리기주의, 개인주의, 본위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등등은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주되는 장애물로 되고 있다.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 의식의 표현인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이미 우리의 실천에 의하여 명백해진 바와 같이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대담한 실천을 저애하며 당 정책의 관철, 그의 적극적인 실현을 저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전진에 적지 않은 장애를 주었으며 또 주고 있다.

부르죠아적 개인주의의 잔재인 리기주의적, 본위주의적 경향은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화를 장애하며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적 생산, 공동 생활에 각양각색으로 부정적 작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낡은 사회의 모든 진부한 잔재들을 극복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높은 템포로 전진시킬 수 없으며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적 사회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낡은 사상 잔재, 부르죠아적 생활 유습과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그를 철저하게 극복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직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의식의 강화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그 과학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동원적, 조직적, 고무적 역할을 논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과 과업, 방도와 조건 등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여

줌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모든 활동의 기초로 되는 당 정책을 본질적으로 파악케 하며 그의 관철을 위하여 모든 정력과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전진, 사회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장애물을 과감하게 타파할 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우선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예견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이 국내외의 원쑤들과의 더욱 첨예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적들과의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공산주의의 락원에 최대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 오늘 심각한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은 더욱 더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우리의 전진 운동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이미 청산된 적대 계급의 잔존 분자들은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착취의 대상을 영영 잃어버린 건달'군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였다.

우리의 승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이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원쑤들이 더욱 더 불안해 하며 발악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넘어 가는 것은 옹근 력사적 시대이다. 아직 이 시대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착취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이 옛 제도의 복구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을 것이니 이 기대는 옛 제도를 복구하려는 기도로 변하는 것이다…그 전복된 착취자들은 처음의 큰 참패 이후에 십배나 더한 미칠듯한 정력과 백배나 더한 적개심을 가지고 빼앗긴 <락원>을 도로 찾기 위하여…싸움에 투신하는 것이다》(레닌). 현 시기 우리의 국내 국외의 원쑤들도 바로 이렇게 발악하고 있다.

우리는 원쑤들의 반항과 침습을 십배 백배의 적개심으로써 무자비하게 진압 분쇄하여야 하며 그들의 준동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발붙일 곳을 주지 말아야 한다.

원쑤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경제적 토대에 발붙일 곳이 없어진 조건하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의식과 습성의 잔재를 리용하려고 기도하면서 각종 반동 요언들을 류포시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비방 중상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급 투쟁은 특히 오늘 가장 첨예한 사상 투쟁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바로 현 시기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가일층 강화하여 그들을 붉은 혁명적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것을 요구한다.

레닌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의 최후 원천에 의거하여야 한다. 힘의 최후 원천이란 로동자 및 농민 대중이며 그들의 의식성이며 그들의 조직성이다》(전집, 33권, 45페지)라고 교시하였다. 로동자, 농민, 인테리 대중을 선진적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는 기본적인 담보이다.

바로 이렇게 전체 인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만 우리는 사회주의적 기초 우에서의 우리 인민의 통일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그 어떤 환경하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보루로, 조국의 통일 독립 완수를 위한 확고한 정치 사상적 기지로 축성할 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양은 물론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로부터 우리 당의 주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여 왔다.

특히 전후 시기에 들어 와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이 급속히 진전됨과 관련하여 우리 당은 1955년 4월 전원 회의 이후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계급 교양, 사회주의 교양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 의식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위대한 력사적 과업은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공산주의 교양에서의 기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그것은 우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과 자본주의 멸망,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교양,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 교양, 당 중앙 위원회에 대한 충실성의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교양, 집단주의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교양, 부단한 혁신, 부단한 전진의 혁명적 정신의 교양이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기본 정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그리고 당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으며 그와 운명을 같이 할 줄 아는 인간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려는 데 있다.

공산주의 교양에 있어서 오늘 제 1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위업에 헌신하도록 하는 그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이것은 오늘날 생활에 의하여 확증되고 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절,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청산, 광범한 근로자들에 대한 진정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 등——이 모든 것은 오직 사회주의하에서만 실현되고 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는 사회의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바 이것은 자본주의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이는 수천만 인민 대중에게는 기아와 빈궁, 착취와 압박의 지옥이며 오직 소수의 자본가, 지주들을 위해서만 천국이다. 생산력 발전의 완만성, 실업군, 주기적 공황, 인민들에 대한 폭행, 탄압 등 이것은 자본주의의 고질이다.

오늘 남북 조선의 두 가지 판이한 현실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으며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가 달성한 성과들은 또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실증으로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 규모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자본주의 력량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우월하다. 경제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나 또는 일련의 중요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얼마 전에 발표된 1959—1965년 쏘련 인민 경제 발전 통제 수'자는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웅대한 강령이며 자본주의와의 경제적 경쟁에서의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의 담보이다. 이것은 전 세계 인민들 속에서 더욱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세계사 발전의 추세는 사회주의 승리와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날로 더욱 확증해 주고 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은 위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변되여 모든 곤난과 애로들을 타개하는 완강성, 불요불굴성을 산생시킨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음으로 하여 과거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투쟁에서 승리하였다. 쏘련 군대에 의한 우리 나라의 해방,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어려운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이 쟁취한 력사적 승리,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두고 있는 우리 인민의 빛나는 성과들——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멸망과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준다.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이것은 새 것의 불가극복성에 대한 맑스—레닌

주의 철학의 위대한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 새 것은 날로 장성 발전하며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승리한다. 새 것은 비록 초기에는 미약하나 사회 발전의 추세는 새 것의 승리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며 또 새 것에 의한 낡은 것의 극복을 불가피하게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주의 력량은 초기에는 미약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거대한 력량으로 장성되였으며 자본주의를 타승하는 강력한 력량으로 되였고, 자본주의는 과거에는 비록 사회주의에 비하여 그 력량이 강하였으나 바로 그것이 사회주의에 비하여 낡은 것이기 때문에 날로 쇠퇴의 일로를 걸어 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멸망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 새 것의 불가극복성과 낡은 것의 불가피적 멸망, 새로운 사회주의 력량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력사적 현실로써 실증해 주면서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필승의 신심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으로써 대중을 교양하는 것은 공산주의 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반일 민족 해방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과 우리 당의 투쟁 력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필승의 신념으로,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 정신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당과 조국을 위한 자기 희생적 정신과 곤난을 극복하는 완강한 혁명적 의지로 무장시킨다. 왜냐 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의 기본 내용이며 우리 당 투쟁 력사가 보여 주는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혁명적 전통 교양의 중요한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 중앙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의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그 점에 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당의 불요불굴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민의 빛나는 오늘날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그 행정에서 준비되고 단련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이 없었더라면 해방후 종파 분자, 지방 할거주의자, 변절자들의 준동이 심하던 간고한 조건하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내에 새형의 맑스주의 당을 창건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없었더라면 우리 인민이 달성한 그 모든 빛나는 승리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과 투쟁 력사에 대한 교양은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리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에 대한 존경과 지지, 충실성과 헌신성의 정신을 더욱 배양케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근로자들을 당의 충직한 전사, 자기 마음을 당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전사,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로 되게 하여야 하며 우리 당의 철석같은 통일 단결을 파괴하려는 사소한 경향에 대해서도 조금도 타협 없이 투쟁을 전개하는 확고부동한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된 투사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정치 사상적으로 보위하는 강철의 의지로 무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조국, 우리 인민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그리고 인민에 대한 사랑이며 자기의 직장, 향토, 국토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빼앗으려 하는 계급적 원쑤들과 착취자적 국가 사회 제도에 대한 증오이다. 그러므로 지주, 자본가들의 본질을 근로자들에게 똑똑히 인식시키며 우리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본질을 폭로하며 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대중을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는 적대되는 부르죠아 민족주의, 이것은 미제에의 예속에로 이끄는 리 승만 도당의 매국적 사상이다. 프로레타리아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이것만이 우리 인민의 자주 독립과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보장한다. 남북 조선의 현실이 이것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남북 조선의 인민 대중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통일 단결의 강력한 뉴대로 되고 있으며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온갖 창발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에로 나서게 하는 혁명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조국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 없이는 전취할 수도, 수호해 낼 수도 없다. 때문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우리가 사회주의적 조국에 대한 애국자로 되자면 우리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회주의 진영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제국주의 진영을 증오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계속 근로자들을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교양이다.

공산주의를 향하여 우리를 가장 빠른 속도로 추동하는 힘——그것은 첫째로도 둘째로도 우리 인민의 영웅적 로동이다.

사회주의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로동의 성격을 일변시켰다. 로동은 공민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로 되였으며 자기 자신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신성하고도 영용한 것으로 되였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로동——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영원히 과거지사로 되였다.

사회주의는 비단 로동의 성격을 일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전체 인민이 로동을 사랑하며 누구나 할 것 없이 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 로동만이 우리에게 물질적 부를 창조해 줄 수 있으며, 또한 로동만이 일체 과학 문화 지식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우리가 하려는 위대한 사업도 오직 로동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전체 인민이 보다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급속히 촉진될 것이다.

오늘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위대한 과업은 전체 인민들을 더욱 더 영웅적 로동에로 부르고 있다. 공산주의 교양은 모든 사람들을 로동을 애호하는 정신으로 교양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교양은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점차로 한층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 올린다.

오늘 우리 로동자, 농민들의 영웅적 로력 투쟁에서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로동의 싹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라나고 있다. 엄동 설한에 덧집을 짓고 용광로 복구 건설 기간을 단축시키며 제기되는 일체의 기술적 난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낸 황철 로동자, 기술자들의 위훈, 해주—하성간 200여리 광궤 철도 부설 공사를 단 75일 간에 수행한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기적, 수 많은 로력 혁신자들의 영웅적 로력, 도처의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에서는 로동에 대한 새로운 공산주의적 태도를 명백히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로동자들이 보수에 대한 관념, 노르마의 관념을 떠나 오직 당의 호소,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며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하나의 념원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을 창조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로동의 싹이다.

《공산주의적 로동이란 것은 그 말의 보다 좁고 보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사회를 위한 무상 로동이다. 즉 그것은…자원적인 로동, 기준량과는 관계 없는 로동이며 보수를 타산하지 않는, 보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로동이다》 (레닌, 《공산주의 교양에 관하여》 조선문 판, 60페지).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적 로동의 싹들—그것은 보수주의와 소극성, 침체성을 불사르며 낡은 관념, 습성, 편견, 신비주의를 분쇄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추동하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대중을 교양함으로써 우리는 공산주의적 로동의 싹들을 백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산주의 교양에 있어서 개인주의를 반대하며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주의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는 청산되였다. 기본적으로 도시—공업에서는 전 인민

적 소유, 농촌에서는 협동적, 집단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근로자들 속에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본위주의 등 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남아 있다.

일부 농업 협동 조합원들 속에는 아직도 공동 재산에 대한 소홀한 태도가 남아 있으며 로력일을 많이 얻기 위하여 공동 로동을 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리기주의적 경향의 발현은 공동 경리의 발전, 협동 조합의 조직 경제적 공고화에 지장을 주며 생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장애로 된다. 앞으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위하여 협동 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도 개인주의의 잔재는 큰 장애로 될 것이다.

개인주의, 리기주의의 잔재는 또한 지주, 자본가 제도의 복구를 망상하는 계급적 원쑤들에게 발붙일 틈을 제공하게 된다. 적들은 이러한 낡은 의식의 잔재를 리용하여 사적 소유에 대한 환상을 고취한다.

우리의 경제 기관, 국가 기관들에서의 기관 본위주의, 질서와 규률의 해이, 국가 재산에 대한 소홀한 태도 등은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전진을 적지 않게 저애하고 있다. 특히 기관 본위주의적 경향은 개인주의의 하나의 표현 형태로서 보수주의를 조장하며 막대한 국가적 예비를 사장시키며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에 지장을 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인 개인주의의 잔재를 청산함이 없이는 오늘 혁명의 고조를 추동하는 강력한 공간으로 되는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국가적, 집단적 소유를 더욱 원만히 수호할 수 없으며 원쑤들의 침해를 반대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더 한층 공고화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적 도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리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것은 부르죠아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가장 뿌리 깊은 잔재이다. 이것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 원칙이 실현될 수 없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는 집단주의의 물질적 기초이다. 공동 소유, 공동 로동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 적응하게 우리는 집단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우위에 놓는 집단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집단주의 교양, 이것은 동시에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우리 시대의 당면한 력사적 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며 공산주의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전체 근로자들을 계속 혁신, 부단한 전진의 혁명적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원래 부단 혁명의 주장자들이다. 민주주의 혁명에서 계속 사회주의 혁명에로 넘어 가자는 주장이나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부단히 더욱 제고하여 계속 공산주의에로 넘어 가자는 지향은 다 같은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 정신의 표현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영웅적 투쟁으로써 오늘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결정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미증유의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세기적으로 락후했던 우리는 이미 도달한 오늘의 수준, 오늘의 속도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세기적 락후성을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청산하려 하며 하루 속히 선진 국가 인민들의 수준을 따라 잡고 멀지 않아 공산주의에 들어 가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억제할 수 없는 한결같은 의지이며 지향이다.

우리 인민의 이 지향을 실현하는 것——이것은 전 민족적 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며 전체 남북 조선 인민과 후대들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담보이며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 발전에 대한 기여로 된다.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전진하기 위하여 지금 이를 저애하는 주되는 장애물인 보수주의와 소극성, 침체성을 불살라 버리고 계속 혁신, 부단한 전진의 혁명적 정신으로 더욱 더 무장된 공산주의적 투사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적 조건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과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공산주의 교양과 함께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필수적 조건이다.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함이 없이는 즉 일정한 문화 수준이 없이는 공산주의 교양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또한 문화 수준을 제고함이 없이는 높은 기술도 소유할 수 없다.

당 단체들은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 제고를 위한 의무 교육, 성인 교육, 군중 문화 사업 등 문화 혁명 수행을 위한 당의 제반 시책의 성과적 집행에 큰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것을 공산주의 교양 사업과 결부시켜 이 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다음과 같이 문제가 서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이냐, 자본주의 사상이냐, 그 중간은 없다. 과거에는 이 두 중간에서 방황하면서 우리들 속에 끼여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문제가 다르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주의적 기초 우에서 단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 투사로, 당의 전사로, 김 일성 동지의 전사로 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적들을 더욱 더 전률케 할 것이며 우리 위업의 승리를 가일층 촉진시킬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개 당 단체들은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자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아야 하며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 사업——이것은 결코 단시일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수십 수백년에 걸쳐 사람들에게 형성된 낡은 사상, 낡은 관습을 뿌리채 뽑아 버리고 그들을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습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생산 관계를 개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곤난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요하는 사업이다. 이것을 일시적 깜빠니야로, 단순한 일로 생각한다면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공산주의 교양은 공산주의의 원리들을 리해하거나 암송하는 데 멎을 수는 없다. 반드시 사람들을 공산주의의 원리들을 실천하는 투사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천 투쟁 속에서 또는 실천 투쟁에 립각하여 사람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낡은 형의 선전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며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낡은 형의 선전은 아무 소용도 없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해야 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공산주의 교양에 관하여》, 조선문 판, 100페지——방점은 필자). 《오직 자기의 학습, 교양 및 교육의 매 걸음을 낡은 착취자 사회를 반대하는 프로레타리아 및 근로자들의 끊임 없는 투쟁과 련결시킴으로써만…공산주의를 배울 수 있다》(상동, 81페지).

모든 선전 선동 수단들, 교육 교양 기관들을 다 동원하면서 어떻게 근로자들의 공산주의 교양을 실지 사업—생산 또는 계급 투쟁에 립각시킬 것인가, 이것은 매개 당 단체들과 당 일'군들의 창조적 사업으로 될 것이다.

공산주의 교양은 무엇보다도 자체 교양으로 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을 주입하는 선전 선동 사업, 교수 교양 사업은 물론 중대한 역할을 논다. 그러나 사상과 습성을 개조하여 새 형의 인간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교양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 자체의 노력이며 투쟁이다. 당 단체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교양——이것은 심각한 사상 투쟁이다. 사상 투쟁과 실천 과정을 통해서만 낡은 사상과 습성의 잔재는 청산되고 공산주의적 의식은 공고화되며 새로운 습성과 관습이 형성된다. 사상 투쟁이 없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공산주의 교양으로 될 수 없다. 매개 당 단체들과 당원들, 전체 근로자들은 공산주의 교양이 사람들의 의식에서의 자본주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혁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위대한 친선, 견고한 단결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의 인솔하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지난 11월 21일부터 근 20일 간에 걸쳐 중화 인민 공화국과 월남 민주 공화국의 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귀환한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금번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이 친선 방문은 극동에서의 거대한 정치적 사변의 하나로 되였다.

이 방문을 통하여 우리 세 나라 인민들의 전통적인 친선 및 협조 관계는 가일층 공고화되였다. 조 중 월 세 나라 인민들은 다 같이 세계 사회주의 진영 동방 초소에 서 있으며 가장 뿌리 깊고 튼튼한 뉴대로 련결된 화목한 한집안 사람들이다.

금번 우리 정부 대표단의 중국, 월남 방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분쇄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승리한 영웅들, 개선 장군들,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한 승리자들의 상봉이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공동의 목적,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는 단결하라!》는 전투적 구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상은 우리 세 나라 인민들을 튼튼히 련결시키고 있는 붉은 뉴대로 되고 있다.

특히 조 중 량국 인민의 친선은 장구한 기간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졌으며 공고 발전되였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조선을 강점하고 중국땅을 침략하였던 그 간고한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기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 형제들과 함께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아세아와 구라파의 전 지역에서 파씨스트들의 발악이 가장 혹심하였고 일제가 전 아세아를 삼키려고 발악하던 그 어려운 시기 장구하고 간고한 공동 투쟁에서 맺어진 조 중 량국 인민들의 친선 관계는 우리 인민의 소중한 국제주의적 전통으로, 자랑으로 간직되고 있다.

주 덕 동지는 조 중 경제 및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5주년 경축연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 중 량국 인민은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한 전우이다.

조선 로동당과 정부의 여러 지도자들은 모두 중국 혁명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또한 중국 혁명의 지도 사업에 참가하였었다… 경애하는 김 일성 수상은 일찌기 중국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항일 투쟁에 장기간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북 항일 련군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였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형제적 조선 인민이 준 장기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원조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미 제국주의 무력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어려운 전쟁 시기에 중국 형제들은 자기의 귀중한 아들딸들을 파견하여 우리를 피로써 도와 주었다. 조선의 높고 낮은 고지들, 깊고 얕은 강들, 동서 해안 그 어디에나 중국 인민 지원군 용사들의 위훈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다.

조선 인민은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의 원조와 함께 중국 형제들의 피의 원조가 있음으로 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16개국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략을 격퇴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직후의 우리 나라 형편은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 때에 역시 중국의 형제들은 전쟁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막대한 원조를 주었다. 전후 중국 인민이 우리에게 준 8억 원의 무상 원조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중국 인민 지원군은 전후 우리의 복구 건설을 성심성의 도와 주었다.

조선 인민을 피로써 도와 준 은혜로운 중국 인민 지원군은 조 중 량국 정부의 제의에 근거하여 지난 10월 말까지에 조선으로부터 철거를 완료함으로써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놓았다.

지난 2월 주 은래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했을 때, 중국 인민 지원군이 조선으로부터 철거하던 때 전체 조선 인민의 심정과 전국 강산은 친선의 정으로 들끓었다. 전쟁 시기에 그 간고한 시련과 참화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우리 인민들이 중국 인민 지원군 장병들을 환송하는 마당에서는 석별의 눈물을 금치 못한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였겠는가.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한 생활 속에는 영웅적 중국 인민 지원군의 업적이 깃들어 있으며 전체 중국 인민의 지성어린 원조가 깃들어 있다》.

금번 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이와 같이 뿌리 깊고 절절한 우리 인민의 친선의 정과 함께 전후 페허 우에서 이룩한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안고 중국과 월남을 방문하였다.

중국과 월남 형제들은 즐거운 명절을 경축하는 것과 같이 들끓는 감격과 친선의 정으로써 김 일성 동지와 우리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였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월 형제들의 감격의 환성은 파도를 일으켰고 친선의 정은 꽃발을 이루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형제들의 환영은 전례 없이 성대하였다.

북경의 천안문도, 무한의 장강도, 광주의 월수산도, 항주의 서호도, 상해의 고층 건물도 조선 인민에 대한 사랑과 김 일성 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끓어 넘쳤다.

6억 5천 만의 중국 형제들의 감격적인 《김 일성 장군의 노래》 소리, 소박한 로동자, 농민들의 시와 담화 속에서 울려 온 조선 인민, 특히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환성은 그를 수령으로 모신 조선 인민을 비할 바 없는 영광과 긍지, 흥분으로 들끓게 하였다.

이 영광과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조선 인민은 당과 정부와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공장과 광산, 농촌과 어촌에서 더욱 높은 증산의 불'길을 올리였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영웅적 우리 로동 계급은 지난 12월 3일 현재로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의 높은 고개로 되는 금년도 공업 총 생산 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전체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관개 공사와 당면한 영농 준비 사업에서 더 큰 열성을 발휘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우리 청년들은 삼등—세포, 지하리—평산간 대철도 건설을 자기들의 힘으로 담당 수행할 공산주의적 발기를 들고 현지로 출발하였으며 첫삽을 들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의 중국, 월남 방문 기간은 중 월 형제들과 함께 우리 나라 전국이 영광과 감격과 흥분과 창조적 로력 투쟁으로 들끓었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중국, 월남 체류 기간 그 나라들의 도시와 농촌을 참관하였으며 모 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및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지도자들과 호 지명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월남 로동당 및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 지도자들과 화기에 넘치는 담화와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을 통해서 현 국제 정세에 대한 평가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가일층 공고히 할 데 대한 문제, 맑스—레닌주의 순결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수정주의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데 대한 문제, 조 중, 조 월 간의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조 중 량국 정부의 공동 성명과 조 월 량국 정부 대표단의 공동 성명들이 명백히 말해 주는 바와 같이 세 나라 정부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과 중국 국토의 완정, 월남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남조선과 대만으로부터 미군의 철거와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간섭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공동 성명들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조 중 월 세 나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련대성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형제적 중국 인민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에서 항상 조선 인민의 편에 서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싸우겠다는 자기의 확고한 결의를 우리 정부 대표단을 통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표명하였다.

《조 중 량국 인민들 간의 이러한 친선 단결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 간의 국제주의적 단결과 호상 협조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김 일성). 어떠한 힘도 조 중 량국 인민간의 이러한 친선과 단결을 깨뜨릴 수 없다.

금번 우리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친선 방문 과정에서 진행된 회담들과 발표된 공동 성명들은 조 중 월 세 나라 인민들의 불패의 단결의 시위로 되며 사회주의 진영의 가일층 강화에 기여로 된다.

우리 세 나라들의 위력의 장성, 단결의 가일층의 강화는 극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담보로 되며 동시에 이것은 새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하면서 남조선과 대만에서 자기의 침략 군대를 철거시키려 하지 않고 남부 월남에서 자기의 침략적 마수를 떼려고 하지 않으며 극동에서 소위 《동북 아세아 동맹》과 《두 개의 중국》을 조작하려고 날뛰는 미제와 그의 주구들 및 모든 반동 세력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그러므로 금번 우리 정부 대표단의 친선 방문 결과에 대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형제적 국가 인민들이 이를 열렬히 지지 환영하는 반면에 미제와 리 승만, 장 개석, 느고 딘 디엠 도당을 비롯한 모든 반동 세력이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이미 력사에서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마음대로 동방 인민들을 침략하며 전쟁을 도발할 수 있던 때는 영원히 뒤로 물러 갔다.

작년 11월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대표회가 있은 후 지난 1년 간의 국제적 사변들은 이것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조 중 월 우리 세 나라는 다 같이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대가정 속에 단결되여 있는바 날이 갈수록 이 진영의 단결과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21차 대회를 앞두고 발표된 1959—1965년 쏘련 인민 경제 발전 통제 수'자에 관한 흐루쑈브 동지의 보고 요강에서 제시된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은 모든 제국주의자들을 더 큰 불안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 애호 인민들을 더욱 더 큰 승리에로 고무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 모 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령도하에 이미 모든 전선에서 사회주의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약진을 이룩하고 있다. 금년에 중국에서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1.6배로 장성하며 특히 강철 생산은 2배로 장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알곡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근 2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수년내에 강철을 비롯한 중요 공업 제품의 생산에서 영국을 따라 잡을 것이며 릉가하게 될 것이다.

호 지명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월남 로동당과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된 월남 인민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는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월남 인민은 이미 공업과 농업에서 전쟁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형제적 국가 인민들과 함께 우리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류례 없는 대고조를 이룩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충직하고 그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능숙하게 적용하며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위력을 불러 일으키는 우리 당의 현명한 지도는 전쟁의 참화가 그처럼 심하였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전후 불과 3—4년 간에 인민 경제의 복구 사업을 성과적으로 완료하고 오늘의 대고조를 달성하게 하였다.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 공업 총 생산액은 정전 직후인 1953년에 비하여 5.5배로 장성되였다.

우리의 협동 조합 농민들은 금년에 370만 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이상과 같은 모든 사실들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 우월성의 시위로 되며 신생 력량인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의 확증으로 된다.

미제와 리 승만, 장 개석, 느고 딘 디엠 도당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조선 인민은 반드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것이며 대만은 중국 인민에게 돌아 올 것이며 남북 월남은 통일되고야 말 것이다.

금번의 친선 방문을 통하여 우리 정부 대표단은 중국과 월남 형제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하고 있는 위대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을 직접 보고 배웠으며 또 조선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형제적 벗들에게 소개하였다. 이것은 금후 우리 세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로 될 것이다.

중국과 월남 형제들은 조선 인민이 전후 폐허 우에서 달성한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특히 높이 평가하여 주었다.

형제적 국가 인민들의 이러한 평가와 찬양은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모신 조선 인민의 영광과 자랑으로, 더욱 큰 승리에 대한 고무로 된다.

금번 우리 정부 대표단의 중 월 량국 방문은 광범한 국제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켰다.

오늘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하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간 앞당기기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앞으로 내달리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우리의 전진 속도를 더욱 높이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 준 형제적 국가 인민들의 높은 평가와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된다.

달성된 성과에 대한 자기 만족은 혁명 정신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우리의 전진을 장애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및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여 계속 철저히 투쟁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 혁신, 계속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그를 옹호하며 모든 분야에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임무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력사적 과업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아세아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에 보다 새로운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현 시기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와 생산 장성 템포

전 용 식

1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 시키기 위한 혁명적 고조는 가일층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인민 경제는 높은 템포로 약진을 계속하고 있다.

1957년에 우리 나라 공업 총 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44%라는 세계에서도 류례 드문 높은 템포로 장성하였다.

이 해에 우리는 1946년에 비하여 현대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29배, 야금 공업은 8배, 연료 공업은 3.1배, 화학 공업은 4.8배 이상으로 각각 그 생산을 거족적으로 발전시켰다.

인민의 생활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 경공업 부문들의 장성 정형을 보아도 방직 공업은 29배로,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은 6배로, 제혁 및 제화 공업은 71배로, 고무 공업은 46배로, 수산업은 10배로 각각 비약적으로 증대되였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공업은 지난 해의 경이적인 장성에 계속하여 또 다시 35% 이상 비약적으로 장성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리하여 금년에 우리는 1946년 한 해 동안의 공업 총 생산액을 불과 한 달 동안에 생산하게 되며 1946년부터 1949년에 이르는 4년 간에 생산된 것보다 1.5배나 되는 공업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우리는 명년에 다시 60% 이상의 공업 장성 템포를 예견하게 되였다.

생산 장성의 높은 템포는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해 혹심한 자연 재해를 극복하고 320만 톤이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던 다수확을 쟁취한 농민들은 금년에는 다시 1956년 수준을 130%로 초과하여 370만 톤의 알곡을 수확하게 되였다. 이것은 전쟁전 최고 수확 년도인 1948년에 비하여 실로 100만 톤이나 더 많은 알곡을 수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9월 전원 회의 이후 로력적 열성이 더욱 고조된 농민들은 명년에 500만 톤 이상의 알곡 생산을 결의하여 나섰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정당 평균 벼 4톤 생산 문제를 론의하였는데 오늘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정당 벼 45톤이 신기하지 않은 일로 되였으며 정당 10톤 이상의 면화가 생산된 례도 드물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제 1차 5개년 계획에 예견하였던 기본 과업이 3년째 해인 래년에 벌써 완수되리라는 확고한 전망을 주며 한 개의 5개년 계획 기간에 두 개의 5개년 계획 과제가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되고 있는 것은 생산 장성의 비약적 템포인바 오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천리마》운동도 바로 세인을 놀래우는 이 기적적인 템포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리마——이것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령도하에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세차게 진군하는 조선 인민의 그 무엇으로써도 막아낼 수 없는 혁명적 력량, 열화같은 혁명적 전개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력의 미증유의 장성 템포로써 인구 1인당 공업, 농업 생산량에 있어서 선진 국가들을 급속히 따라 잡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일부 중요 제품들에서는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릉가하였다. 석탄, 알곡 등의 인구 1인당 생산에서는 아세아에서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을 릉가하였으며 명년에는 전력, 선철, 쎄멘트 등에 있어서도 그를 릉가하게 될 것이다. 선철, 비료의 인구 1인당 생산에서는 벌써 이태리를 앞섰다.

남조선과의 대비는 우리의 장성하는 경제적 능력의 거대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 준다.

1957년에 인구 1인당 주요 제품 생산량에 있어서 북반부는 남조선에 비하여 전력은 13배, 강철은 44배, 쎄멘트는 25배, 석탄은 5배, 수산물은 4배에 달하는 놀라운 수'자를 보여 주고 있으며 해방 당시에는 거의 남반부에만 집중되여 있었던 방직 공업의 제품도 오늘에 와서는 북반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1957년에 우리는 27만 톤의 선철과 32만 3천 톤의 화학 비료를 생산하였는데 남조선에서는 그것을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인구 1인당 공업 생산 특히 중공업 제품의 생산이 높아질수록 그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더욱 높은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과 더욱 높은 소비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57년에 이미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190%로 높인 로동 계급은 금년에는 이 분야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켰으며 앞으로 로동 생산 능률을 몇 프로가 아니라 배 내지 수배로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인민의 물질적 복리의 가장 중요하고 종합적인 지표로 되는 국민 소득은 1957년에 1949년에 비하여 2배로 장성하였다. 국민 소득의 분배 및 재분배 과정을 통하여 축적과 소비의 조화적인 배합을 보장하면서 인민의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우리 당의 정책에 의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1957년에 1949년 수준의 1.3배에 달하였으며 그들의 임금은 명년 1월 1일부터 다시 평균 40%나 인상되게 되였다. 정전 직후 약 30%를 차지하였던 빈농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농민들의 생활은 오늘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한 중농의 수준에 도달되였다.

우리 인민이 달성하고 있는 이 비약적인 장성 템포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목표가 더욱 앞당겨 실행될 것이란 것을 말하여 준다.

이 높은 템포로 하여 우리는 가장 혹심한 전쟁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1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면서 벌써 사회주의 건설을 결정적으로 촉진시켜 우리 나라를 멀지 않은 장래에 공산주의를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우에 올려 세울 데 대한 문제를 말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이처럼 급속한 템포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의 이 비약을 초래케 하였는가?

오늘의 이 위대한 혁명적 비약——이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 대중의 혁명적 기세의 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당하고도 믿음직한 방도를 찾아내고 있으며 맑스와 레닌이 내세운 위대한 목적 달성에로 우리 나라와 인민을 성과적으로 인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과 그가 관철되여 중공업 및 경공업 기지들이 창설되고 점차 자립 경제의 기술 경제적 조건들이 준비되여 온 사실은 오늘의 비약을 초래케 한 물질적 토대로 되였으며 당의 정책을 반대하여 출현한 흉악한 반혁명 종파 분자들을 위시하여 각종 보수주의자, 소극 분자들과의 견결한 투쟁 속에서 달성된 전 당의 완벽한 사상 의지의 통일은 이 비약을 초래케 한 중요한 사상적 전제로 되였다.

우리 당의 지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온갖 착

취와 빈궁의 근원에서 종국적으로 해방되였다. 자기 력사상 처음으로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모든 력량을 발양할 수 있는 물질적, 정치적, 사상적 토대를 가지게 된 근로자들은 수천년래 물려 받은 모든 락후성을 철저히 청산할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 생산력을 급진적으로 발전시켜 동방의 락후한 나라로 불리우던 우리 나라를 높은 기술을 소유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서 세계 선진 국가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 세우기 위하여 무궁무진한 혁명적 력량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하고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인민이 세우고 있는 모든 위훈이 가지는 가장 심오한 의의는 바로 그것이 인민의 개성의 완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면서 다방면적인 풍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우월성, 이 우월성을 백방으로 리용하고 있는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데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 당의 옳바른 정책과 령도, 인민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국제주의적 협조 등 현 시기 우리 나라 생산력의 비약적 장성 템포를 초래케 하고 있는 요인들 중 가장 기본적이며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의 몇 개 측면을 고찰하여 보자.

2

오늘의 높은 생산 장성 템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 당이 기술 혁명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게 제기하고 이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즉 현재 우리 나라 인민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기술 발달에서의 일대 변혁이 오늘의 높은 생산 장성 템포를 보장하고 있다.

기술적 개건기에 들어 서면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 승리를 위하여 기술 혁명이 가지는 결정적 의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추동해 왔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수행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짧은 시일내에 기술 발전에서 선진 국가들을 따라가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공업, 농촌 경리 및 기타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들의 가일층의 발전은 결정적으로 기술적 진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김 일성,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의 연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전체 근로자들의 비상히 앙양된 열성에 의하여 빛나게 실천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수천년래 선조 대대로 물려 받은 기술의 락후성을 철저히 벗어 던지고 선진 공업 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발달은 기계 기술에 의한 수공업적 기술의 교체, 최신 기계에 의한 낡은 기계 시설의 교체,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의 제고, 선진적 생산 방법의 도입 등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도시 공업에서는 새로운 생산 기술 공정들이 속속 도입되고 기계화, 자동화의 수준이 급격히 제고되고 있으며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엑쓰까와또르를 비롯한 최신 대형 기계 설비들이 우리의 자재와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선진 국가들이 달성한 기술을 급속히 도입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자연적 및 경제적 제 조건에 적합한 기술의 도입을 위한 발명 사업이 광범히 전개되여 우리 나라의 현 기술 발전 수준과 선진 국가의 수준간의 차이를 급속히 단축시키고 그를 따라 잡아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또한 수공업적 기술을 대신하는 소기계화를 광범히 도입하면서 기술 발달의 모든 가능성을 리용할 것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생산력의 주되는 요인으로서의 사람은 오늘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수행의 직접적 담당자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기술 혁명 수행에 대중적으로 동원되여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인민 대중의 창의 창발성에 의거하는 당의 옳바른 사업 방법, 그리고 최근 시기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교육과 생산 사업의 밀접한 결부, 기술 의무 교육제의 실시 준비 기타 중요 시책들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에 의한 선진 기술의 습득과 이에 기초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시키기 위한 집단적 혁신 운동의 전개는 현 시기 기술 혁명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리가다, 쩨흐 나아가서는 기업소 전체가 집체적인 지혜에 의거하여 개별적 혁신자들이 달성한 높은 성과를 전반적으로 달성해가는 사회주의 경쟁의 이 발전된 형태는 오늘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을 급속히 추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선진 기술을 급속히 습득하고 그 기능 수준을 높이면서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바 이는 생산 장성에서 일대 비약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업의 적극적 지원하에서 우리 나라 농촌에서도 기술 혁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당은 농업 기술 혁명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자연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촌의 수리화, 전기화 및 기계화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중심 고리로 제기하고 있으며 수년내에 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은 농업 기술 혁명의 기본 고리로서 수리화를 포착하고 9월 전원 회의에서 2—3년내에 100만 정보의 논밭에 관개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 사업은 지금 전 인민적 운동으로 성과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심경하고 밀식하며 대량의 시비를 보장함으로써 단위당 수확고를 수배가 아니라 수십배로 제고시키고 농업 생산 발전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투자와 그 생산성에 관한 문제는 리론 및 실천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정한 토지에 자금 및 로력이 계속 투입될 때 축차적으로 투하되는 자금 및 로력에 대한 수확고의 장성이 점차 감소된다는 《리론》은 오직 자본주의하 근로 계급의 빈궁화를 합리화하고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호하는 것이다.

맑스는 이미 그의 지대론을 이러한 《리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는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될 때 토지에서 그 생산성이 얼마나 경이적인 속도로 제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농업 생산 발전의 구체적 현실이 확증하고 있다.

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과 집약적 경영은 농촌 작업의 기계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한 일반적으로 막대한 추가 로력을 필요로 하는만큼 우리 나라의 현 조건하에서 기계화를 실시함이 없이는 농업 생산에서 급속한 전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 당은 가까운 년간에 3만 내지 3만 5천 대의 뜨락또르와 2만 5천 내지 3만 대의 자동차를 농촌에 공급하여 기계화를 완성시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 당은 문화적인 농촌 건설과 농촌의 기계화, 수리화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전기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1—2년 내에 농촌 전기화를 완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농촌의 전기화는 농촌의 가는 곳마다에서 전등을 켜고 라지오를 듣게 할뿐만 아니라 탈곡, 제분, 정미 등 여러 가지 농촌 작업 수행을 위한 동력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관개 사업이 완성되여 수 많은 저수지와 양수장이 설치되며 기계화에 필요한 방대한 량의 농기계와 운수 수단이 공급되고 수 많은 발전소들이 창설되면 우리 나라 농촌은 새 기술로 장비된 거대한 고정 폰드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 기술 혁명이 기본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 생산 발전의 비약적 템포를 실현함에 있어서 결정적 작용을 놀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인바 우리는 이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여기에 들어서고 있다.

3

기술 혁명과 함께 현재 우리 나라 생산 장성의 높은 템포를 초래케 하고 있는 다른 조건은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하에서의 막대한 인민 경제 내부 예비의 철저한 동원 및 그의 리용이다.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가 있은 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는 극히 중요한 특징들을 나타내였다.

이 기간 당의 정확한 령도하에서 인민 경제에 잠재하던 막대한 예비가 계속 적발되여 생산 장성의 비상히 높은 템포를 달성함에 있어서와 인민 경제 각 부문간 균형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생산 장성의 규모는 새로이 생산 확대에 들어서는 생산 수단의 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 새로이 생산 확대에 들어서는 생산 수단의 규모는 선행 년도들에서의 생산량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러나 생산 수단을 절약함으로써 같은 량의 생산 수단으로 보다 많은 생산이 가능하며 또 잠재하고 있던 생산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선행 년도의 생산 수단 생산의 범위를 벗어난 생산의 확대가 가능하다.

맑스는 이미 자본주의하에서 불변 자본의 절약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밝히면서 자본주의하에서 이것은 로동자들을 희생으로 하여 진행되고 자본가들의 리윤을 증대시키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 수단의 절약이 근로자들의 창의에 기초하고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진행된다. 그러고 이것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마는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는 이를 통하여 생산을 장성시킬 수 있는 일층 현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에 예비를 정확히 포착하고 성과적으로 동원 리용하는 문제는 생산의 신속한 확대에서 더욱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리 당은 12월 전원 회의에서 설비 리용률의 제고, 원료 자재의 절약의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전체 근로자들을 이에 추동시키면서 당시 인민 경제에 내재하고 있던 객관적 조건들을 미리 정확히 타산하였다.

당시 3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결과 우리 인민 경제는 적지 않게 최신 기계 설비로 장비되였으나 근로자들의 기능 수준의 향상은 이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근로자들의 기능 수준을 급속히 높이면서 주어진 기계 설비 자재들을 가장 성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철저한 절약을 달성하는 문제는 생산 장성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이리하여 12월 전원 회의 후 실로 거대한 예비가 탐구되여 생산 장성의 비약적 템포를 초래케 하였다.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기계 시설들의 가동률, 리용률이 급격히 제고되고 원자재 소비 기준은 현저히 저하되였으며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 제고, 로동 조직의 합리화 등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12월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거대한 앙양을 초래케 한 단서로 되였다. 그후 계속된 혁명적 고조로 하여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 두해 동안에 공업 생산을 실로 약 2배로 장성시키는 기적적 성과를 달성하게 되였다. 여기서 우리 당은 인민 경제에 잠재하는 모든 예비들이 다 동원 리용되였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경계하면서 절약과 증산의 구호를 계속 제기하고 인민 경제에 잠재한 모든 원천들을 계속 동원하도록 추동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우리 당은 1958년 6월 전원 회의에서 예비 동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내놓았다.

인민들 속에 광범히 소유되고 있는 수공업

적 기술과 자재 원천들을 남김 없이 동원하여 지방에서 중 소 규모의 기업들을 창설 발전시킴으로써 벌써 1959년에 1천 여억 원에 달하는 생산액을 낼 수 있는 거대한 예비가 눈앞에 솟아났다.

우리 당의 이 정책은 지방 및 대중의 창발성과 창조력의 최대한의 발양과 중앙 집권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산 모범으로 된다.

6월 전원 회의 결정에 기초한 지방 중 소 규모 기업의 광범한 창설은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리론 실천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미 인민 경제에 선진 기계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해당한 부문에 일정한 수의 선진 기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조건하에서도 이 선진 기계 기술 도입의 범위를 계속 넓히고 이러한 선진 기업소를 계속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 발전의 매개 시기에 있어 반드시 제한성이 있다. 기계 시설들을 생산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나라의 생산 능력, 축적의 규모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 선진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기술 일'군들의 수의 장성, 생산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발전 속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원래 많은 투자를 고착시키고 장기간을 요하는 대규모 시설의 건설과 함께 짧은 기간에 조업을 개시할 수 있는 중 소 규모 시설의 건설을 이에 배합시키는 문제는 축적과 소비의 적절한 배합, 자금 회수 속도의 신속화, 생산의 합리적 배치 등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6월 전원 회의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제기된 중 소 기업의 대대적인 창설 확장은 이것이 주로 지방적 자원에 기초하고 수공업적 기술까지도 포함하여 근로 대중 속에 광범히 묻혀 있던 기술 조건들이 광범히 동원된 데 특징이 있다.

이것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고 국가 자금의 더욱 많은 부분을 중공업 부문의 건설에 돌리면서도 다른 부문들의 급속한 생산 장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크게 촉진시키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지방 산업 창설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그것은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공업을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며 전반적 경제 발전의 템포를 크게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물론 이상과 같이 지방 중 소 기업을 광범히 발전시켜 인민 경제의 새로운 거대한 예비를 동원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해서는 선진 기술에 기초한 대규모 기업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농촌 경리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의 예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 산업을 광범히 창설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은 생산 장성과 인민 생활 향상의 높은 템포가 달성되고 있는 오늘의 산 현실 속에서 훌륭히 구현되고 있다.

현 시기 경제 발전의 급속한 템포를 보장하기 위한 예비 탐구에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우리 당에 의한 로력 예비의 탐구이다.

일반적으로 생산 로력의 보충은 인구의 증가, 농촌 기계화에 따르는 농촌 로력의 도시 공업으로의 이동, 비생산 로력의 생산 부면에의 진출, 그리고 녀성 로력들의 광범한 사회 진출 등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농촌 기계화에 기초한 농촌 로력의 여유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당은 비생산 로력을 대담히 축소하며 녀성 로력을 결정적으로 사회에 진출시켜 생산 로력을 확장하는 문제에 특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오늘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여기서도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편 비생산 부문 일'군들도 광범히 생산 작업에 참가하여 사회적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큰 작용을 미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2월 전원 회의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 경제 내부와 지방에 잠재하고 있던 방대한 예비들이 계속 탐구 동원되고 있는 것은 생산 발전의 비약적 템포를 보장하고 경제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변을 일으킨 중요 조건으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4

오늘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서는 생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근로자들 간의 협조와 호상 방조가 더욱 강화되도록 조건 짓고 있으며 생산 장성의 비약적 템포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과도기에 있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관한 문제는 우선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되는 비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 혁명적으로 교체함을 요구하는 한편 이미 성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생산력의 계속되는 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그를 부단히 적응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달성된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 부단히 장성하는 생산력의 성격에 생산 관계를 보다 훌륭히 적응시키는 문제가 중심적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청산 문제가 직접적 과업으로 되던 때와는 달리 생산 관계의 어느 측면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생산력 장성의 가장 신속한 속도를 보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여하히 유일한 공산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문제는 이렇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당은 생산력의 성격에 대한 생산 관계의 적응 법칙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이 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타산하여 모든 낡은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 혁명적으로 교체하는 력사적 위업을 단시일내에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온 우리 당은 오늘 생산력 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구체적 측면들을 보다 원만히 적응시켜 가는 데 있어서도 이미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생산의 장성에 따라 기업소에서의 사회주의적 협업의 형태들에서 부단한 변화가 있었으며 농업 협동 조합의 규모를 생산력 발전 수준에 적응시키도록 중요한 관심이 돌려져 왔다.

류통면에 있어서 농촌 소비 협동 조합 기구의 개편, 소비 협동 조합 상점과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농업 협동 조합에의 이관,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발전에 따르는 농민 은행의 국가 농업 은행에로의 개편, 농산물 수매 체계의 변경을 통한 도시 농촌간 련계의 합리화 등 중요 조치들이 취하여졌으며 또한 현재 농업 협동 조합들에 대한 농기계 등 생산 수단의 판매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최근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농업 협동 조합의 통합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 혁명이 급격히 추진되고 농업 생산에서 일대 비약이 이룩되고 있는 현 시기에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관개 체계 확립을 비롯하여 기술 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업은 앞으로 수년내에 수천수만 대의 선진 농기계, 자동차를 농촌에 보낼 수 있게 되였다. 농업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인 농민들의 상태에 있어서도 생산 조직, 기술의 장성, 사상 의식 등 모든 부면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적응하며 또 이러한 생산력을 일층 신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합의 규모를 확장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였다.

이러한 조합의 통합 확장은 농촌 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및 기계화를 완성함에 있어서 거대하고 적극적인 작용을 놀 것이며 토지 리용률 제고, 로력의 합리적 조직 그리고 농촌 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농업 기술 혁명과 농업 생산 장성의 보다 급속한 속

도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도시 생산 협동 조합에서의 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점차 전변시키는 문제도 연구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현 시기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기에 있어서 버러지고 있는 커다란 전변의 한 부분이며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호상 관계에 관한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우리 당이 생산 관계의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현 시기 가장 특징적인 높은 생산 장성 템포에 직접 간접으로 중요한 작용을 놀고 있다.

❊ ❊

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 결정과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에 무한히 고무된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고조를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궐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제시하신 인민 경제 발전에 관한 강령적 과업——선철, 립철 400만 톤, 강철 300—350만 톤, 전력 200억 키로와트시, 석탄 2,500만 톤, 화학 비료 150—200만 톤, 세멘트 500만 톤, 직물 5억 메터, 사탕 10만 톤, 수산물 100만 톤, 알곡 700만 톤은 우리가 수년내에 달성하여야 할 당면 기본 목표로 되고 있다.

이 강령적 과업의 실현은 우리 나라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로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이상에서 제시된 목표가 달성될 때에는 인구 1인당 생산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들의 그것을 따라 잡게 된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계속 더욱 빠른 템포로 전진해야 한다. 우리의 승리는 이 전진의 높은 템포에 달려 있다. 수년간 결의를 굳게 다지고 악전 고투하면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을 놀라게 할 위대한 전변이 일어날 것이다.

당의 령도에 고무되여 궐기한 대중의 혁명적 앙양을 계속 발전시키고 이 앙양된 기세를 옳게 조직 동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이 위업은 달성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약진을 가로 막는 일체 낡은 것과 투쟁하며 소극 분자, 보수주의자들과의 사상 투쟁을 견결히 진행하여야 한다. 선진 기술을 대담히 도입하며 대중의 모든 가치 있는 창안과 발기를 적극 지지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수배로 높이고 새로운 기준량을 창조하면서 높은 템포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가까운 장래에 공산주의를 바라보면서 약진하는 오늘의 현실은 물질적 토대의 변천에 상응하게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킬 것을 요구한다.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투사로 되게 하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을 확고히 고수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사업 방법, 사고 방식, 생활 양식 등에서 고상한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의 소유자로 되게 하는 것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보다 급속한 템포를 달성하는 데 강력한 반작용을 줄 것이다.

당이 제시한 위대한 과업이 해결될 때 우리는 수천년래의 락후성을 완전히 털어 버리고 선진 공업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서게 될 것이다.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긴절한 요구

김 윤 택

최근에 있은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를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심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회의는 1961년에 이르러 육류는 40만 톤, 우유는 46만 톤, 계란은 15억 개, 양모는 700톤 이상으로 각각 그 생산을 제고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2—3년이란 짧은 기간내에 육류는 6배 이상, 우유는 16배 이상으로 그 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킬 데 대한 이 거대한 과업의 실행은 결코 평범한 의의를 가지는 일이 아니다. 이 과업이 해결될 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 1인당 40키로그람의 육류와 46키로그람의 우유, 150개의 계란이 차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에서의 일대 비약, 우리 인민의 실생활에서의 일대 전변이 일어나게 될 그날이 목전에 다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금번 대책은 가까운 장래에 농촌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 우리 당이 최근 시기 계속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적 과업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한 고리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달성된 조건하에서 전면적으로 생산의 급속한 앙양이 이룩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는 금년에 알곡 370만 톤이란 류례 없이 높은 수확을 달성하였다. 농촌 경리에서 일대 고조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 당은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이 있는 조건하에서 수년내에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완성하고 700만 톤 또는 그 이상의 알곡 생산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월 전원 회의에서 산비탈을 제외한 모든 발과 논에 전면적으로 관개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과업을 2—3년 내에 완성할 것을 제기한 당은 또한 가까운 년간에 기계화를 완성하고 1—2년 내에 전체 농촌에 전기를 도입할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이 목표는 지금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 발전의 변증법적 호상 관계에 관한 심오한 인식에 토대하여 생산 관계를 생산력 발전 수준에 의식적으로 적응시키고 있는 우리 당은 최근 농업 협동 조합들의 규모를 확대하는 통합 사업을 성과적으로 조직 지도하였다. 이는 상술한 농업 기술 혁명 수행의 급속한 추진을 튼튼히 보장하며 농업 생산의 보다 급속한 장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기술 혁명을 수반한 농업 생산의 혁명적 비약과 이에 상응하는 생산 관계의 변화——바로 이것이 현 시기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을 특징 짓고 있다.

현 시기 우리 당이 계속 취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시책들이 가지는 의의는 바로 그것이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우리 농촌에 닦아 놓게 하는 데 있으며 우리 농촌으로 하여금 일은 헐하고 흥겨우며 생산물을 풍족하게 내여 농산물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그러한 농촌으로 전환시킨다는 데 있다.

금번 우리 당이 제기한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촉진시키고 있는 우리 당 정책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제기된 것이며 알곡 문제가 이미 해결되였으며 주택 문제와 입는 문제도 해결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앞으로 더 많은 육류, 우유, 계란, 빠다를 공급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 올리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획기적 대책이다.

축산업의 발전은 육류,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에 대한 인민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경제 전반의 앙양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축산업은 농산업으로부터 사료를 받는 반면에 농산업에 질 좋은 자급 비료를 공급한다. 이리하여 축산업은 농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농산업은 축산업의 발전을 보장한다.

축산업은 육류 제품, 우유 제품 등의 다종 다양한 식료품과 각종 모직물, 피혁 제품의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경공업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업 협동 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수익을 높여 준다. 즉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공동 가축의 급격한 장성은 조합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개인 부업 축산은 농민들의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축산업의 발전은 경공업에 더 많은 원료와 도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도시로부터는 더 많은 공업 제품을 공급 받도록 함으로써 도시 농촌간의 련계 강화와 로농 동맹의 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축산업의 발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의 현 상태는 어떠한가?

농산업과 함께 축산업을 농촌 경리의 기본 부문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의 발전에 일관하여 깊은 주목을 돌려 온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지도에 의하여 지난 시기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에서는 일정한 성과들이 달성되였으며 축산업은 전쟁전 수준을 훨씬 릉가하였다. 중요 가축 두수의 증가 정형만 보더라도 1949년에 비하여 돼지는 2.3배, 젖소는 4.3배, 양은 8배로 각각 증대하였다.

그러나 축산업의 현 상태와 그의 발전 템포는 심히 락후하고 지지하며 그것은 아직 축산물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기에 와서 축산물 공급의 부족은 더욱 긴절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육류,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구매력이 급진적으로 장성된 데 있다.

전후 시기 당과 정부가 실시한 수차에 걸친 물가 인하와 임금 인상의 결과 근로자들의 생활은 급속히 향상되고 그들의 수요는 몇 배나 장성하였다.

생활이 윤택하여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수요 구조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그들은 보다 영양가가 높고 맛 있는 육류, 우유, 빠다 등 고급 식료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장성하는 수요에 비추어 볼 때 축산물의 생산 수준은 아주 락후한 형편에 있다. 이리하여 인민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인민 생활의 급진적 향상은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 문제를 아주 긴절하게 제기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축산물 생산과 그 수요간에 내재하는 문제를 급속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에 착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과업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 ❋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은 명백하다.

당은 《국영 농목장들의 축산업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소, 돼지, 양, 벌 등의 공동 축산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시킬 것이며 이에 조합원들의 부업 축산으로 비육돈과 가금 등 적은 가축을 동시에 결합하여 발전시킬 것》(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결정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당이 공동 축산업을 축산업 발전에서 기본 토대로 보는 것은 그것 없이는 가축 두수의 계획적 장성 문제와 높은 생산성, 축산물 생산에서의 원가 저하와 계획적인 수요 충족 등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온갖 가능성을 동원 리용하기 위하여 개인 부업 축산을 이에 결합하여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당은 또한 축산물 생산에서 육류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우유, 계란, 양모, 피혁 등을 이에 배합시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육류 생산에서는 기본을 돼지고기 생산에 두고 우유 생산을 위해서는 조선소에서 젖을 짜는 한편 그를 젖소로 개량하는 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토지가 제한되여 있고 방목지가 적은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소집단 사육과 분산 사육 방법을 옳게 적용하고 매 지역에서 그의 자연 지리적 조건에 적응하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알곡 생산 비중이 크고 농업에 기계화가 많이 도입될 평지대에서는 돼지 사육을 위주로 하고 조선소를 점차 젖소로 전환시켜 우유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하며 산간 지대에서는 목축업을 더욱 중요한 부문으로 규정하고 돼지, 면양 등을 다량 사육하는 한편 젖소와 역축의 두수를 점차 증대시키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지대를 막론하고 가금을 대대적으로 사육하여 란류와 육류의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금후 국영 농목장들은 그 경리의 기본을 축산업에 두고 도시, 로동자 지구 주민들의 축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한편 우량한 종축을 농업 협동 조합들에 공급하는 사업을 담당 수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상술한 바와 같은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당이 이 부문 앞에 제기한 강령적 과업을 능히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보장되여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에 필요한 제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알곡의 증산은 축산업 발전의 결정적 조건인바 협동화가 완성되고 바야흐로 기술 혁명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농촌은 알곡 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키고 있다.

당은 또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영 농목장들과 도영 종축장들을 창설 발전시켜 수 많은 우량 종축들을 농업 협동 조합에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 올렸다.

우리에게는 축산 부문에서 로력을 많이 요구하는 공정을 기계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축산 기계들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계 공업이 있으며 축산 부문의 기술 인재도 일정하게 준비되여 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적인 협동 조합들로 통합된 농촌은 축산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들과 각 지방의 자연 조건들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축산업 발전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강유력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에게는 다만 현존하는 예비와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따름이다.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은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부문 일'군들이 온갖 소극성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당의 축산업 발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지혜를 바치여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이다.

지난 시기 일부 당 단체들과 농촌 경리 지도 일'군들은 변천된 농촌의 새 환경과 축산업 발전에 유리하게 조성된 현실적 가능성들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농촌 경리라면 알곡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런 낡은 지도 방법을 답습하면서 공동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 정책 관철에 집중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례하면 일부 도들에서는 무축 농가를 퇴치할 데 대한 당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를 《다축 농가 운동》으로 대체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부업 축산에만 열중시킨 결과 공동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기타 부문의 발전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 부문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에 대한 형식적 태도를 근절하고 우리 당의 의도를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는 한편 종축과 종금을 더 많이 확보하며 축산 시설과 사료 대책을 면밀히 강구하는 등으로 공동 축산을 시급히 당적 요구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소, 돼지, 양, 벌 등의 공동 축산을 발전시키면서 우선 1959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말 이내로 매 조합에서 공동 가축으로서 조합원 농가 100호당 종자 암돼지는 30두 이상, 암탉과 암오리는 50수 이상, 젖소는 5두씩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매 조합원 농가들에서 매년 2—3두의 비육돈, 10수 이상의 암탉과 암오리를 사육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류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위하여서는 다른 가축에 비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짧은 기간내에 고기를 얻을 수 있고 다량의 구비를 보장하여 주는 돼지의 사육에 중점을 두면서 이와 함께 소, 닭, 오리, 토끼 등을 적극 사육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양돈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게 보장되여 있다. 알곡 생산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그의 부산물을 광범히 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관개 체계의 확립에 따라 맥류 후작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배합 쎌로쓰를 다량 생산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

이 배합 쎌로쓰는 돼지 사료로서 으뜸가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수 많은 선진적 국영 농목장들과 협동 조합들의 경험을 통하여 확증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축산 기술 일'군들이 아직도 알곡이 없이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다고 낡은 사육 방법을 고집하면서 선진 사육 방법의 도입을 저애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당 단체들과 농촌 경리 지도 일'군들은 전체 조합원들 속에서 맥류 후작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배합 쎌로쓰가 가지는 중요성을 철저히 침투시키는 한편 일부 남아 있는 소극성과 기술 신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유 생산을 부단히 증대시킴에 있어서는 수입 젖소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시정하고 조선소에서 젖을 짜며 그를 젖소로 개량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조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축산 시험장들과 선진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경험은 첫 해에 벌써 조선소에서 1두당 1—2톤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그의 지방 함유량도 순수 젖소에 비하여 2배 이상인 5—7%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우유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는 동시에 축산업 발전에서의 일대 변혁으로 된다.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공고한 사료 기지의 조성 사업을 선행시킴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과거의 낡은 사양 관리 방법인 알곡 사료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극복하고 질 좋은 각종 쎌로쓰를 대량 생산 공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쎌로쓰에 의한 가축 사양——이것이 사료 문제 해결에서

의 기본 고리이다. 우리는 이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고 주작 옥수수의 질과 후작 옥수수의 이삭과 짚을 최대한으로 씰로쓰로 리용하여야 하며 산간 지대를 유용한 사료지로 전환시키는 사업들을 혁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더우기 금년 겨울에 막대한 량의 종축이 확보됨과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료를 정확히 타산하고 그를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1959년도 사료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일체 종자들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축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매우 절실하게 제기된다. 가축 사양에 대한 낡은 기술, 수공업적 방법은 우리에게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줄 수 없으며 축산업의 대대적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가축들의 생산성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하여 품종 개량 사업을 적극 촉진시켜야 하며 특히 선진 사양 기술인 면양의 2년 3산과 돼지의 강제 비육, 가금의 인공 부화 및 소, 돼지, 면양의 인공 수정 방법 등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는 한편 혁신자들이 거두고 있는 고귀한 경험들을 적극 일반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켜 축산물의 생산 원가를 저하시키는 한편 수의 위생 방역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씰로쓰 절단기, 만능 분쇄기, 인공 착유기 등을 광범히 리용하고 사료 조리 및 운반 작업을 기계화하여 적은 로력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이 제시한 수의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어 돈페스트를 비롯한 일체 가축 전염병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육류,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또한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와 로동자 지구 주민들에 대한 축산물 공급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변의 국영 농목장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시기별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고 생산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며 수매 사업에서의 일체 결함을 퇴치함으로써 축산물 생산을 더욱 자극하고 당의 축산업 발전 정책을 관철시키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물론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대담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당 정책을 견결히 관철시킨다면 이 난관들은 능히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의 과업은 성과 있게 수행될 수 있다.

당 단체들과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은 현 시기 축산업 발전이 가지는 의의를 광범한 대중 속에 철저히 침투시키고 그 수행 방도를 제시하고 옳은 지도를 보장함으로써 축산업 부문에서도 우리 당의 정책이 빛나게 승리하도록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들 속에서의 집단주의 교양

평남도 숙천군 당 위원회
위원장 김 봉 섭

최근 년간에 우리 숙천군에서는 농업 생산력 발전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즉 1957년에는 군적으로 6만 5천 여 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는데 1958년에는 7만 7천 톤의 알곡을 생산하게 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금년도 실적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결의를 다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협동화 정책에 의하여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가 사회주의적으로 개변됨과 함께 농민들의 사상 의식에서도 거대한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내 농민들은 평남 관개 공사에 동원되여 짧은 기간에 방대한 토량 공사를 완공하여 군내 논 면적을 수리화했으며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답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의 지시에 충실하게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면서 랭상모를 대대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랭상모를 처음으로 넓은 면적에 도입하던 작년에는 일부 농산 과학자들도 불가능하다고 고집하던 1,300 여 정보의 간석지에까지 랭상모를 도입하여 기술의 신비성을 완전히 마사버렸으며 금년에는 전 논 면적의 78%에 랭상모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 소농 경리가 집단적 협동 경리로 교체된 결과 군내 농민들의 머리 속에 국가와 조합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는 집단주의 사상이 크게 장성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는 항상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이 완성된 1957년도까지만 하여도 일부 농민들의 머리 속에는 집단주의 사상에 배치되는 자본주의 사상 잔재가 남아 있어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적지 않은 저애를 주고 있었으며 이것은 현재도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집단 생활에 가장 큰 장애로 된 것은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이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었다.

① 조합 생활에서 일부 농민들이 조합의 리익보다는 개인의 리익을 높이 내세우는 데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어떤 농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로력일을 더 많이 취득하려고 작업의 질보다도 량에 치우치며, 또 어떤 농민들은 생활이 유족해졌으니 애써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공동 작업에 즐겨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부 농민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여 조합의 공동 재산을 함부로 다루어 조합에 적지 않은 손실을 주고 있었다.

② 작업반 호상간, 조합 호상간의 관계에서도 일부 작업반, 일부 조합들이 자기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일부 작업반들에서는 로력과 생산 도구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작업반을 협조하지 않으며 또 일부 조합들에서는 관개 용수 리용 등에서 타 조합의 생산 조건에는 아랑곳 없이 자기 욕심만 부리여 결국 조합과 군적 알곡 생산고 제고에 지장을 주었었다.

③ 일부 농민들의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은 국가에 대한 태도에서도 발로되고 있었다. 즉 일부 농민들에게는 국가에는 비싸게 팔고, 국가로부터는 싸게 사려는 리기적인 경

향이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부 농민들에게는 개인의 안면 관계에 구애되여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를 약화시키려는 제 행동에 대하여서까지 침묵을 지키는 비계급적 현상이 없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제 현상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자본주의 사상 잔재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 커다란 장애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제 현상들을 묵인하며 그와 투쟁하지 않는다면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화할 수도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황해남도 농업 협동 조합 열성자 회의에서 진술한 연설에서 《경리 형태가 개조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주의 의식으로 개조되여야만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숙천군 당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우선 농민들 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사상 투쟁과 함께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자기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인정하였다.

＊ ＊

사회주의 제도에 근로자들의 집단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와는 정 반대되는 사상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의 우에 올려 세우는 데 반하여 집단주의는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킨다.

일찌기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각자는 자기를 위하여, 하느님만이 모두를 위하여>라는 저주로운 법칙을 몰아내기 위하여… 사업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여>라는…법칙을 대중의 의식 속에 주입하며 대중의 관습과 일상 생활에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할 것이다》(레닌 전집, 로문, 제 4판, 제 31권, 103페지).

숙천군 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력하여 농민들을 조합과 사회 전체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집단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첫째, 군 당 위원회는 우선 각종 회의, 학습회, 구두 선전 사업 등을 통하여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의 해독성을 농민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킴과 함께 사상 투쟁의 방법을 통하여 농민들의 사상을 각성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작년도에 군 당 위원회는 광천리 광천 농업 협동 조합을 비롯한 몇개 리내 농업 협동 조합들을 집중 지도하고 그에서 얻은 교훈에 기초하여 농민들 속에서의 집단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 제시하였다. 이것은 초급 당 단체들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을 반대하여 농민 대중을 궐기시키는 직접적인 계기로 되였다.

례를 광천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당 단체에서 들 수 있다.

이 조합에서는 모내기 시기에 411.3 정보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평당 120 본의 모를 옮길 대신에 96본 밖에 옮기지 않아 결국 7,500 가마니의 벼 생산고를 감소시키게 되였다. 이것은 적지 않은 농민들이 제가끔 더 많은 로력일을 취득하려고 평당 본수를 줄이면서까지 이앙 면적을 확대하는 데만 몰두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 당 단체는, 특별 학습회, 토론회들을 광범히 진행하면서 농민들에게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은 조합의 공동 경리 발전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농민들 자신에게도 큰 손실을 가져 온다는 진리를 철저히 해석하였다. 그와 함께 당 회의, 작업반 회의들을 통하여 완강한 사상 투쟁을 진행하면서 농민들의 사상을 각성시키기에 노력하였다. 그러한 결과 절대다수 농민들은 《개인농 시기에는 내 것이면 제일이였더니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군, 보아하니 조합이 부유해져야 농민도 잘 살 수 있군》하면서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의 제 표현들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업은 신풍리를 비롯한 기타 리 당 단체들에서도 광범히 조직 전개되였다.

그 중에서도 신풍리 당 단체에서는 조합원들 속에서 발현되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경향들을 구두 선전 사업과 직관물을 통하여 수시로 폭로하면서 그를 반대하는 군중적 투쟁을 조직 전개했으며 한편으로는 개인 리기주의가 심한 농민들에게 《조합의 공동 재산을 애호하자》, 《낡은 사상 잔재란 어떻게 표현되며 그를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등의 서적들을 알선해 주어 읽게 한 후 그의 독후감을 소개하는 좌담회들을 조직하군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농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그릇된 사상 관점을 깨닫고 고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였다.

그 밖에도 다수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검사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시켜 작업 진행 정형을 수시로 감독 통제하게 함으로써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의 제 표현들을 제때에 적발 폭로하게 하였으며 조합 재산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타협 없이 그를 보상시키는 제도를 강화케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농민들의 사상을 더욱 각성시키는 직접적인 계기로 되였다.

군 당 위원회는 리 당 단체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경험적인 사실들을 종합 연구하였으며 가치 있는 사업들을 수시로 일반화시키면서 농민들 속에서의 집단주의 교양 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둘째, 군 당 위원회는 당 기관 일'군들을 우선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농촌의 핵심 진지를 공고화하는 데 주요한 관심을 돌렸다.

군 당 위원회가 홍오리 당 단체를 집중 지도한 경험은 바로 당 일'군과 핵심 당원들이 집단의 리익을 옹호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고서는 농민들 속에서의 집단주의 교양 사업을 성과 있게 조직 전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홍오리 당 위원장이였던 김 순덕 동무를 비롯한 일부 《핵심》들에게는 개인주의 사상이 적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의 제 표현들을 보고도 그와 융화 묵과하였으며 리내에 불건전한 생활 습성을 전파하고 있었다. 그러한 결과 조합의 공동 경리는 심히 락후한 형편에 처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 위원회는 이러한 산 교훈에 기초하여 우선 당 기관 일'군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계급적 관점이 튼튼한 애국 렬사 유가족, 후방 가족, 제대 군인들로써 농촌의 핵심 진지를 공고화하는 사업(물론 이 사업은 그전부터 진행되여 왔다)과 우선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핵심 당원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강습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당 기관 일'군들이 점차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되고 핵심 당원들의 사상 의식이 사회주의적으로 개변되게 되자 농민들 속에서의 집단주의 교양 사업은 더욱 활기 있게 전개되게 되였으며 조합의 공동 리익을 옹호하여 적극 투쟁하게 되였다.

례를 들어 연풍 농업 협동 조합 초급 당 단체의 제 11 당 분조장 서 병학 동무는 일상적으로 반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작업 정형을 자기 일과 같이 보살피였다. 모내기 때 일부 반원들이 일을 서두르면서 한 포기에 2—3본씩을 마구 꽂아 나가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기필코 수확을 감소시킴에 틀림 없었다. 그는 곧 반원들을 설복시켜 그런 경향을 시정시킨 후 이 사실을 초급 당 단체에 반영하였다. 전반적 작업 과정을 료해한 결과 이런 경향은 일반성을 띤 현상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 당 단체는 곧 당 분조 회의들을 통하여 그런 경향과 완강한 사상 투쟁을 조직 전개케 했으며 마침내 그런 현상을 근절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조합내 핵심 당원들이 그 열

마나 높은 각성을 가지고 조합의 공동 리익을 고수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세째, 군 당 위원회는 농민들 속에서 싹트고 있는 새로운 모범——공산주의적 로동의 맹아들을 지지 일반화시킴으로써 농민들을 공산주의적 협업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노력하였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교양 사업의 결과 최근 군내에서는 공산주의적 로동의 맹아 형태들이 적지 않게 발현되기 시작하였다.

례를 들어 평남 관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장흥리내의 농민들은 그 공사가 자기 조합과는 직접적인 리해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그 공사에 동원되여 일찌기 찾아볼 수 없었던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내였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장흥리와 쌍운리에서 큰 규모의 저수지 공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군내 민청원들이 리 별로 궐기 대회를 열고 그 공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얼마 전에는 명년 3월까지 예견하였던 그 공사를 금년 결빙기 전으로 완공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군 당 위원회는 대중 속에서 싹트고 있는 이러한 모범, 공산주의 로동의 맹아들을 적극 지지 장려하며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국가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자각적,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산주의적 품성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군 당 위원회는 우선 장흥리 저수지 공사장에서 보내온 결의문을 가지고 전원 회의 참가자들을 교양했으며 회의가 끝난 후 모든 회의 참가자들(모두가 군내 지도 일'군들이였다)로 하여금 장흥과 쌍운 저수지 공사를 직접 로력적으로 협조하게 하였다. 한편 녀맹 단체들 속에서도 이런 정치 사업을 전개하여 녀맹원들도 저수지 공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공사장에 동원된 농민들의 사기를 고무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도 일'군들과 농민들로 하여금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정확히 인식케 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발로된 바와 같은 조합 본위주의, 작업반 본위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모든 농민들이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네째, 군 당 위원회는 농민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교양함과 함께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가일층 제고시킴으로써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철옹성 같이 보위 옹호하도록 교양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이러한 사업은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우리 군에서 특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군 당 위원회가 창동리, 칠리 등 해안선에 위치하고 있는 몇개 리내의 사업 정형을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곳 일부 농민들은 친척 관계, 안면 관계 등 낡은 사상에 구애되여 응당 적발 폭로하여야 할 반혁명 분자도 감싸주는 일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농민들이 자기 자신의 그러한 행동이 곧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를 약화시키며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계급적 리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옳게 리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 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최종적 승리의 필연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벌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전체 농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계급적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혁명적 전취물들을 견결히 고수하도록 교양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즉 초급 당 단체들에서 광범히 진행된 특별 학습회들에서는 《과거 지주는 농민을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과도기에 있어서의 계급 투쟁》,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우리 사업에 어떤 해독을 주었는가?》, 《반혁명 분자와의 투쟁을 강화하자》 등등의 제목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농민들과 청년 학생들 속에서 진행한 좌담회에는 과거의 고용 농민, 소작 농민들을 출연시켜 지주들의 착취자적 본질을 폭로케 하였으며 또한 남반부 출신인 제대 군인들도 출연시켜 남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 형편과 리 승만 도당의 반인민적 정체를 폭로케 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에서는 같은 문벌내에서도 역시 지주는 지주로서 빈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주 일반에 대한 농민 대중의 증오심을 격발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광범히 조직 전개되였다.

일련의 정치 사업과 사상 투쟁을 통하여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은 가일층 제고되였다. 그들은 계급적 리익을 위하여 농민 호상간에 굳게 단결하게 되였으며 친척 관계, 안면 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대렬에 잠입한 일체의 반혁명 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적발 폭로하게 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의 리익, 사회 전체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들과 더욱 견결히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가일층의 촉진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게 되였다. 이것은 절대 다수 농민들이 국가의 리익, 사회 전체의 리익이 곧 자기 자신의 리익으로 된다는 원칙을 옳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

우리 사회의 전진 운동은 새 것과 낡은 것,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등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사상 투쟁 행정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당이 농민들 속에서 조직 전개한 열련의 정치 사업은 농민 대중으로 하여금 일체 낡은 것, 보수적인 것, 개인 리기적인 것들을 용감히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케 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토의 행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군내 전체 당원들과 농민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는 일체의 보수주의와 소극성들을 용감하게 격파하면서 명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것을 결의하여 나섰다.

지금 군내 농민들은 자기들이 결의한 이 투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농촌 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명년도의 영농 준비 사업에서 류례 없는 로력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한 가지 실례를 소개한다면 례년같으면 추수 작업만도 2—3개월이 걸리는 것이 례사였다. 벼가을 기준량은 한 사람이 하루에 300—400평이 최고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모든 리, 모든 조합에서 최고 1,500평까지의 실적을 올리면서 불과 10일 동안에 추수 작업을 끝내였다. 그리고는 곧 발 관개 체계 확립을 위한 관개 공사에 동원되여 25만 립방메터에 달하는 토량 공사를 지난 10월 20일까지에 완공하였으며 현재는 정당 300톤 이상을 시비할 자급 비료 생산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군내 농촌 경리 분야에서는 일대 혁명적 고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이 가일층 제고되였으며 집단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됨으로써 당 정책을 옹호 관철하려는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결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결코 모든 농민들의 사상 의식이 완전히 사회주의적으로 개변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일부 농민들의 사상 의식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상응되지 못하고 있다.

숙천군 당 위원회는 전국 시, 군 당 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정신에 립각하여 전체 농민들을 어느 때, 어떤 조건하에서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는 그런 붉은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의 우월성

평안북도 전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로력 영웅 로 영 세
당 위원장 장 일 경

농업 협동 조합들을 리 단위로 통합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의하여 우리 나라 각지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산된 소규모의 농업 협동 조합들을 규모가 큰 농업 협동 조합들로 통합하는 사업이 조합원들의 앙양된 혁명적 열성 속에서 성과 있게 완료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농업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며 농촌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획기적 대책으로 된다.

우리 전진 농업 협동 조합은 이미 오래 전에 한 개 리내의 분산된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들을 통합하여 경험적으로 조직 운영하기 시작한 규모가 큰 농업 협동 조합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 조합은 평북도 룡천군 신서리, 즉 압록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황초평》이란 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섬이 대대적으로 개간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인 1947년부터이며 섬에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정전 직후에 소집되였던 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가 있은 후부터였다. 1953년 말, 4호의 빈농민들로써 신서리 제1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된 데 뒤이어 1954년 2월에는 자연 부락 단위로 제1, 제2, 제3, …제7 농업 협동 조합들이 조직되였으며 이에는 전체 농가 호수의 25%인 125호가 망라되였다. 그리고 1955년에는 리내의 전체 농가 호수인 530 여 호가 100%로 농업 협동 조합들에 망라되였다.

그리하여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은 그의 첫해부터 자기의 우월성을 시위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에 농업 협동 조합들은 개인농 시기보다 478톤이 더 많은 3,290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은 자연 부락을 단위로 하는 분산적이며 소규모적인 조합들이였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며 조합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토지와 로력 및 자연 경제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곡 생산고를 제고시키며 각종 다각 경리를 발전시키며 리내 조합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고 농업 협동 조합을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촌 경리 발전에 적응하게끔 소규모의 농업 협동 조합들을 대규모의 농업 협동 조합으로 통합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었다. 특히 2년간에 걸친 협동 경리 생활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에 대한 각오 정도가 제고되였으며 관리 간부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이 높아진 조건하에서 그것은 더욱 절박한 요구로 되였었다.

그리하여 우리 리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 밑에 1956년 2월 27일에 7개의 농업 협동 조합들이 통합하여 규모가 큰 《전진 농업 협동 조합》으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금년 9월 말 현재로 우리 조합은 18개의 농산 작업반과 6개의 건설 및 부업 작업반에 총 농가 호수 653호, 인구 3,259명, 로력자 1,409명을 포괄하고 있으며 논 8,444반보, 밭 600반보, 역우 82두, 덕글 150두, 포도나무 1천 본, 복숭아 및 추리나무 6백 본, 배나무 3백 본, 뽕나무 2만 9천 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미 공장, 제분 공장, 농기구 수리 공장, 제승 공장, 기와 공장 및 18개의 작은 규모의 화학 비료 공장들과 화물 자동차 1대, 기관선(30마력) 1척을 포함한 어선 및 운반선 17척 및 기타 수 많은 농기구들을 가지고 있다. 문화 시설로서는 전체 농가에 전등과 유선 방송기를 가설했으며 영화관, 유선 방송실, 무선 전화 시설, 16학급의 초급 중학교, 진료소 및 유치원, 탁아소들을 가지고 있다.

지난 3년 간에 걸친 우리 조합의 운영 경험은 리 단위로 통합된 규모가 큰 농업 협동 조합이 분산된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다.

1

규모가 큰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하고 통합된 토지와 로력 및 자연 경제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한 결과 우리 조합에서는 종전의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사업들, 농업 생산력을 가일층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를 거의 완성하게 되였으며 조합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가 초보적으로 얻은 경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리'적인 범위에서 원대한 전망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로력과 자연 경제 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각종 다각 경리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분산된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 당시에 우리는 리'적으로 1,980반보의 산성화된 토지와 300 여 정보의 미관개 면적(자연 류입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진 영농법을 통일적으로 도입하지 못하여 리'적으로 벼 정당 평균 4톤 228키로그람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조합 호상간의 리해 관계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지 못하였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산, 양잠, 축산, 담수 양어, 과수 등 다각 경리를 발전시킬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들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그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성은 리내의 조합들이 규모가 큰 농업 협동 조합으로 통합된 조건하에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즉 통합된 로력을 집중적으로 투하하여 우선 전 논 면적에 대한 관개 체계를 확립하고 매 필지별 생산 계획과 그에 적응한 시비 체계 및 선진 경종법을 확립하였으며 랭상모를 전 논 면적에 도입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조합적으로 퇴비를 집중 시비하며 동기간에는 답면 저수를 하고 객토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그의 지질을 개량시켰다. 그러한 결과 금년도에는 전 논 면적에서 벼 정당 평균 약 6톤(산성화되였던 논에서도 정당 평균 5톤 이상)을 생산함으로써 통합되기 전에 리내의 총 알곡 생산고가 3,290톤이였던 것이 일약 5,000톤 이상의 수준으로 증대되게 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조합이 통합된 조건하에서 자연 경제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각종 다각 경리를 발전시키는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례를 들어 수산업에 있어서는 증대된 공동 축적금으로 숫한 어선과 어구들을 구입하였으며 기능자들을 집결하여 금년에는 250 여 톤의 물'고기를 잡게 되였다. 양잠업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년 6회에 걸쳐 60매의 누에를 쳐서 매당 평균 41.283키로그람, 최고 50.03키로그람이란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타 축산, 담수 양어, 과수업 등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둘째, 조합내의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배치 리용하며 농업 로동을 적극 기계화하며 생산을 전문화시킴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종전에 작은 규모의 농업 협동 조합들이 조직 운영되던 당시에는 포전들이 서로 교차되여 있었기 때문에 숫한 로력을 랑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 로동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할 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기능에 적합하게끔 농업 로동을 전문화시키지 못하였으며 문화 후생 시설들을 설치하지 못하여 숫한 로력, 특히 녀성 로력들을 적지 않게 사장시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벼 농사 하나만을 지으면서도 항상 로력이 부족하여 쩔쩔 매군 하였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의 이러한 제한성은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의 조건하에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즉 우리 조합에서는 7개의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들을 통합한 결과 관리 간부만 하여도 20 여 명이 축소되였으며 작은 자연 부락을 단위로 18개의 농산 작업반을 조직하고 부락 부근의 포전들을 담당시킴으로써 종전처럼 먼 거리를 왕복하던 숫한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포전을 정리하여 기경은 80%, 써레는 20%, 탈곡은 5%를 또락또르로 진행하며 그 밖에 축력 제초기 66대, 동력 탈곡기 21대, 발동기 탈곡기 7대, 사료 절단기 18대 등등을 농업 로동에 도입하여 기계화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여기에서만도 도합 수만 공수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농산 작업반과 건설 및 부업 작업반들을 조직하고 생산을 전문화시킴으로써 기능자들과 년로한 조합원 및 부대 로력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게 하였으며 또한 계절적 공동 식당(금년 가을부터는 년중 공동 식당을 운영한다)과 세탁소, 재봉소, 유치원 및 탁아소들을 광범히 운영하여 녀성 로력을 더 많이 해방시키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현재 200 여 명의 로력을 건설 및 부업 작업반들과 각 공장들에 배치하고도 농업 로동의 질을 제고하여 년년이 벼 정당 수확고를 제고시키게 되였다.

세째, 규모가 큰 농업 협동 조합으로 통합된 결과 단합된 대집단의 힘으로 대규모의 자연 개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수리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

우리 리에는 소류강 류역에 35정보의 황무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도합 420마력의 능력을 가진 9개의 발동기 양수장이 전체 논 면적의 65% 밖에 관수를 하지 못하여 벼 생산고 제고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되기 전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 당시에는 이런 자연 개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여도 조합들 호상간에 리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또 로력이 부족했던 탓으로 그것을 도저히 실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합이 통합된 후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고 조합원들의 각성을 제고시킨 결과 단시일내에 오래 전부터의 숙망을 달성할 수 있었다. 즉 통합된 바로 그 해인 1956년에는 1만 4천 여 공수의 로력을 투하하여 소류강 기슭에 길이 4키로메터, 높이 3메터의 새 제방을 쌓고 35정보의 황무지를 개간하였으며 그 해 가을부터 다음해에 걸쳐서는 섬에 전기가 가설된 조건하에서 2만 여 공수의 로력을 투하하여 9개의 발동기 양수장을 도합 800마력의 능력을 가진 3개의 전력 양수장으로 개조하고 관개 수로를 확장 또는 연장함으로써 조합내의 수리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매개 작업반별로 토지 정리 사업과 함께 불필요한 논'두렁들을 없애고 진펄이 밭을 논으로 전환하여 10 여 정보의 새 논을 쟁취하였다.

네째, 증대된 공동 축적금과 문화 폰드를 합리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농업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며 전기화를 촉진시키며 조합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킬 수 있었다.

통합된 후 조합의 생산 활동이 강화되고 다각 경리가 발전됨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서는 1년 간에 근 5천만 원의 공동 축적금과 문화 폰드가 축적되게 되였다. 이것은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 당시의 그것과 비하면 실로 8배 이상의 장성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선 생산적인 기본 건설과 농기구 구입에 투자하여 농업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며 다음으로는 전기 가설 공사, 문화 시설 및 문화 주택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실로 황량하던 《황초평》을 오늘에는 지상 락원을 련상시키는 《황금평》으로 화하게 만들었다.

즉 지난 3년 간에 우리 조합에서는 공동 잠실, 정미 공장, 제분 공장, 농기구 수리 공장, 어장고, 창고, 사무실, 소비 조합 상점, 식당, 학교, 진료소, 유치원, 탁아소, 목욕탕 등 2,500 여 평방메터에 달하는 공공 건물을 건설했으며 금년에는 100동의 문화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 수단으로서는 화물 자동차 1대, 어선 및 운반선 17척, 선반기 1대, 우차 78대를 비롯하여 동력 탈곡기, 축력 제초기, 발동기들을 다수 구입하여 농촌 경리의 기계화와 전기화 수준을 더욱 제고하였으며 문화 시설도 훌륭히 갖추어 놓았다.

다섯째, 통합된 규모가 큰 농업 협동 조합은 농촌의 문화 기술 혁명을 더욱 강력히 촉진시켰다.

우리 조합에서는 이미 1957년도부터 7년제의 초급 중학교를 조합 자체가 관리 운영하면서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했으며 진료소도 자체 운영하여 일체의 의약품을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는 매일 저녁 상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 공개이다. 이 분야에서 우리 조합은 이미 공산주의적 맹아 형태를 창조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야간 청년 기술 학교에서는 60명의 청년들이 매일 저녁 농산 기술을 공부하고 있으며 근로자 학교와 근로자 중학교에서는 대상자 전원이 일반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단기 기술 강습회들을 통하여 이미 26명의 청년들이 우수한 기능자로 육성되였으며 각 작업반들에서는 매일 아침, 점심 시간에 독보회를 통하여 전체 조합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들을 해석 침투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된 규모가 큰 농업 협동 조합은 분산된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들이 가지고 있던 제한성들을 극복하고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 즉 조합이 통합되기 전 1955년에는 호당 분배량에 있어서 알곡은 2톤 479키로그람에 현금은 거의 없었는데 1958년에는 알곡은 4톤 100키로그람, 현금은 8천 원을 분배하게 되였다.

2

농업 협동 조합의 조직 경제적 공고화를 위한 사업은 조합내 당 단체 사업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들이 리 단위의 규모가 큰 농업 협동 조합으로 통합되여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전진 농업 협동 조합 당 위원회가 체험한 경험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데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첫째로, 일부 관리 일'군들에게서 발로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조합이 통합된 조건하에서 관리 위원회는 새로 조성된 모든 예비들을 탐구 동원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내에 벼 정당 수확고를 6톤 이상으로 제고시키며 다각 경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문화 농촌을 건설할 전망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초기에 일부 관리 일'군들은 이러한 전망 계획을 찬성하지 않고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첫째로, 로력이 부족하며 둘째로, 섬의 기후가 그에 적합하지 않으며 세째로, 경험이 없다는 등의 리유로 벼 정당 수확고의 제고도, 다각 경리의 발전도 모두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였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과거의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 당시의 낡은 관점과 수공업식 사업 방법에 사로잡혀 조합 통합으로 인하여 조성된 새로운 예비들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는 당 단체 회의들을 통하여 그들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인내성 있게 일깨워 주는 동시에 당면한 생산 계획에 원대한 전망 계획이 반영되도록 강한 당적 통제를 실시했으며 대중을 동원하여 자연을 개조하고 다각 경리를 발전시키는 전 군중적 운동을 조직 전개하였다.

경험은 조합이 통합된 조건하에서 일부 관리 일'군들에게서 발로되는 과거의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 당시의 낡은 관점과 수공업식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극복하지 않고서는 조합의 원대한 전망 계획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로, 조합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 작업반(특히 부업 작업반)들 호상 간에 협조할 필요성이 더 증가되는 조건하에서 조합원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특히 강화하여야 한다.

분산된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 당시에 일부 조합원들 속에서는 개인 리기주의, 조합 본위주의 사상이 적지 않게 발로되여 전 리'적으로 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적지 않은 저애를 주었었다. 이런 경향은 조합이 통합된 후에도 발로되였다.

조합원들이 호상 교류된 부업 작업반 같은 데서는 서로 돕고 받들면서 기능을 향상시킬 대신에 일부 기능자들은 자기들만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기술 신비주의를 주장하였고 부락 단위로 조직된 농산 작업반들에서는 작업반 본위주의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협력, 호상 방조하는 사업을 기피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는 매개 조합원들을 무엇보다도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사상과 서로 돕고 서로 받드는 공산주의적 협업의 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특히 과거의 계급적 처지를 망각하지 않도록 지난 날의 비참한 생활 형편을 회상시키고 일깨워 주는 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러한 결과 절대 다수 조합원들이 종전의 낡은 사상 잔재들을 극복하고 전 조합적 리익을 위하여 작업반 호상간, 조합원들 호상간에 서로 돕고 받드는 미풍을 발휘하여 조합의 생산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였다.

세째로, 핵심 당원들을 각 작업반에 적절히 배치하고 대중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핵심 력량을 육성하는 데 관심하여야 한다.

분산된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 당시에는 락후한 조합들에 핵심 력량이 부족한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대로 조절 배치하기 곤난하였다. 조합이 통합되고 새로운 작업반들이 조직되는 조건하에서 우리는 매개 작업반에 핵심 당원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모든 작업반이 당의 결정 지시들을 철저하게 관철하도록 지도하였다.

례를 들어 로평 부락의 다수 조합원들은 40 여 년 전에 이주해 온 토착민들로서 해방전의 불건전한 생활 습성에 물젖어 자유주의와 개인 리기주의 사상이 농후하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는 핵심 당원들을 그 부락에 조직된 제 8 작업반장과 당 단체 위원장으로 각각 배치하고 조합원들 속에서 꾸준하게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한 결과 오늘에는 당의 결정 지시들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작업반으로 자라났다.

특히 당 위원회는 부업 작업반들이 처음으로 조직되여 섬에서는 불가능하다던 다각 경리를 처음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곳들에 우수한 핵심 당원들을 배치하는 데 각별히 주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당 위원회는 실지 사업을 통하여서와 매월 3—4차에 걸쳐 진행하는 선동원 세미나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핵심 당원 강습, 당원 강습, 조합원 강습 등을 통하여 핵심 당원 및 비당원 열성자들을 계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미 111명의 선동원들과 각 분

조장까지의 지도 일'군들을 모두 우수한 핵심 력량으로 육성함으로써 당 정책을 더욱 더 철저하게 관철할 수 있게 되였다.

네째로, 조합원들 속에서 혁명적 경각성을 가일층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농업 협동 조합들이 통합될 때 일부 조합원들 속에서 부분적이나마 일시적인 동요가 있었다. 즉 부유한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자기들의 분배몫이 줄어들가봐 겁을 먹고 동요했으며 또 일부 관리 일'군들은 자기들이 관리 간부의 자리에서 제거당하는 데 불평을 품고 동요하였었다. 물론 이러한 동요는 당 단체의 제때에 되는 정치 사업에 의하여 곧 시정되였다.

그러나 일부 관리 일'군들의 불평은 쉽사리 제거되지 않았으며 3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출되군 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일'군들의 이러한 불평은 결국 불순 분자의 리용물로 되였다. 즉 불순 분자 리 창률은 리 욱근, 김 민희 등 불평 분자들을 규합하여 가지고 조합원들 속에서 관리 간부들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했으며 나아가서는 조합의 핵심 진지를 헐어버리려고 기도하였다.

경험은 조합을 통합할 때 일부 관리 일'군들에게서 발로되는 동요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되는 사상 투쟁을 통하여 이를 극복해야 하며 조합원들 속에서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여 그 어떤 반혁명 분자, 불순 분자들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당 위원회는 지난 3년 간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면서 조합의 가일층의 조직 경제적 공고화를 위하여 조합원들 속에서의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

지금 우리 전진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심각히 연구 토의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내달릴 것을 한결같이 결의하고 있다. 초보적으로 토의된 바에 의하더라도 우리는 명년도에 벼 정당 수확고를 금년도 실적의 4배 이상에 달하는 25톤 380키로그람, 총 알곡 생산고를 21,338톤으로 제고시키며 공동 가축은 논 5정보당 역축 1두, 농가 호수 30호당 덕클 10두 이상과 매 농호당 2—3두의 돼지를 기르며 잠업에 있어서는 가잠 120매에서 매당 평균 37,916키로그람, 피마잠 2,000매에서 매당 평균 10키로그람을 생산하며 수산업에 있어서는 원해 및 심해 어업을 대담하게 전개하는 동시에 세소 어업을 확대시켜 년 800톤의 물'고기를 잡으며 담수 양어를 전 논면적에 도입하여 164톤의 물'고기를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제 1차 5개년 계획에 예견된 것을 명년내로 그의 80% 이상을 수행할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이 공고 발전되고 조합원들의 혁명적 기세가 앙양된 조건하에서 이것은 능히 실천 가능한 투쟁 목표이다. 문제는 우리 당 단체가 당 정책에 충실하게 농업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농촌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더욱 공고화시키면서 대중을 효과 있게 조직 동원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 전진 농업 협동 조합 당 위원회는 지난 3년 간에 대규모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 운영하여 온 고귀한 경험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대중 속에서 자기의 응당한 조직 동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전쟁 세력에 대한 평화 력량의 위대한 승리의 1년

고 화 영

지난 1년 간의 국제 정세는 례년과 마찬가지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평화 애호 정책을 일방으로 하고 제국주의 렬강의 침략적 전쟁 도발 정책을 타방으로 하는 세계 정치에서의 두 가지 상이한 로선간의 가렬한 투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례년에 비하여 제국주의 특히는 미제가 더욱 공개적이고 발악적인 침략적 전쟁 도발 행동을 감행한 사실이며 반면에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이 미증유로 장성되여 제국주의 전쟁 세력을 결정적으로 타승한 사실이다.

미제가 지난 1년 간 가장 악랄하게 침략적 전쟁 도발 행동을 감행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우선 10월 혁명 40주년을 계기로 하여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및·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과 그 위력이 더욱 불패의 것으로 장성 강화되였으며, 그의 영향하에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이 전례 없이 앙양되고 《평화 지대》가 가일층 공고 발전된 사실과 관련되여 있다. 특히 미국의 대내외 정책을 좌우하는 석유 독점체(록크펠라)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 굴지의 석유 산지인 중근동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의 강력한 앙양은 석유 독점가들에게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직접적인 무력 행동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였다.

다음으로 그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에서의 경제 공황이 날로 심화된 사실과 관련되여 있다. 주기적인 생산 과잉으로 인하여 발생된 미국의 현 경제 공황은 공업 생산을 감퇴, 정체시켰으며 6월 현재로 16년래의 최대의 실업군을 산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경제 공황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는바 이리하여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공황이 일어났으며 또 일어날 징조가 성숙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의 경제 공황의 심화, 세계 경제 공황의 성숙은 자본주의 세계의 제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켰으며 국제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소여 나라들에서의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를 더욱 첨예화시켰다. 미국, 영국, 카나다 및 기타 나라들에서 광범한 근로 대중은 경제 공황의 중하를 반대하며 자기들의 권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진출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독점 자본의 집단들은 각종 음흉한 기도들을 하였는바 례컨대 불란서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조성된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국내 파쑈화의 방법으로 찾으려 하였으며 미국 지배층들은 대외적 팽창 정책, 전쟁 도발 정책에서 찾으려 하였다.

미국 통치 집단은 현 경제 공황을 미국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판가리의 것으로 보았다. 례컨대 미국 대재벌의 두목의 한 사람인 모르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금번 경제 쇠퇴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하여 아주 좋지 못한 일이며, 만약 경제가 다시 악화되여 그것이 오래 끌고 전체 자유 세계에 파급된다면 미국은 총 한방 쏘지 못하고 랭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 것이다》. 또한 미국 《상업 금융 기사보》는 《비교적 규모가 큰 전쟁을 폭발시키는 길밖에 미국 경제 위기는 출로가 없다》고 썼다.

이렇게 되여 미제는 금년에 들어 와서 례년보다 더 공공연한 침략적 전쟁 도발 책동을 감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시도는 강력한 시대적 조류에 항거하는 것이므로 허사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지난 1년 간에 수차례에 걸쳐 침략적 전쟁 도발 책동을 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유지 보장된 것은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선두에 위대한 쏘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세계 사회주의 진영이 서 있으며 그리고 그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이 평화 세력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였으며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였다. 이것이 바로 미 영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힘의 립창》에 서서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하게 하였으며 중근동에서와 극동에서의 침략적 전쟁 도발 행위를 좌절케 한 결정적 요인이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대전을 도발한다면 자기 본토의 중요한 공업 중심지들이 쏘련의 대륙간 탄도탄과 수소탄에 의하여 섬멸적인 보복적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이젠하워는 벌써 쏘련이 수소탄과 원거리 폭격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때부터 전쟁이 미국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오리라는 것을 미국 《력사상 처음으로 심중히 우려하게 되였다》고 재삼 비명을 올렸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신심이 없었다. 아이젠하워는 현대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특히 소모전을 함에 있어서…강대한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력량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은 생산 발전 속도와 일부 중요 공업 부문들, 특히 일련의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공포와 비애를 느끼게 하였으며 감히 대전을 일으킬 수 없게 하였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흐루쑈브는 세계 정세를 타산할 때 쏘련의 공업 발전 정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썼다. 이것은 쏘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력량이 날로 장성하는 데 공포를 느끼고 있는 미국 통치 집단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쏘련을 선두로 한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 장성은 금년도에 들어 와서 그렇게도 발악적인 책동을 감행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행동을 저지시켰으며 평화 유지의 결정적 담보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로 하여금 평화를 위한 대외적 적극성과 주도적 역할을 제고시켰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평화를 위한 대외적 적극성과 그들의 주동적 발기들은 제국주의 반동들의 침략적 전쟁 도발 정책의 실현을 저지시켰으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함에 있어서 강유력한 역할을 놀았으며 놀고 있다.

1957년 12월 이래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제 국은 평화의 유지 공고화를 위하여 련속적인 중대한 주동적 조치와 발기들을 취하여 왔다. 즉 동서 국가들의 고위급 회의 소집에 대한 쏘련 정부의 제의, 모든 종류의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데 대한 쏘련 정부의 결정, 구라파 비원자 지대의 설정에 대한 파란 정부의 제의, 와르샤와 조약 성원국들과 북대서양 동맹 성원국들 간에 호상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의, 중근동 지역의 제 국가의 독립 및 평화를 담보할 데 대한 쏘련 정부의 제의, 베를린의 점령 제도를 철폐하며 서부 베를린에 대한 미, 영, 불의 강점을 종식시키며 이를 비군사화된 자유 도시로 전변시킬 데 대한 쏘련 정부의 발기 등은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으며 또 가지고 있다.

일체 외국 군대를 조선으로부터 동시에 철거시킬 데 대한 공화국 정부의 제의와 중국 인민 지원군을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철거시킨 조 중 량국 정부의 주동적 조치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며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함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평화적 발기들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 성원을 받았으며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정치적 및 도덕적 신망을 크게 제고시켰다.

사회주의 진영의 부단한 위력 장성, 그리고 그의 적극적인 평화적 발기들은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에 극히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었다.

지난 1년 간에 있어서 민족 해방 운동은 더욱 앙양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면들을 열어 놓았다.

그것은 우선 전후 시기 앙양되고 있는 민족 해방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꾸며 낸 바그다드 조약과 같은 《동맹》이 파탄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인 《아이젠하워—덜레스주의》가 완전히 파산되였다는 것으로써 증시된다.

7월 14일 이라크의 반제 혁명은 《아이젠하워주의》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왕을 《견고한 지주로》하고 있은 바그다드 조약을 허물어 놓았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 어떠한 형태의 식민주의도 벌써 시대에 뒤떨어진, 력사의 수레 바퀴에 항거하는 허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 주었다.

《아이젠하워주의》와 바그다드 조약의 파산은 곧 미제의 중근동 정책의 기본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민족 해방 운동이 새로운 계단으로 들어 섰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아랍 민족 혁명의 새로운 승리로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미제의 식민지적 지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는 7월 15일 독점체들의 침략적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라크에서의 정변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것은 나쎄르가 수에즈 운하를 탈취한 것보다 더 큰 타격으로 된다. 왜냐하면 이 탈취는 오직 하나의 동맥만을 위협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통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의 타격은 서방의 생명력의 원천으로 되는 원유를 이라크에서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이란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위협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중동의 운명이 세계 력량의 균형에 저촉된다는 사실이다. 서방은 후두의 정맥을 끊는 것을 용허할 수 없으며 또 용허해서는 아니된다》.

제국주의 반동 세력의 두목인 미제의 중근동에서의 침략 정책의 파산, 아랍 민족 해방 혁명의 새로운 승리는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아연실색케 하였으며 어찌할바 모르는 본능적 반응으로서 횡폭한 무장 간섭을 감행케 하였다. 이라크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7월 15일 및 17일에 레바논과 요르단을 반대하여 감행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 무력 침범은 바로 그러한 것이였다.

레바논과 요르단에 대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위는 그들의 《반식민주의》에 대한 신화의 본질을 완전히 폭로하였다. 동시에 그것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의 취약성을 똑똑히 반증하여 주었다.

지난 1년 간의 정세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완전히 파산되여 당황망조한 나머지 그의 발악으로서 공공연한 무력적 폭력 수단을 적용하는 침략적 전쟁 도발 행동과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항거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첨예화되고 있음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중근동에서 좌절된 침략적 전쟁 도발 행위가 극동의 대만 해협에 돌려졌을 때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였다.

대만 해협에서 감행한 미제의 침략적 전쟁 도발 책동은 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가 자기들의 가장 간악한 헌병이며 공동의 원쑤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하였다.

벌써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레바논과 요르단에 대한 침략 행위가 개시되던 그 당시에 미제의 비호하에 있는 장 개석 도당은 중국 대륙에 《총 진공》할 데 대한 고함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미국 침략 계층의 조종에 의한 것이다. 때문에 9월 3일 미군 태평양 사령관 스무트는 미국은 장 개석과 같이 《합동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을 패배케 할 것이다》라고 떠들었다.

미제의 대만 해협에서의 도발 행위는 비단 6억 5천 만의 중국 인민만을 반대하는 데 그치는 협소한 침략적 행동이 아니다. 세계 정치의 범위에서 볼 때 그것은 미제가 오래전부터 꿈꾸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여 계속적으로 감행하여 오던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침략 정책의 하나의 표현이였다.

대만 해협에서 감행한 미제의 도발 행위의 직접적 계기는 의심할 바 없이 레바논과 요르단에 대한 그들의 침략에서 당한 참패였다. 그들은 중근동에 대한 침략 제지에 결정적 역할을 논 사회주의 진영의 한 성원인 중국에 대하여 도전함으로써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날로 장성되는 위신과 신망을 저락시키고 자기가 당한 정치 도덕적 참패를 회복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책동은 세계 인민들 앞에 그들의 분별 없는 발악이 회복할 수 없는 그들의 취약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더욱 뚜렷하게 확증적으로 명시하여 주었다.

지난 날의 정세는 미제가 세계 각 곳에서 당한 참패를 회복하기 위하여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 새로운 참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었다.

중근동 및 극동에 대한 미제의 도발 행동은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극도로 되는 증오심을 야기시켰으며 강력한 평화 옹호 투쟁과 민족 해방 운동을 일층 강화 발전케 하였다. 동시에 그것은 그들 자신이 자기의 강도적 정책에 의하여 그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오늘 인민들의 반미 기세는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에만 하여도 동방과 일부 국가들에는 간혹 미제의 소위 《반식민주의》에 대한 일정한 환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러한 환상마저 없어졌다. 바야흐로 미 제국주의자들은 국제 무대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 세계 인민들의 완전한 포위 속에 들어 갔으며 그들의 운명은 막다른 골목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이것은 오늘 모든 인민들이 미제는 평화와 안전과 독립을 위협하는 해적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프랑크 프르테르 알게마이네》지가 7월 25일에 《미국은 중립적 친선적 그리고 동맹적

민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기의 접경에 서 있다. 근동에 미군이 상륙한 것은 동방 뿐만 아니라 전체 유색 민족들의 공개적인 적의를 야기시켰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까지도 국무성에 이 행동에 대한 불찬성의 태도를 취하였다. 남미에서도 불신임과 불만으로 가득 찼다》라고 쓴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지난 1년 간의 국제 정세의 총화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쏘련을 선두로 하는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그렇게도 발악적이였고 악랄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전쟁 도발 행위는 좌절되고 말았으며 평화는 유지 보장되였다. 그러나 모쓰크바 선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가 존속하는 한 침략 전쟁을 위한 지반은 언제나 남아 있다. 중근동에서, 대만 해협에서, 남조선에서 그리고 기타 각지에서 벌러지고 있는 모든 사태들은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위험성은 세계 반동의 중심이며 세계 헌병이며 인류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가 오늘 세계에 조성된 력량 관계를 무시하고 분별 없이 인민들에 도전하여 나섬으로써 더욱 더 엄중한 것으로 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군비 확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로골적인 전쟁 도발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각 곳에 전쟁 온상을 조성하며 뻘럭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파산된 《힘의 립장에선》 정책을 수습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침략적 책동을 감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반동 세력을 규합 추동하여 그 나라에 전쟁 세력을 부식하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하에 그들은 지난 날 가장 흉악하고 침략적이였던 독일 및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키고 있다. 1945년 포츠담 협정에 의하여 독일 군국주의를 반대하여야 할 미제가 그들 자신들이 조작한 침략적 군사 뻘럭의 교두보로서 독일 군국주의를 리용하고 있으며 지어 그들을 원자 무기, 로케트 무기로써 무장시키고 있다. 이것은 독일인들의 불행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엄중한 침략 정책이다.

동시에 미제는 극동에 대한 자기의 침략에 일본 군국주의를 리용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에 적극 추종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잔당들은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 제 국에 대한 미국 지배 계층의 침략 행동을 적극 받들고 그에 앞장 서는 대가로 《대동아 공영권》의 옛 군국주의적 꿈을 재현하기 위하여 일본의 전쟁 참가와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있는 현 일본 헌법 조항을 폐지하며 리 승만, 장개석들과 더불어 《반공 군사 동맹》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하려고 날뛰고 있다.

바로 오늘 기시 반동 정부가 리 승만 도당과 소위 《한일 회담》을, 느고 딘 디엠 도당과 소위 《일본—남부 월남 강화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 개석 도당과의 결탁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은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 애호 국가들을 반대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함께 아세아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 평화에 대한 큰 위협으로 된다. 때문에 오늘날 독일 및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과 그를 방조하고 있는 미제의 침략적 도발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주요한 과업이다. 우리 나라 남반부에 미군이 강점하고 있는 정세하에서 조선 인민의 선차적 과업은 우선 조선에서 미군을 물러 가게 하는 문제이다. 현재 조선 인민은 이 과업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평화 옹호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단결의 강화와 그들의 조직력의 가일층 제고인바 오늘의 정세 총화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많은 전진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인민들의 더욱 더한 단결과 조직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모쓰크바 평화 선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화는 오로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력을 단합하며 전쟁 방화자들의 음모에 대하여 경각성을 제고하는 조건하에서만, 그리고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평화를 옹호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신성한 임무로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조건하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저러한 곳에서 전쟁 온상을 조성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데 부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며 이러저러한 지역에서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전쟁 도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는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의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되고 있다. 더우기 오늘날 평화 력량은 일층 공고화되여 전쟁 세력을 결정적으로 타승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침략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 자신의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뿐일 것이다. 《왜냐 하면 인민들은 그처럼 혹심한 곤난과 희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제도를 더는 참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 회의 선언).

리 승만 도당의 발악과 《신 국가 보안법안》의 파쑈적 본질

한 락 규

리 승만 도당은 최근 시기에 극악한 파쑈적 악법인 《국가 보안법》을 일층 개악하려고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다.

이 책동은 최근 시기 그들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 즉 《경찰서》 및 《형무소》의 증설 확장, 《중앙 수사국》의 신설 기도 및 기타 조치들과 함께 남조선 사회를 가일층 파쑈화하며 장성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리 승만 기세를 압살하며 자기들이 직면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리 승만 도당의 파쑈적 테로 행위의 강화는 금년에 들어 와서 그들의 식민지 통치 제도의 위기가 더 심각화됨과 관련하여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미 지난 5월 2일 제 4대 《민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은 물론 지어 자기 반대파들에 대하여 대량적 검거를 감행하는 한편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 집회 습격 등 횡포한 파쑈적 폭압을 거듭 감행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기간에 빈번히 군사 도발 소동을 일으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여론과 시선을 딴데로 돌려 보려고 발광적 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시도로써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으며 도리여 자체의 침략성과 매국적 본질을 더욱 폭로하였으며 인민들의 커다란 분격을 일으켰을 뿐이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그들은 더욱 악랄한 파쑈적 폭압 조치를 취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 탄압을 감행하기에 혈안이 되였다.

그들은 《5렬 색출》, 《불량배 단속》 등의 상투적인 구호를 들고 대중적 탄압의 폭압 선풍을 일으켰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은 물론 지어 야당파들에 대하여 《평화 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체포 구금하며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소한 표현만 있어도 《국시 위반》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닥치는대로 체포, 구금, 처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민들을 대량 구금, 체포하기 위하여 방대한 자금을 들여 《경찰》 기관 건물들을 신축 확장하였으며 형무소 증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남조선 각지에 형무소를 대대적으로 확장 또는 신설하였다.

경찰 테로 통치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하여 그들은 최근에 《경찰 수사와 심문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개악하여 《미국 련방 수사국을 모방》하여 《수사》를 일원화하며 괴뢰 경찰, 검찰, 특무 등 인민 탄압의 도구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앙 수사국》의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개악은 괴뢰 경찰의 야수적 횡포와 그의 무제한한 권한의 확대를 《법문화》함으로써 《중앙 수사국》과 함께 《국가 보안법 개악안》의 집행을 뒤'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오늘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고 있는 리 승만 도당이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남조선 사회를 더욱 더 인민의 감옥으로, 중세기적 암흑과 공포의 천지로 전변시키려고 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실증하여 준다.

《국가 보안법》을 가일층 개악하려는 시도도 바로 이상과 같은 목적에서 나왔다.

* *

《국가 보안법》 (1948년 12월 1일 공포)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의 악명 높은 《치안 유지법》을 본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에서 규정한 형벌은 《치안 유지법》 보다도 더 가혹하다.

이 악법은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개악되였다. 북반부 인민들의 투쟁과 그 성과에 고무

되어 날로 각성되어 가는 남반부 인민들과 모든 애국적 력량의 장성 강화, 또는 리 승만 도당의 정치적 위기의 첨예화 등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개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1949년 12월에 벌써 리 승만 도당은 미제의 사촉하에 《북진 통일》을 준비하면서 《후방의 공고화》라는 구호 밑에 《법률 85호》로 《국가 보안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다.

전문 18조로 확장된 이 《개정 법률》은 종전보다도 범죄의 개념을 확대하였으며 처벌도 훨씬 가혹하게 규정하여 놓았다. 즉 그것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단체는 물론 그를 지원하는 단체의 가입자들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 리 승만 도당의 말을 듣지 않는 일체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선동》, 《선전》, 《협의》, 《류포》, 《목적 수단을 위한 행위》 등으로 죄명을 들씌워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며 처벌할 것을 규정하여 놓았다. 더 나가서 그것은 이러한 범죄의 《미수죄》도 처벌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사형을 포함한 극형 뿐만 아니라 기타 체형들도 더 많이 규정하여 놓았다.

리 승만 도당은 또한 1950년 4월에 《북진》을 서두르면서 다시 《국가 보안법》의 처벌 규정을 더욱 개악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더라도 리 승만 도당이 인민들로부터 고립될수록 또 정치적 위기가 첨예화될수록 이 악법에 매달려 폭압을 강화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남반부에서 계속 이 악법으로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박해 탄압하였으며 수 많은 애국적 인민들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이 악법으로써도 자기들의 무너져 가는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였으며 도리여 격심해 가는 위기 앞에서 리 승만 도당은 어떠한 수단으로써라도 만회해 보려고 오래 동안 이 악법을 가일층 개악하여 보려는 기도를 추진시켜 오다가 마침내 최근 시기에 이 악법을 개악하려고 날뛰게 된 것이다.

무엇이 지금 리 승만 도당으로 하여금 《국가 보안법》의 개악을 위하여 그처럼 발광하게 하였는가는 그들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명백히 말해 주고 있다.

오늘 미제의 침략 정책은 날이 갈수록 파탄되고 있으며 리 승만 통치 지반은 그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웨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의 반미 반리 승만 기세는 비상히 앙양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이러한 반항의 기세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에 고무되면서 더욱 비등되고 있다. 얼마 전에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는 미제 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절규한 삐라들이 수다하게 살포되였는바 이것으로서도 남조선에서의 반미 반리 승만 기세의 앙양을 똑똑히 볼 수 있다.

남조선 지배층 내부에서도 리 승만 도당을 반대 배격하는 분위기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 괴뢰 정권 탈취에 급급하고 있는 야당파들은 인민들의 앙양된 기세에 편승하여 기만적 구호 밑에 괴뢰 정부를 반대하는 공세를 들여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당파들은 인민들을 무마하는 한편 정세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려 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리 승만 도당은 이러한 고립된 처지, 정치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폭압 수단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불안과 위기를 만회해 보려고 타산하면서 《국가 보안법》을 개악하려 하며 인민 대중에 대한 야수적 폭압을 강화하며 지어 야당파들의 활동까지도 완전히 분쇄하려고 시도하며 파쑈적 독재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 40조, 부칙 2조로 된 《신 국가 보안법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부 법령의 형식으로나마 가장하였던 최후의 민주주의적 흔적마저 일소하고 있는 데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부르죠아지의 헌법에 기록된 인민들의 언론, 출판, 결사의 권리와 자유는 억압 받고 착취 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언제나 그림의 떡으로 된다. 그런데 이 그림의 떡조차 개별적인 특수 법령에 의하여 점차 말소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지는 인민의 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또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규정에 대한 정면적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각종 이름을 부친 법령들을 고안해내는 것을 통례로 한다. 악독한 일제도 그러하였다. 즉 《행정 집행법》이요, 《군기 보호법》이요, 《국방 보안법》이요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였으며 《치안 유지법》 조차도 그러한 것이였다.

리 승만 도당도 바로 이것을 모방하고 있다. 《국방 경비법》이요, 《경범죄 처벌법》이요 하는 것들과 《국가 보안법》까지 그러한 의의를 가졌다.

그러나 금번 개악되는 《국가 보안법》에서는 인민의 여론도 돌아 볼 여지 없이 되였다. 리 승만 도당은 이 《신 국가 보안법안》에서 《결사 집단의 구성》, 《금품 수수 관여 권유》, 《살상 방화 소요 중요 시설 등 손괴》 등을 비롯하여 《국가 기밀 탐지 수집 루설》, 《정보 수집》, 《허위 사실 류포》, 《왕래 잠입 은거》, 《명예 훼손》, 《특별 관계의 유지》, 《기록 증거물의 효용 감실》, 《허위의 고소 고발 위증 범죄 사실 날조》 등을 엄중한 범죄로서 수 없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현행 《국가 보안법》에 비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 형사적 범죄》도 《정치적 범죄》로서 테로적 폭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 국가 보안법안》 제 1조에서 그들은 리 승만 괴뢰 집단을 반대하는 《결사 집단 또는 단체와 그의 목적한 사항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용할 형벌과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정》함으로써 그들의 불안을 제거할 조치들을 방대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형과 중형의 적용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여 놓고 있다.

《신 국가 보안법안》에서 리 승만 도당은 언론 봉쇄를 여러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국가 기밀》의 개념을 확대하여 이를 방패로 괴뢰 관공서, 정당, 단체 뿐만 아니라 개별적 인물에 이르기까지의 리 승만 도당의 반역 행위나 음모들을 폭로하며 규탄하는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여 놓고 있다 (《신 국가 보안법안》,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 비밀》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을 가하기로 되여 있다.

이로써 명백한 바와 같이 리 승만 도당은 인민 대중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야당파 계렬의 언론 활동에 대해서까지도 횡포한 책동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1960년에 있을 《정, 부통령 선거》에 대처하여 파쑈 테로 독재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안을 주는 일체 요소를 제거하려는 기도인 것이다.

《신 국가 보안법안》은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그 어떠한 표현도 탄압하려는 매족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남북간의 접근은 물론 각종 문화 교류와 물자의 유무 상통, 무역 거래 등의 접촉을 금하고 온갖 거래를 두절시킬 목적으로 《본 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는 지역내에 있는》 《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왕래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상동, 제 19조)고 규정하고 있다.

《신 국가 보안법안》은 또한 미군의 악랄한 행패와 야만적 만행에 대한 인민들의 정당한 방위 행동을 《반국가적 범죄》로서 처단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세계의 그 어느 력사에서도 봉건 국가의 형법을 제외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순종이 반국가적인 국사범으로 되는 례를 알지 못한다.

리 승만 도당은 괴뢰 군경과 공무원에 대한 반항 또는 불복종을 이 《신 국가 보안법안》에 예견하면서 이것을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상동, 제 25조)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곧 미군의 어떠한 비법적 지시와 처사에도 복종함은 물론 그들의 온갖 생욕적 요구에도 순응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그들의 원하는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항거로서 인정하고 엄중한 형벌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매일 같이 감행될 뿐만 아니라 증가되고 있는 미군의 살인, 강탈, 강간 기타의 온갖 만행을 제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최저한의 인권의 옹호를 위한 정당한 방위적인 행동도 엄중한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리 승만 도당은 고문으로 범죄를 마음대로 날조할 수 있도록 《신 국가 보안법안》에다 《피의자》의 인정 여부에는 관계 없이 《경찰 조서에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 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병으로 인한 보석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석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보안법》 위반의 혐의로 체포 감금만 되면 옥사를 하던가 처형되던가 이 두 길 밖에 없는 것이다. 인신 구속권은 사실상 재판소로부터 사법 경찰과 검찰 기관에 넘기고 있으며 그들의 자의적인 구속 연장과 갱신을 인정하면서 날조된 증거에 의한 립증과 그의 《증거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날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것은 봉건 학정하에서와 일제의 악독한 통치하에서 인민들이 그 얼마나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인 악법을 조작해 냄으로써 리 승만 도당은 그 법의 테로적 성격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신 국가 보안법안》에서 《주의 규정》이라고 하고 《본 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자유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향유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있길래 또 언제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 보려고 한 일이 있길래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자기들이 조작한 이 《법안》의 테로적 성격을 고백할 뿐이다. 이러한 규정으로써는 인민들을 기만하며 회유할 수 없다.

그들도 또한 인민을 기만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알면서도 이것을 규정하는 데는 다른 한 가지 목적이 더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야당파들에 대한 《선언》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야당파 너의들의 《향유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할 터이니 이 《법령》을 접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만 되는 날이면 이 악독한 《법령》에 의하여 체포 감금되는 것은 근로자들만으로 국한된다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앞으로 《대통령》, 《부통령》 선거시는 물론 기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 살인적 무기를 내들고 야당파들도 검거 투옥할 것은 명약관화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 승만 도당은 중세기적 암흑 통치를 현대적 《법률》의 간판으로 분식하고 있다. 그들은 이 악법으로써 남조선 근로 대중을 위협하여 미제 침략 정책과 괴뢰 통치하에서 인민들의 노예적 상태를 감수케 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조치가 마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자위 수단》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적 론조는 사실 앞에서 분쇄될 것이다.

오늘 리 승만 도당이 자기들의 단말마적 말로를 유지하려고 발악하고 있으나 력사에 의하여 운명 지어진 그들의 운명은 구원될 수 없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이러한 발악적 책동에 대하여 더욱 더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지배층 내부에서도 울려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 승만 도당이 아무리 발악한다고 하더라도 장성하는 인민들의 투지를 절대로 말살하지 못하며 제압하지 못한다. 일제도, 나치스트들도 각종 악법을 강요하면서 인민들을 노예적 상태로 결박하여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력사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악법의 강화는 멸망의 촉진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리 승만 도당의 멸망도 역시 불가피적이며 필연적이다.

남조선에서 횡행하는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

백 원 규

《죽음의 철학》, 《불안의 철학》, 《위기의 철학》이라고 불리우는 실존주의 철학은 오늘날 남조선에서 류포되고 있는 각종 부르죠아 반동 철학 중에서 대표적인 조류의 하나이다.

이 철학은 자본주의의 파국적 단계의 산물이며 멸망하여 가는 자들의 위구, 공포, 불안을 반영한 반동적인 철학 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의 중요한 특징은 비관주의, 퇴페주의 그리고 숭려주의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이러한 퇴페적인 실존주의 철학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에게 절망과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주입시키려 하며 그들을 종교적 환상 속에 몰아 넣으려 하며 그리하여 날로 장성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반리 승만 기세를 말살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무기력한 노예로 만들려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자기들의 파쑈 테로 통치를 수습하려 하며 침략적 략탈 행위, 야수적 만행, 반인민적 테로 정책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는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야수적 만행과 략탈 행위, 리 승만 도당의 반인민적 매국 정책을 리론적으로 비호하는 그들의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실존주의 철학의 반동적 본질과 그 퇴페성을 고찰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 *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는 덴마크의 신비주의자 키에르케고르(1813—1855)였다. 제 1차 대전후 이 철학은 독일에서 류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주요한 대표자는 히틀러 파씨즘의 지지자인 하이덱케르와 야스페르스였다. 제 2차 대전 시기와 대전후에 이 철학은 불란서의 반동 작가 싸르트르 등에 의하여 불란서에서 한 때 류행물로 되고 있었다. 오늘날 이 철학은 미국, 이태리, 남아메리카 제 국에서도 류행되고 있으며 현대 퇴페적인 부르죠아 철학의 전형물의 하나로 되고 있다.

실존주의는 기타의 주관적 관념론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물질적 존재를 부인한다. 실존주의자들은 《실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 개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떠벌리면서 이 개인의 실존은 구체적인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실존인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만이 실존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존주의자들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 감정》, 《정신 생활》, 《순수 자의식》, 《내재적 자아》라고 떠벌린다.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존재의 징표인 이러한 《개인적 감정》은 괴로움과 우울, 고독이며 죽음에 대한 고민과 공포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으며 인간이 산다는 것은 결국 죽어가는 것이며 인간이 사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인간이 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 야스페르스는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며》 사람은 죽음의 찰나(刹那)에서만 《진리성의 지식》을 리해할 수 있다고 떠벌렸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들로 하여 실존주의 철학은 《죽음의 철학》 또는 《불안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바 그것은 사실상 철학에 보다는 정신병학에다 소속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살 가치가 있는가》하는 문제와 자살 문제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주되는 문제로 되고 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 《절망》, 《공포》의 의식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비애와 절망에 찬 세계》, 《세계의 멸망》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오늘날 멸망하는 것은 인류도, 세계도 아니며 오직 자본주의 체계 뿐인바 그것을 대체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체계가 날로 장성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자들이 떠벌리는 《불안》과 《공포》, 《세계의 멸망》이라는 구호는 바로 자본주의의 멸망을 음폐하기 위한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레닌은 1910년 《엘. 엔. 똘쓰또이와 현대 로동 운동》이라는 론문에서 《불안》과 《절망》의 계급적 근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절망은 멸망해 가는 계급들에만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 로동자 계급은 로씨야도 포함된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적으로 장성, 발전, 강화되고 있다. 절망은 악의 원인을 리해하지 못하며 출구를 보지 못하며 투쟁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고유한 것이다. 현대 산업 프로레타리아트는 그러한 계급에는 속하지 않는다》(전집, 제 16권, 조선문 판, 419페지).

실존주의자들이 《세계의 멸망》에 대하여 떠벌리는 것은 일정한 실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즉 인민들 속에 《불안》과 《공포》를 류포시켜 그 《공포》를 리용함으로써 인민 대중을 《인류 사회의 파국》에 대한 환상으로써 위협하며 인류의 대량적 살륙을 불가피하게 동반하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새 전쟁 도발 정책과 야수적 만행을 정당화하려고 하며 장성하는 인민들의 혁명 운동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

남조선에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추종자들도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도 《세계의 멸망》이라는 구호로써 미제와 리승만 통치 제도의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와 그들의 침략적 본질을 음폐하면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전쟁 도발 정책과 야수적 만행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범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대포'밥으로 끌리어 가는 것을 《영예》로 묘사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 속에 허무주의, 염세주의 사상의 독소를 퍼뜨리고 있으며 죽음을 례찬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헤매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자살자들이 속출되는 현상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금년 1월 호 남조선 잡지 《새벽》에서 남조선의 어떤 어용 문필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람들은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고 하는 리유로 자살한다. 그것은 틀림 없는 진리이다——더우기 이것은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메마른 진리이다》. 더 나아가서 이자는 자살 행위를 공공연하게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살 행위의 원인을 순 개인적인 심정의 동기로 묘사하고 있다: 《기왕에는 자살을 다만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밖에 다루지 않았다. 허지만 우선 이제 문제로 하려는 것은 개인의 사고와 자살의 관계와의 관계이다. 자살과 같은 행동은 위대한 작품처럼 심정(心情)의 침묵 속에서 준비된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의 현실은 이 자의 주장을 여지 없이 반박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남조선에서 자살자들이 속출되고 있는 것은 이 자의 말과는 정반대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와 반인민적 략탈 정책에 있는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가혹한 수탈 정책과 반인민적 테로 통치는 남조선 인민들을 극도의 빈궁과 기아 속에 몰아 넣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인민들은 살길이 없이 헤매다가 마지 못하여 자살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자살 행위가 속출되는 것을 순 개인적인 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가 없다면 자살과 같은 행위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적 비극이 남조선에서 일어날 수 없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침략적 매국적 정책을 비호하기 위하여 실존주의자들은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궐기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투쟁의 무익성을 설교하며 근로 대중의 단결을 와해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인간의 《불안》과 《공포》는 《인간 자체의 본성》, 《생활 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 인민의 일체 재난은 그들의 본성에서 흘러 나온 것만큼 그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결코 그 책임을 자본주의 착취 제도에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근로 대중이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싸우는 것은 《헛된 일》이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죽음을 찾는 것이 더 지당하다고 설교하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다면, 더우기 미래를 위해서 력량을 단합한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의 《멸망》으로 이끌 뿐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존주의자들의 계급적 본질, 즉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종복으로서의 본질을 더욱 똑똑히 볼 수 있다.

남조선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이것은 그들 자체의 《본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와 략탈적인 정책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며 또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착취와 압박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다.

실존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외곡하여 마치나 근로 인민의 불행이 그들 자체의 《천성》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략탈적 정책의 본질을 합리화하려 하며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착취자적 본질을 음페하려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 모든 적들과의 타협에로 남조선 인민들을 이끌어 보려고 하며 그들에게 노예적으로 순종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비애와 절망에 찬 세계》 운운하면서 실존주의자들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가인식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인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세계는 혼돈속에 있으며 절망의 전야에 처하여 있다고 하면서 인간은 《래일을 믿을 수 없고》 또 자기 힘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는 《확정된 운명》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또한 인간 리성의 역할과 인간의 능동적 활동을 무마하려 하며 무지와 몽매주의를 설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비단 실존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설교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모든 부르죠아 반동 철학들은 례외 없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몽매주의를 설교하며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남조선 인민들을 피동적인 길로, 맹목적인 우연성 앞에 무조건 복종시키는 길로 몰아 넣으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래일을 믿지 말라》라는 주장은 광명한 미래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꺾어 보려는 것이며 미제와 리 승만 통치 제도의 불가피적 멸망을 만회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력사의 발전 과정은 실존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혼돈과 우연성의 란잡한 집적이 아니다. 력사의 발전 과정은 합법칙적 과정이며 필연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즉 저급한 것으로부터 높은 것으로 합법칙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실존주의자들이 이상과 같은 몽매주의적 설교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날로 각성되고 있는 혁명적 의식을 무마하며 그들의 투쟁을 꺾으려 하려 하여도 력사의 합법칙적 과정, 그의 필연적 추세를 막지 못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남조선에서 오늘날 장성 강화되고 있는 인민들의 반미 반리 승만 기세의 앙양은 바로 실존주의자들을 비롯한 모든 부르죠아 반동 사상가들의 기도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그 어떤 힘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반인민적 정책에 의하여 빚어진 남조선의 참상은 엄연한 현실로써 남조선 인민들에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오직 미제와 리 승만 도당과 그들의 충복들에게만 외곡되여 반영될 수 있을 뿐이다.

실존주의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몽매주의를 설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에게 중세기적 멍에를 씌우기 위하여 파렴치하게도 《인도주의》를 들고 나오고 있다. 그들은 《진정한 인도주의》는 문명 이전의 야만 시기로 돌아 가야 하며 인간이 동물과 같이 아무런 지식도 가지지 않는 단순한 처지로 돌아 갈 때에 실현된다고 떠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특징》이 《정신적 일대 전환》에 있다고 떠벌리면서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성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자들이 말하는 《인도주의》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식인종적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주의》이다.

진정한 인도주의는 오직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폐절되고 착취 계급이 청산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현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향유할 수 없으며 인간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사랑과 존경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야말로 인도주의의 최고 형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본질을 음폐하기 위하여 《정치적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특권 계급 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에게 자기 구체적인 인격의 문화 생활에 알맞는 정도의 또 동시에 로동과 소유의 경제적 보장, 정치적 제 권리, 시민적 제덕(諸德) 및 교양을 균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1956년 5월 호, 《사상계》)고 떠벌리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에 가득찬 설교인가는 남조선의 현실이 여지 없이 반박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가혹한 략탈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기아 임금마저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온갖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어떻게 실존주의자들의 이상과 같은 주장이 실현되겠는가? 이러한 설교로써

는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할 수 없다.

실존주의자들은 《세계의 멸망》의 근원을 현대 과학 문화의 발달에서 찾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마치 과학이 인간 생활에 유해로운 것이라고 설교한다.

남조선의 어떤 반동 문필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과학과 기술과 기계가 이루어 놓은 현대의 거창한 물질 문명은 인간의 지성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하나의 거인이 되였다》(《사상계》 1956년 4호). 이것은 결국 현대 과학과 기술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라는 것이며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지성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거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에 굴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대 인류 생활이 과학과 기술의 기초 우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자들이 인간 생활로부터 과학과 기술을 제거하려는 목적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과학적 리론 즉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기초한 근로 대중의 목적 의식적 투쟁을 거세하려 하며 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하려는 것이며 다른 편으로는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근거를 삼아 보려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과학과 기술의 거창한 발전 앞에서 인간은 무조건 굴복하게 되였으며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현대 인류가 달성한 거대한 전취물인 과학과 기술 발전에서 다만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마와 같은 무서운 파괴적 힘, 전쟁 발발의 원인만을 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민 대중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려 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빈궁과 기아, 불행과 고통을 리용하여 도리여 유물론적 세계관을 반대하며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 막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실존주의자들은 자유와 행복 문제에 대하여도 괴상한 리론을 들고 나온다.

그들은 자유란 어떤 사람들에게나 다 생득적(生得的)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를 자각하여야만 자유를 실현할 수 있으며 그러한 《내'적 자유》는 온갖 의무와 도덕 규범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로부터 실존주의는 비관주의로부터 반도덕주의로 나가는바 이러한 황당한 자유의 리론은 오늘날 남조선에서 민족적 리익을 팔아 먹고 있는 리 승만 도당의 매국 행동을 비호하여 주며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옹호하여 줄 뿐이다.

이와 같이 실존주의는 자유를 현실적 사회적 제 관계 속에서 리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적이며 선천적인 자유, 부르죠아적 《의지의 자유》로서 리해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남조선 사회를 《자유 세계》, 《자유인의 사회》라고 떠벌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의 현실에서 무슨 《자유》가 보장되여 있는가? 미제 침략자들에게는 갖은 야수적인 살인 만행과 략탈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여 있다면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도 보장되지 못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에게는 오직 비인간적 착취와 억압을 당하며 기아와 빈궁에 떠는 자유, 죽음의 자유만이 있을 뿐이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적 자유》는 오직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모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에게 자기들의 절실한 생활상 리익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고 미제의 모든 비인간적 만행과 략탈에도 반항하지 말고 그에 굴종하는 노예로 될 것을 설교하는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도 실존주의자들은 순 주관적인 것으로 리해하고 있다. 금년 4월 호 남조선 잡지 《신태양》에 게재된 《현대인의 행복》이라는 글에서는 《행복은 인간의 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개인적인 것이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파렴치한 자는 행복을 동물적인 본능과 색정적인 순간적 쾌락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 자의 말에 의하면 《진정한 행복》이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게 되며 고민이 발생하는바 이 고민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까지는 없어지지 않으며 죽어야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자는 죽어야 진정한 행복이 도래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러나 《래세》에 가서 행복을 찾기 전에 현세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실존의 방법》 즉 육욕주의(肉慾主義), 쾌락주의라고 떠벌리고 있다.

이 자의 이러한 설교는 행복이란 인간 세상에는 없으며(남조선 사회도 포함하여) 행복을 찾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간적인 색정과 쾌락 속에서 찾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호소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며 부패 타락하고 말세기적인 남조선 사회를 유지하여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실존주의적 행복론》은 오늘날 남조선 사회에 만연되고 있으며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남조선의 반동 문학 작품들에서 이것이 광범히 선전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반동 작가들은 그들의 문학을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부르면서 행복이란 개인의 순간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사회적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떠벌리고 있으며 라타하고 음탕한 생활만이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음주 방탕, 살인 강도 및 색정주의를 주제로 한 소설과 영화들이 범람하고 있다.

실존주의는 그 자신을 종교와 공개적으로 련계시키고 있다. 야스페르스는 《존재 자체는 선험(혹은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선험적》인 것은 인간의 내재적 《자아》에 대하여 자기의 의지를 계시(啓示)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소위 《인간은 감각을 통하여 하느님과 련계한다》는 버클리의 론점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실존주의자들은 소위 인류의 파멸적인 운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믿어야 하며 《하느님의 위력》에 의거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그들은 순진한 청년 남녀들을 종교적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실존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연구하는 과학은 그것이 인간의 《실존》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체가 불안과 공포의 처지에 있으며 항상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고 설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실존주의는 죽음에 대한 공포, 종교의 독소로써 인민 대중의 건전한 사고력,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그들의 지향을 마비시키며 인민 대중을 타락과 비관, 몽매의 구렁텅에로 몰아 넣고 있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제와 리 승만의 충복들인 《죽음의 철학》의 지지자들은 말세기적인 남조선 사회를 합리화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여 일어 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 막으려 하며 리 승만 파쑈 통치 제도를 유지해 보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파탄되고야 말 것이다.

물론 《죽음의 철학》이 추구하는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리론은 아직 각성되지 못한 남조선의 일부 계층들 속에 부정적 독소를 뿌리면서 적지 않은 해독을 빚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즉 인민들의 반미 반리 승만 기세의 장성에 따라 그 진부하고 퇴폐적인 사상은 반드시 극복될 것이다.

이 퇴폐적인 사상은 오늘날 남조선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계층 속에서 더욱 더 배격을 받고 있으며 그를 반대하는 비판적 론조는 이모저모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죽음을 반대하자》, 《죽는다는 것은 약자가 하는 일》, 《…우민 정치는 생명이 길지 못한 법이다》 등등의 표현들과 남조선 사회의 말세기적 현상을 개탄하는 인민들과 민족적 량심을 가진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 가고 있다.

특히 우리 당의 지도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급속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찬란한 사회주의 건설에 고무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그러한 투쟁은 더욱 더 장성하고 있으며 실존주의를 비롯한 각종 부르죠아 반동 사상 조류들은 더욱 더 배격을 받고 있다.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를 앞두고 얼마 전에 발표된 1959—1965년 쏘련 인민 경제 발전 통제 수'자에 관한 흐루쑈브 동지의 보고 요강은 오늘날 쏘련 인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민들을 크게 격동시키는 거대한 력사적 문헌이다.

이 보고 요강은 쏘련 인민이 앞으로 도달하게 될 휘황한 생활의 전경, 새로운 웅대한 전망을 보여 주는 위대한 강령적 문헌이며 쏘련에서의 공산주의 건설이 새로운 력사적 시기, 즉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전면적으로 축성하는 결정적 단계에 들어서는 명확한 리정표로 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짧은 력사적 기간에 인구 1인당 생산량에서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 잡으며 앞설 데 대한 쏘련의 기본 경제 과업 수행에서의 새로운 질적 비약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세계적 규모에서의 두 체계간의 평화적인 경제적 경쟁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전면적, 결정적으로 압도하는 새로운 중요한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 요강은 쏘련 인민들은 물론 우리 나라를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과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새로운 확신, 고무적 힘을 주며 반면에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 넣고 있다.

＊　＊

쏘련의 새로운 7개년 계획은 그 규모에 있어서 실로 전례 없는 방대한 계획이다. 이것은 쏘련 인민이 공산당의 현명한 지도하에 장기간의 투쟁 속에서 달성한 쏘련 인민 경제의 비약적 전진에 대한 명확한 실증으로 된다.

보고 요강에 의하면 7개년 계획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대한 레닌적 로선에 확고히 기초하여 전체 인민 경제를 가일층 강력히 발전시키며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더욱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현저히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7개년 계획은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템포와 필요한 균형을 보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7개년 동안에 쏘련의 공업 총 생산량은 80%, 그 중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85—88%, 소비재 생산은 62—65% 장성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장성 템포는 오늘날 쏘련에서의 공업 생산 장성의 매 1%가 1백억 두블리를 훨씬 넘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높은 장성 템포인 것이다.

쏘련은 지난 시기의 매개 5개년 계획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높은 장성 비률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대표하는 절대량은 해마다 높았다. 례컨대 지난 7년 간의 공업 총 생산액의 장성이 년 평균 약 9백억 루블리였다면 앞으로 7년 간의 공업 총 생산액의 장성은 년 평균 1천 3백 50억 루블리에 달한다. 인민 경제 각 부문간의 발전 템포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보장할 것이다.

* 7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매 년간의 공업 총 생산량의 장성은 년 평균 8.6%, 그 중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9.3%, 소비재 생산은 7.3%이다.

7개년 계획은 또한 쏘련의 기본 경제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인민 경제의 관건적 생산 부문의 발전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킬 것을 예견하면서 흑색 및 유색 금속 생산의 현저한 증가, 화학 공업의 가속적 발전, 원유와 가스의 채취 및 그 생산의 우선적 발전에 의한 연료 발란스 구조의 변경, 주로 대규모의 화력 발전소 건설에 의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전기화의 급속한 발전, 철도 운수의 기술적 개건, 농업 및 주택 건설의 급속한 앙양 등을 예견하고 있다.

통제 수'자에 의하면 1965년에 선철은 1958년보다 65—77% 더 많은 6천 5백만—7천만 톤, 강철은 56—65% 더 많은 8천 6백만—9천 1백만 톤, 압연 강재는 52—64% 더 많은 6천 5백만—7천만 톤을 생산할 것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것은 실로 가속도적 발전을 의미한다.

례컨대 1958년의 강철 생산량이 5천 5백만 톤이라면 7개년 동안의 그의 증가량은 무려 3천 1백만—3천 6백만 톤으로 되는바 여기에서 그 증가량만 하여도 1951년 또는 1952년도 강철 생산량과 대등한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철 생산을 위하여 앞으로 7개년 동안에 쏘련에서는 30 여 개의 큰 용광로 건설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는 세계 최대의 2천 2백 립방메터의 용량을 가지는 대형 용광로 건설도 예견되고 있다.

7개년 동안에 쏘련의 화학 공업은 그 총 생산량에서 3배 이상으로 장성할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합성 섬유의 생산은 12—14배로 증대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7년 간에 140개 이상의 대규모적 화학 공업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 또는 완공되며 130개 이상의 공장이 개건된다.

7년 동안에 쏘련의 석유 생산량은 1958년의 1억 1천 3백만 톤으로부터 1965년에는 2억 3천만—2억 4천만 톤으로 장성하게 될 것이며 그의 증가량은 1억 1천 7백만—1억 2천 7백만 톤으로 된다. 이것은 1945—1949년 간의 쏘련의 석유 총 생산량과 대등한 것이다.

7년 동안에 전력 생산량은 1958년의 2천 330억 키로와트시로부터 1965년에는 5천억—5천 2백억 키로와트시로 장성할 것이며 그의 증가량만 하여도 2천 6백 70억—2천 8백 70억 키로와트시, 즉 1958년에 비하여 2—2.2배로 된다. 이 기간은 쏘련에서의 전면적인 전기화에 관한 레닌의 사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로 될 것이다.

7개년 계획 기간에 경공업 총 생산량은 약 1.5배, 생활 필수품 생산은 2배로 장성할 것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 앞으로 7년 동안에 156개의 새로운 대형 경공업 기업소들이 건설될 것이며 1959년 전으로 착공되는 114개의 기업소들의 건설이 완공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매월 3—4개의 대규모적인 경공업 기업소들이 건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개년 동안에 쏘련의 농촌 경리는 현저하게 발전한다. 1965년에 가서 농업 총 생산량은 총체적으로 1958년에 비하여 약 1.7배로 증가할 것이다. 그 중 알곡 수확고는 7개년 계획 말에 가서 년산 100억—110억 뿌드에 달하게 되는바 이것은 2억 인구에 평균 매인당 약 900 키로그람의 곡물이 차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5년에 가서 목화 생산은 570만—610만 톤으로 즉 1957년보다 35—45% 증가될 것이며 사탕무우는 7천만—7천 8백만 톤으로 즉 1957년의 1.8—2배로 증가될 것이다.

농경지 1백 헥터당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현 시기 미국에서의 농경지 1백 헥터당 주요 농산물 생산을 릉가할 것이다. 또한 7개년 간에 농촌 경리는 더욱 더 선진 기술로 장비될 것이며 그의 기계화, 전기화가 백방으로 확장될 것이다.

7개년 계획은 또한 쏘련 각 지역의 생산력 배치를 개선하며 원료, 연료 산지와 소비지에 공업 기지를 접근시키며 큰 경제 구역의 종합화와 전문화를 예견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쏘련의 동부 지구 즉 우랄과 씨비리, 원동, 까자흐쓰딴 및 중앙 아세아 등을 포괄하는 지구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될 겼

제적 우월성과 그의 영향력을 비상히 증대시킬 것이다.

이와 반면에 그때에 가서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영향력이 더욱 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때에 가서는 세계의 력량 관계가 사회주의에 더욱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력 장성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과 식민주의와 자기 나라의 민족적 및 경제적 자립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헐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고무적 힘을 줄 것이다. 왜냐 하면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 장성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승리적 투쟁의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7개년 계획의 실현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경제력과 국방력, 그의 통일 단결을 가일층 강화할 것이며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립장을 훨씬 강화할 것이며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앞길에 새로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조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와 그 주구들은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새로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특히 걷잡을 수 없는 경제 공황의 심연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또 자기들이 처한 첨예한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광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쏘련의 7개년 계획은 더욱 더 그들 속에서 커다란 불안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쏘련의 새로운 7개년 계획의 의의를 말살하려고 각종 허위를 퍼뜨리며 세계 인민들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기도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쏘련의 새로운 7개년 계획의 의의에 대해서는 미국 자체내에서까지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심지어 쏘련을 적대하고 있는 자들도 감히 이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반동 신문 《뉴욕 타임스》지는 《쏘련에서 급격히 향상되는 생활 수준은 공산주의 제도의 정치적 견인력을 무한히 증대시킬 것》이라고 썼으며 영국 신문 《레이놀즈 뉴스》는 쏘련은 《서부 렬강보다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7년내로 일련의 결정적인 사변들과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며 전 세계에서 력량 관계는 완전히 변경될 것》이라고 비명을 올렸다.

이러한 형편에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온갖 기도는 산산이 분쇄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더욱 더 그들을 난처한 처지에 몰아 넣을 것이다.

오늘 쏘련 인민은 공산당이 제시한 7개년 계획의 통제 수'자에 관한 흐루쑈브 동지의 보고 요강을 광범히 토의하면서 그 계획의 실현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쏘련 인민들의 이러한 결의와 그들의 자각적 열성은 이 계획의 실현을 반드시 촉진시킬 것이다. 특히 이에 있어서 최근 년간 쏘련 공산당이 취한 일련의 력사적 조치들, 즉 그 중에서도 공업 및 건설 관리 조직의 개편, 꼴호즈 제도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농기계 뜨락또르 임경소를 개편할 데 대한 조치들은 더욱 더 거대한 경제적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계획의 실현 여부를 의심하는 자는 과거 쏘련의 제 1차 5개년 계획의 실현을 의심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처럼 오직 자기의 우매성을 폭로할 뿐일 것이다.

학교와 실생활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 교육 체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하여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및 쏘련 내각의 테제—

1. 쏘베트 국가는 일대 앙양기에 처해 있다. 국가의 경제는 급격한 템포로 발전되고 있으며 과학과 문화는 전례 없이 개화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복리는 부단히 향상되고 있다. 경제 및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생활의 진정한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인 쏘베트 인민은, 자기의 당당한 긍지로 되며 지구상 전 지역의 평화와 사회주의의 수백만 벗들의 심장에 기쁨과 희망을 안겨 주며 로동 계급의 적들을 공포와 우울에 잠기게 하는 그러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쏘베트 인민은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의 현명한 대내외 정책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력사적인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의 기간에 쏘베트 사회는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점차 이행하는 도상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진을 하였다. 이것은 공산주의 건설 템포에 있어서 일대 촉진을 가져 온 시기이며 나라의 정치 생활에서와 경제 및 문화 활동에서 근로자들의 창발성이 광범히 발전된 시기이다. 위대한 레닌의 유언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당은 자기의 주위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더욱 굳게 결속시켰다.

쏘베트 국가는 새로운 거대한 과업의 해결에 직면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는 1959—1965년 인민 경제 발전의 통제 수'자를 심의하며 승인할 것이다. 7개년 계획은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강령으로 될 것이며 그의 완수는 쏘베트 국가를 보다 부강한 국가로 되게 할 것이며 사회주의 체계가 자본주의 체계와의 평화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쏘베트 인민은 예견된 계획을 실현할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2. 창조적 계획들을 실현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쏘베트 사람들이다.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성, 로동에 대한 의지, 공산당의 위대한 설계를 생활에 구현하는 능력——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초이다. 쏘베트 국가에서 인민적 재능의 원천은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수백만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이 쏘베트 사회의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일'군들의 대렬에 들어 서고 있다. 웨. 이. 레닌은 새 세대의 교양 및 교육 그리고 경제, 과학 및 문화의 모든 분야를 위한 유능한 인재의 양성은 항상 공산당과 쏘베트 국가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쏘베트 학교는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수백만의 지식 있고 문화성 높은 공민들을 양성하였다. 쏘베트 학교는 인공 지구 위성, 원자력 발전소, 원자 쇄빙선, 고속도 분사식 려객기와 같은 그러한 력사적인 과

학—기술적 승리에서 자기들의 탐구심과 창조적 로력을 구현한 특출한 학자, 기사, 설계가들인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쏘베트 사람들은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고만 있지 않는다. 생활은 학교 앞에 새로운 과업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보통 교육 학교와 고등 학교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로부터 뒤떨어지고 있으며 심대한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 실생활로부터 일정하게 유리되고 있는 점이다. 공산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인민 교육 체계의 이러한 결함은 더우기나 참을 수 없다.

엔. 에쓰. 호루쑈브는 공청 제 13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개 남녀 청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로동에 대한 자체 준비를 하며 인간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가치물을 창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매개 청년들에게는 그의 부모의 지위와는 관계 없이 하나의 길 즉 배우며, 배우고 나서는 일하여야 하는 길만이 있어야 한다》.

중등 및 고등 학교들이 쏘베트 인민의 모든 창조적 활동에서 보다 큰 적극적인 역할을 놀 수 있도록 인민 교육을 개편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편 방도는 《학교와 실생활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 교육 체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엔. 에쓰. 호루쑈브 동지의 비망기에 지적되여 있다. 비망기에 서술된 제의들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의 찬동을 받았으며 학교의 개편을 성숙된 과업으로 인정하는 쏘베트 사회계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학교와 공산주의 건설

3. 사회의 공산주의적 개조는 정신적 부, 도덕적 순결성, 육체적 완성이 조화롭게 결합되여 있는 새로운 인간의 교양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래일의 공산주의 사회의 인간은 착취 제도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것들 즉 사'적 소유자적 리기주의, 타인의 로동에 의하여 살려고 하는 경향, 소시민 근성, 개인주의 등등으로부터 해방된다.

낡은 사회의 주요한 결함들 중 하나는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간의 분리였다. 육체 로동으로부터 정신 로동의 분리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출현과 사회의 적대적 계급들에로의 분화와 함께 일어났다. 자본주의의 모순의 증대는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간의 대립을 더욱 심각화하였다. 맑스주의 학설은, 마치도 한편에는 복종하며 힘든 육체 로동을 해야할 운명을 지닌 몽매한 대중이 영원히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는 선천적으로 과학, 문학, 예술을 사색하며 관리하며 발전시킬 사명을 지닌 소수의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한듯이 떠들어대는 부르죠아 전설을 일소해 버렸다. 쏘련의 경험, 중국 인민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경험은 착취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이 인종적, 민족적 및 기타의 차이와는 관계 없이 압박자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훌륭하게 국가를 관리하며 경제, 과학, 문학, 예술을 전례 없는 템포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보여 주었다.

4. 육체 로동으로부터 정신 로동이 분리되고 정신적 활동이 지배 계급의 독점물로 된 것은 인류의 지'적 발전에 거대한 손실을 끼쳤다. 수백년 동안 문화는 수백만의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단의 열매로 되여 있었다. 수백년 동안 낡은 사회에서의 학교는 실지에 있어서 광범한 근로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여 있었으며 착취자들의 리익에만 복무하였다. 육체 로동과 정신 로동의 본질적 차이가 점차 소멸되고 있으며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의 통일이 확립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광범한 근로 대중의 생산 활동 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동의 전면적 발전이 크게 촉진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학교를 그것이 인민에게 복무하며 근로자들에게 지식을 부여

하며 일체 인민적 재능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조직하고 있다. 쏘베트 학교는 자라나는 후대를 가장 선진적 사상, 공산주의 사상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청년들에게 세계에 대한 진정으로 과학적인 인식의 기초로 되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형성케 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장성을 위한, 그리고 개성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무제한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세계 문화의 모든 성과가 대중의 재산으로 된다.

5. 자본주의하에서는 고통스러운 부역으로 되여 있는 로동이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으로 인하여 매개 사람들의 영예로운 일, 공민적 의무로 전환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는 《각자는 자기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그의 로동에 따라》라는 원칙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원칙 즉 《각자는 자기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그의 요구에 따라》라는 원칙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공산주의하에서 태만과 무의도식이 지배하는 귀족 생활이 있게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래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재미 있고, 창조적이며, 로력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이 있게 된다. 로동은 인간의 제 1차적인 생활상 요구로 될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은 과학,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및 기타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맑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이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면서도 사람들의 모든 자유 시간을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썼다.

맑스의 이 위대한 예견은 실생활에서 구현되고 있다. 쏘베트 사회의 생산력은 로동 시간의 단축과 자유 시간의 연장이 당면한 문제로 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쏘련에서는 7시간 로동제로, 그리고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6시간 로동제로의 이행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생산력의 가일층의 장성 그리고 쏘련의 사회적 부의 증대와 함께 일'군들의 자유 시간이 보다 더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매 쏘베트 인간이 자기의 로동을 학습과 결합시키며 자기의 시야의 확대와 련결시키며 그리고 우리가 공산주의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더욱 빨리 장성하는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결합시킬 가능성들을 보다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는 우선 자본주의에 비하여 보다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의미한다는 레닌적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자들은 산업과 농촌 경리에 가장 생산적인 방법,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성과를 도입하여야 한다.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및 화학화의 급속한 발전, 전자 공학과 계산 장치의 광범한 적용, 전기화의 전면적 발전 및 기타 능률 높은 생산 방법들은 로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고 있다. 로동자들과 꼴호즈원들의 로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기사, 기수, 농업 기사 및 농촌 경리의 기타 전문가들의 로동에 더욱 접근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로동자들에게 완성된 기대, 측정 및 검사용 정밀 계기와 장치들을 다루는 기능과 복잡한 기술적 계산과 도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이리하여 쏘련의 기술—경제적 발전의 가까운 전망과 원대한 전망은 우리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 그들에게는 각 방면의 교육이 절실한 요구로 되여 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의 자동화가 실현되여 육체 로동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물론 거대한 기술적 전진은 육체 로동을 비할 바 없이 쉽게 할 것이며 인간을 피로케 하는 많은 직종들이 없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조화된 발전은 신체를 튼튼케 하며 그의 생활 능력을 높여 주는 창조적이며 즐거운 육체 로동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칼 맑스는 《본래 머리와 팔이 동일한 신체에 속하는 것처럼 로동 과정에서도 머리와 팔의 로동이 결합된다》고 썼다. 공산주의 사회 건설자들의 새로운 세대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참가하면서

힘에 알맞는 가장 다양한 형태의 육체 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6.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에 관한 사상은 벌써 오래 전부터 인류의 선진적 지혜를 끌었다. 일찌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인 캄빠넬라, 프리에, 오웬과 로씨야의 위대한 혁명적 민주주의자 체르늬쉡쓰끼는 미래의 사회를 그리면서 사회주의하에서의 교육은 생산 로동과 밀접히 련결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사상가들인 맑스, 엥겔스, 레닌은 교육과 생산 로동과의 결합의 사상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의 실제적 지반으로 삼았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청년들의 기본 생산 기술 교육과 유기적으로 련결시켰다. 맑스는 일정한 년령의 아동의 교육에서는 생산 로동을 교수 및 체조와 결합시켜야 한다고 썼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을 제고하는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을 양성하는 유일한 방법으로도 될 것이다》. 엥겔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로동과 교양이 결합될 것이며 그리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과학적 교양을 위한 실천적 토대로서의 다방면적인 기술 교육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레닌은 일찌기 10월 혁명 이전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에 기초한 청소년들의 교육을 예견하였다.

7. 쏘베트 학교의 경험은 맑스, 엥겔스, 레닌의 과학적인 견해를 확증해 주고 있다. 웨. 이. 레닌은 공청 제 3차 대회에서 한 력사적 연설에서, 자라나는 세대는 자기의 학습, 교양 및 교육의 매 걸음을 낡은 착취 사회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키면서 공산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해설하였다. 청년들은 학교에만 들어 박혀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학습과 지식을 로동자, 농민들의 로동과 결합시켜야 한다. 《오직 로동자 및 농민들과의 로동을 통해서만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웨. 이. 레닌은 지적하였다. 이 명제를 구체화하면서 그는 청년들이 자기 학습을 로동과 련결시키며 전기화의 기초 우에서 공업과 농업을 개건하기 위한 투쟁과 련결시키며 인민의 문화 및 계몽을 위한 투쟁과 련결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교육과 생산 로동과의 결합 원칙은 공산당의 중요 문헌들에 정식화되여 있다.

8. 쏘련에서는 진정한 문화 혁명이 수행되였다. 쏘베트 학교는 이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놀았으며 우리 다민족 조국의 모든 인민들의 문화 수준 제고를 촉진시켰다. 지금 쏘련에는 짜리 로씨야에 있었던 것과 같은 락후한 민족 《변강》이 없다. 쏘베트 나라의 모든 인민들은 모국어로 교육을 받는 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과 문화의 원천에 접근할 광활한 길이 열려져 있다. 문맹이 퇴치되였고 전반적 7년제 의무 교육이 실현되였으며 중등 및 고등 교육의 커다란 발천을 보았다. 현재 쏘련에서는 5천만 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다.

만약 1914년에 혁명전 로씨야의 초등 및 중등 학교들에서는 도합 965만 명이 공부하였다면 1957—1958학년도에 우리 나라의 일반 교육 학교 학생 수는 2,870만 명에 달하며 성인 학교까지 포함하면 3,060만 명에 달한다. 이 기간에 중학교 고급반 학생 수는 40배로 증가되였다. 1958년 한 해 동안에 중등 일반 교육 학교와 로동 및 농촌 청년 학교들은 160만 명의 남녀 청년들을 졸업시켰다.

특히 과거에는 거의 전체 주민이 문맹이였던 가맹 공화국들에서의 인민 교육의 성과는 거대하다. 례를 들어 1914년에 지금의 우즈베끼스딴 령토에는 1만 7,000명을 약간 넘는 학생이 있었다면 지금 우즈베크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134만 여 명이 공부하고 있다.

국내의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는 현재 40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1913년에는 그 수가 18만 2,000명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쏘련의 대학생 수는 영국, 불란서, 독일 련방 공화국, 이태리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학생 수를 합한 것보다 거의 4배나

더 많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총 인구는 2억 즉 거의 쏘련의 인구에 대등하다. 1913년에는 고등 및 중등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20만 이하였다면 지금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약 750만의 그러한 전문가들이 사업하고 있다.

쏘련은 과학과 기술 발전에서 세계의 첫 자리의 하나에 올라 섰고 전문가 양성의 규모와 질에서는 모든 나라들을 릉가하였다.

쏘련의 첫 인공 지구 위성이 우주 공간에 튀여 나왔을 때 자본주의 세계의 건전하고 사려 있는 많은 사람들은 쏘련의 과학과 기술이 찬란한 승리를 획득하게 된 첫째 원인이 쏘련에서의 중등 및 고등 교육의 거대한 발전과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불안에 휩싸인 미국 출판물들은, 자기 나라의 학교에 비하여 쏘련의 중학교들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연구에 많은 시간과 주의가 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지배적 지위를 탐내면서 자만하고 있던 미국 지배층이 이제 와서는 미국은 전문 간부 양성에서 쏘련을 따라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성과이다.

쏘베트 사회에서는 자기의 모든 지식과 힘, 능력과 재능을 공산주의 건설에 바치는 훌륭한 젊은 세대가 육성되여 있다. 쏘베트 청년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은 제 1차 5개년 계획 시기의 사회주의 건설의 로력 전선에서,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황무지 및 처녀지 개간의 영웅적 사업에서, 대규모적 발전소, 탄광, 용광로의 건설에서, 우리 나라의 동부와 북부의 새 공업 중심지의 건설에서, 그리고 오늘의 많은 기타 로력적 위훈들에서 력력히 나타났다.

9. 공산주의 사회 건설 과정에서의 생산력의 전진적 발전, 사회주의적 사회 관계의 완성, 쏘베트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발전은 우리 청년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 교양할 새로운 과업들을 내세우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한다.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는 우리 학교의 커다란 결함으로서 교육이 실생활로부터 어느 정도 유리되였으며 학교 졸업생들이 실천적 활동에 불원만하게 준비되여 있는 것들을 지적하였다. 대회에서 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보고에 씌여 있는 바와 같이 《학교와 실생활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기술과 생산의 제 문제에 관한 기본 지식을 교수하는 새로운 과목들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업소, 꼴호즈 및 쏩호즈, 시험 농장과 학교 실습장들에서의 로동에 체계적으로 참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년제 학교를 졸업하는 남녀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일반 교육을 잘 받는 동시에 실지 사업에 대한 준비를 갖출 수 있게끔 생산적 전문화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학교 교수 요강을 개편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졸업생의 많은 부분이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즉시 로동에 착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회후 학교를 실생활에 접근시킬 데 대한 약간의 사업이 실시되였다. 물론 로련, 우크라이나 및 기타 가맹 공화국들의 일련의 학교들이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이미 축적한 첫 경험은 가치 있고 전망성 있는 것이다.

례를 들어 쓰따브로뽈리 변강에서는 꼴호즈들에 학생 브리가다를 조직하는 훌륭한 발기가 있었다. 브리가다들은 8—9학년생들로써 편성된다. 꼴호즈들은 이러한 브리가다들에 농경지를 떼여 맡긴다. 학생들은 자기 력량에 따라 로동에 대한 학교 교수 요강에 합당하게 농업의 종합적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들은 학교 교수 요강들에 지장을 줌이 없이 실시된다. 겨울과 봄에는 일정한 작업 시간이 배정되며 여름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꼴호즈 작업에 종사한다. 남녀 청년들은 로동에서 교양되며 규률에 습관되며 농사에서는 훌륭한 농수가 되게끔 준비된다.

교수를 생산 및 로동과 결합시키고 있는 일련의 학교들의 경험을 심중히 연구하는 것은 인민 교육의 개편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중등 및 고등 학교들에서는 사태가 실지에 있어서 거의 변함이 없으며 학교와 실생활과의 련계는 종전과 같이 아주 불원만하다.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와 쏘련 내각은 학교와 실생활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나라의 인민 교육 체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학교와 실생활과의 련계를 강화할 데 대한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비망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학교 교육 체계를 결정적으로 개편하여야 하며 또한 전체 아동들은 유익한 로동에서 준비되여야 하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참가하도록 준비되여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며 이 구호가 학교에 입학하는 전체 아동들에게 신성한 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소 혹은 꼴호즈, 공업 기업소, 쏩호즈, 엠떼에쓰, 기계 수리소 혹은 기관들에서의 온갖 로동, 사회적으로 유익한 성실한 로동은 사회의 부를 리용하여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로동이며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 사는 매 개인은 자기의 로동으로써 그 사회의 건설과 가일층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생활과 유익한 로동에 준비시키는 것, 우리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사회의 원칙들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배양하는 것——이 과업은 우리 학교의 주요 과업으로 되여야 한다》.

쏘베트 학교는 기본 과학 지식을 잘 앎과 동시에 체계적인 육체 로동을 할 수 있는 전면적으로 교양된 인간을 육성해야 하며 청년들 속에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되려는 지향, 사회에 필수적인 가치물들을 생산함에 적극 참가하려는 지향을 배양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중학교에 대하여

10. 쏘련에 현존하는 인민 교육 체계는 20여년 전에 형성되였다. 30년대에 즉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건기에 있어서 학교 앞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훌륭히 소유한 유식한 사람들을 육성할 과업이 제기되였었다. 당시 학교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일반 교육을 보장해 주는 데 주되는 주의를 돌렸다. 이것은 청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면성과 약간의 추상성, 학교와 실생활과의 유리를 가져 왔는바 이러한 현상은 교양 사업에서도 커다란 결함을 초래하게 하였다. 학교는 주로 말로하는 교양 방법에 그치고 아동들과 청년들을 그들의 힘에 알맞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로동에 인입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 결과에 중학교를 졸업한 많은 남녀 청년들은 오직 대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등 전문 학교에서라도 교육을 계속 받는 것만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접수될 수 있는 삶의 길로 된다고 인정하며 제조소, 공장, 꼴호즈, 쏩호즈들로는 마지 못해 나가며 그들의 일부는 육체 로동을 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중등 교육의 부단한 확장은 자연히 대다수 청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졸업한 후 직접 생산 로동에 나서게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술의 진보는 공업과 농업 부문에 높은 일반 교육을 충분히 받은 청년들을 보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들은 현 조건하에서 통신 및 야간 교육도 포함하여 1년에 대략 45만 명의 학생들을 받아 들이고 있다. 1954년부터 1957년에 이르는 기간에 중학교 졸업생들 중 250만 명 이상이 대학 및 전문 학교들에 진학할 수 없었다. 중학교의 교수 요강이 실생활과 유리되여 있음으로 하여 많은 남녀 청년들은 로동에 익숙치 못하며 생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바, 이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 커다란 곤난을 조성하며 많은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불만을 사게 한다.

이 모든 것은 학교 사업을 개편할 데 대한 긴절한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11. 학교 개편의 과업을 옳게 해결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우선 일정한 년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로동에 참가하도록 하며 그들이 배운 기본 과학 지식이 공업 및 농업의 생산 로동과 결부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로부터 로동과 교수를 아동 및 청년들의 정상적인 육체적 발전 및 휴식과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데 기초한 중학교에서의 일반적인 기본 생산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간의 옳은 상호 관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흘러 나오는 것이다.

이렇듯 교수의 내용, 조직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학교에서의 과학의 기본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원칙은 교수 사업이 실생활 및 생산과 그리고 또한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과 긴밀히 결부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 1학년 때부터 아동들이 장차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과 로동에 반드시 참가하도록 그들을 심리적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교수 사업을 실생활 및 힘에 알맞는 로동과 결부시키는 데 기초한 자라나는 후대들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의 조직은 학생들의 년령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5—16세부터 우리 나라의 전체 청년들이 사회주의적으로 유익한 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중등 교육을 두 계단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12. 중등 교육의 첫째 계단은 현존하는 7년제 학교 대신에 창설하게 되는 의무적인 8년제 학교로 되여야 한다. 의무적인 8년제 학교는 7년제 학교보다 인민 교육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진일보로 된다. 풍부한 일반 교육 지식을 소유하며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참가하는 데 심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보다 훌륭히 준비된 소년, 소녀들이 8학년제 학교를 졸업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는 공산주의 교양과 로동 및 기본 생산 기술 교육의 제 과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보다 광범한 지식을 보장하며 7년제 학교의 과중한 학과 부담을 제거할 것이며 그리하여 아동들의 신체 단련과 그들에게 훌륭한 예술적 취미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조직할 가능성을 줄 것이다. 소녀들——8년제 학교 녀학생들을 로동에 준비시킴에 있어서는 녀성 로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여야 한다.

교수 교양 사업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로동을 소개하며 그들이 자기의 취미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앞날의 직업을 자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방조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8년제 학교는 불완전한 중등, 일반 교육, 로동, 기본 생산 기술 학교이다. 자그마한 주민 지점들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 초등 학교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학교들을 졸업한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의 5학년에 진학하게 된다.

8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전체 청년들은 기업소, 꼴호즈 등등의 사회적으로 유익한 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모든 공민들에게는 로동과 교육에 있어서의 보다 평등한 조건들이 조성되게 되는바, 이것은 청년들을 로동 계급과 꼴호즈 농민들의 영웅적 전통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된다.

13. 둘째 교육 계단에 가서 청년들은 완전한 중등 교육을 받게 된다. 교수와 생산 로동과의 결합에 기초한 중등 교육의 완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다.

첫째 기본 방향. 8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생산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사전에 초보적인 전문 지식을 소유한 후에 생산에 종사하면서 로동 청년 학교 또는 농촌 청년 학교에서 배운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완전한 중등 교육을 부여하며 그들의 직업적 자질 향상을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 방향은 8년제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

생산 교육을 실시하는 중등, 일반 교육, 로동, 기본 생산 기술 학교들(직공 학교 및 농업 학교 류형의 학교)에서 교육할 것을 예견한다. 이 학교는 가까운 산업 기업소, 꼴호즈, 쏩호즈, 기계 수리소 등등을 토대로 하여 교수와 생산 로동과의 련계를 실현하며 학생들에게 완전한 중등 교육과 인민 경제의 어느 한 부문에서 또는 문화 부문에서 사업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부여하게 된다.

세째 방향은 일부 청년들을 8년제 학교를 토대로한 전문 학교들에서 교육할 것을 예견한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완전한 중등 교육과 로동 전문 직업과 중등 기술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칭호를 받게 된다.

새로운 인민 교육 체계는 매개 남녀 청년들로 하여금 실생활에 보다 훌륭히 준비되며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며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완성된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14. 로동 청년 학교 및 농촌 청년 학교는 생산에서 또한 기관들에서 일하는 남녀 청년들로 하여금 중등 교육을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학교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들은 교대별 학교, 야간 학교, 계절 학교(농촌 지대에서) 및 통신 학교로 될 수 있다. 일하는 청년들을 이런 학교에 망라하며, 그들의 정상적인 학업과 교수의 질의 결정적 개선을 보장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에 종사하면서 성과적으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1주일에 2—3일 간 생산 작업에서 해방시키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완전한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을 완전히 소유하며 심화할 가능성이 조성되여야 한다. 로동 청년 학교 및 농촌 청년 학교의 수업 년한은 3년으로 되여야 한다. 일하는 청년들이 중등 교육을 받도록 백방으로 자극하며 중학교 검정 시험을 치르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젊은 로동자 및 꼴호즈원들의 로동 급수와 직위를 올림에 있어서는 그들의 학교 성적과 사회—생산 활동에서의 긍정적인 평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일하는 청년들이 7년제 교육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로동 청년 및 농촌 청년 학교들은 아직 당분간은 3학년부터의 모든 학년을 보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성인 교육반도 조직된다.

로동 청년 학교 및 농촌 청년 학교 졸업생들은 중학 졸업 자격과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가지게 된다.

15. 생산 교육을 실시하는 중등, 일반 교육, 로동, 기본 생산 기술 학교들(직공 학교 및 농업 학교 류형)은 수업 년한을 3년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 지대들에 창설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일반 교육, 기본 생산 기술 교육 및 직업 교육이 배합된다. 생산 교육에서의 리론과 실천의 호상 관계와 그리고 교수 기간과 로동 기간의 교체는 학생들의 전문 교육 부분과 지방 조건에 따라 설정된다. 농촌 학교들은 학년도를 농사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생산 교육과 사회적 유익 로동은 기업소의 실습 쩨흐 및 생산 쩨흐들에서, 꼴호즈와 쏩호즈의 학생 브리가다들에서, 실습 농장, 학교 생산 공작실과 몇 개 학교들의 련합 생산 공작실들에서 진행될 수 있다.

중등 일반 교육, 로동, 기본 생산 기술 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 졸업증과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직업별로 기능 등급 증명서를 받게 되며 대학 입학 자격을 가지게 된다. 중학교는 8년제 학교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창설될 수도 있으며 그와 병설될 수도 있다.

16. 쏘련에는 자라나는 후대들에 대한 교육 및 공산주의 교양을 위해 가장 훌륭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새 형의 교육 교양 기관인 기숙 학교가 설립되였으며 더욱 더 발전되여 가고 있다. 중등 교육 체계의 개편에 적응하여 기숙 학교들을 지방 실정에 따라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또는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조직할 수 있다. 이 학교들은 8년제 학교와 생산 교육을 실시하는 중등 로동 기본 생산 기술 학교의 과정안과 교수 요강들에 근거하여 사업하여야 한다. 기숙 학교들은 교수와 생산 로동을 그야말로 능숙하게 결합시킴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17. 우에서 지적한 중등 교육의 둘째 계단의 학교들 외에 음악, 무용 및 조형 예술 부문에 극히 재능 있는 아동들을 위한 학교들을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학교들에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타 지방의 아동들과 다자녀 가정들의 아동들을 위한 기숙사들이 설치된다.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학부형들의 부양비 부담은 기숙 학교에서와 동일한 원칙에서 규정되여야 한다.

예술 부문에 극히 재능 있는 아동들과 청년들을 위한 학교는 그들에게 일반 중등 교육, 로동 교양을 실시하며 이러저러한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교육한다. 이 학교 학생들은 졸업후 직접 해당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학교와 인민 교육 기관들은 예술 부문이나 수학, 물리, 생물 및 기타 과학 분야에서 전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질을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대학들과 기타 제반 학교들에서는 크루쇼크, 스타지오, 특별 강연실들을 광범히 조직하며 소년 수학자, 물리학자 및 화학자, 자연 및 기술 애호자 등의 조직체를 만들며 어린 수재들을 발견해 내고 그들을 세심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에 특출한 취미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특별 학교를 창설할 데 대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가 조직된다면 여기에는 학교 평의회의 추천을 받고 시험에 합격된 그러한 청년 남녀들을 받아 들이게 될 것은 물론이다.

18. 중등 교육의 둘째 계단의 학교들은 현재 10년제 학교들을 위하여 설정된 일반 교육, 기술 교육 수준을 제고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 물리, 수학, 화학, 제도(製圖) 및 생물 교수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국내의 전체 학교들에서 외국어 학습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여야 한다. 일련의 과목들을 외국어로 교수하는 학교망을 확장하여야 한다.

학교 개편의 결과에 학생들의 공산주의적 세계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인문 교육이 축소되거나 약화되여서는 결코 안 된다.

학생들에 대한 육체적 및 미적 교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극복되여야 한다. 기술, 예술, 자연 연구 사업, 체육, 스포츠, 관광 려행 분야에서 청년들의 각종 형태의 자립적 활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학교 교육의 개편은 교수의 내용 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을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의 직관성을 제고하며 영화, 텔레비죤 등등을 광범히 리용하며 과학 및 생산의 기본을 교수함에 있어서 추상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기술적 창의 고안, 학생들의 새로운 기구 및 모형, 기술적 구조물 제작 사업, 농사 시험 등을 광범히 발전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19. 쏘베트 학교들에서는 모국어에 의한 교수가 실시되였다. 이것은 레닌적 민족 정책의 중요한 전취물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가맹 공화국 및 자치 공화국 학교들에서는 민족간의 교제를 진행하며 쏘련의 제 인민간의 친선을 강화하며 그리고 그들을 로씨야 및 세계의 문화재에 접촉시킴에 있어서 강유력한 수단으로 되는 로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러나 가맹 공화국들과 자치 공화국들에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아동들의 과중한 부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실 민족 학교들에서는 아동들이 세 가지 언어——모국어, 로어 그리고 어느 한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

학부형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어느 언어로 교수하는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할 데 대한 문제를 연구해야 하겠다.

만약 아동이 어느 한 가맹 공화국 또는 자치 공화국의 언어로 교수가 진행되는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 희망에 따라 로어도 배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아동이 로씨야인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 희망에 따라 어느 한 가맹 공화국 또는 자치 공화국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러저러한 언어를 가르칠 학급을 편성함에 필요한 학생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설정 즉 학부형들에게 자기 자녀들이 의무적으로 배우게 될 언어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할 데 대한 문제의 설정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의 그 어떤 행정적 처리를 제거하며 학생들의 언어 학습에 있어서의 과중한 부담을 퇴치하게 할 것이다.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설정할 조건들이 지어져 있지 않는 그런 학교들에서는 그것을 필수 과목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0. 학교에서의 교양 사업 조직은 심각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로동에 대한 사랑, 로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배양하며 학생들의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수립하며 그들을 공산주의 도덕,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학교, 가정, 가두, 공공 장소들에서의 학생들의 문화적 행동 관습을 교양하기 위한 교원, 학부형 및 사회 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광범한 주민들 속에서의 교육학적 선전을 현저히 개선하며 사회 앞에서의 학부형들과 전체 성인들의 아동 교양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사업에서 당과 직맹, 공청 및 기타 사회 단체들은 학교와 가정들에 백방으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쏘베트 학교는 전체 인민의 문화 수준 제고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인민 교육 및 보건 기관들은 학생들의 로동과 휴식의 정확한 교체를 검열하고 그들의 학습, 사회 사업 및 로동 작업에서의 과중한 부담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들을 취하여야 한다.

21. 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은 학교내 삐오네르 및 공청 단체의 사업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8년제 학교에서는 삐오네르 년령기의 아동 및 소년들이 배우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삐오네르 단체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둘째 교육 계단에서는 자체의 공청 단체와 생산 공청 단체와의 련합 공청 단체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학교내 삐오네르 및 공청 단체의 사업에서와 이에 대한 당 및 공청 단체의 지도에서의 본질적인 변경을 요구할 것이다.

22. 아동들에 대한 전반적 의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커다란 결함들을 퇴치하여야 한다. 모든 가맹 공화국들에서는 8년제 의무 교육제를 법적으로 제정하며 아동 교육에 대한 학부형 또는 후견자들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7세로부터 16세까지의 전체 아동들과 소년들을 8년제 학교에 망라시킬 데 대한 지방 쏘베트 기관들의 책임도 규정되여야 한다. 쏘련 중앙 통계국과 그의 지방 기관들은 학령 아동 및 소년들에 대한 통계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8년제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과 꼴호즈 및 협동 단체의 자금으로 충분한 수의 학교 건물 및 기숙사의 건설을 보장하여야 하며, 직장에 나가는 학부형들의 자제들을 위한 시간 연장 학급의 수를 학교들에 현저히 확장하여야 하며, 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더운 음식을 급양하는 사업을 조직하여야 하며, 유족하지 못한 아동들에게 국가 예산과 꼴호즈, 협동 단체 및 직맹의 자금으로 물질적 방조(무료 급식, 신발, 의복, 교과서 등등의 보장)를 주기 위한 전반적 의무 교육 폰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23. 쏘베트 학교에서의 교육 교양의 개편은 일반 교원, 직업—기술 과목 교원 및 기능공들에게 새로운 보다 높은 요구들을 제기하고

있다.

쏘베트 정권 창건 이래 국내의 교원 수는 1914년의 28만 명으로부터 현재 거의 2백만 명으로 장성되였다. 이것은 레닌이 사회주의 교양자 대군이라고 존칭한 거대한 문화 력량이다. 쏘련 학교들에서는 교육적 수완을 훌륭히 소유한 수 많은 교원들이 사업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때로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이, 이에 불충분하게 준비되였거나 또는 자체의 실무 능력과 도덕적 품성에 있어서 교육 사업의 제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임되는 현상들이 발로되고 있다. 또한 기본 생산 기술 과목(기계 공학, 농업 기본, 공작실에서의 실습)에 있어서 자격 교원들이 잘 보장되여 있지 못하다.

교원들의 자질 향상이 일면적이고 주로 방법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들이 과학, 문화 및 기술의 최신 성과들을 충분히 료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 교양 사업의 형태와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교원 및 교원 집단의 지나치게 많은 사업 규정들이 허용되고 있다. 일련의 지방들에서는 교원들의 물질적 형편에 충분한 배려를 돌리지 않고 있다. 교원들의 사업 및 생활 조건 개선과 그들의 사상 리론 수준 및 실무 능력 제고를 보장할 대책들이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교원들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며 교원 간부들의 임명 및 조동에 있어서 응당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교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4. 학교 개편에 있어서는 교육학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육학은 실생활에서 제기되는 많은 근본적인 교육 교양 문제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학의 임무는 인민 교육 체계 개편에 있어서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수 내용의 과학적 기초(과정안, 교수 요강, 교과서)를 작성하며 교육 방법과 청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과학—교육 기관들의 중요한 활동 부분으로 되여야 한다.

교육 사업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가맹 공화국들에서 교육학 분야에 대한 과학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며 교육학 연구소들 간의 련계와 연구 결과의 호상 교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련 교육학 아까데미야는 쏘베트 교육학 리론 연구, 학교에서의 기본 생산 기술 교육, 직업 교육 문제 및 긍정적 경험의 일반화에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

25. 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은 지방의 특수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며 주민들에 대한 학교의 봉사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동부 지방의 가맹 공화국 및 자치 공화국내 학교 고급반들에서의 원주 민족 소녀들의 수를 가일층 증대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돌려야 한다.

새로운 학교 교육 체계에로 이행할 데 대한 계획은 매개 가맹 공화국들에서 그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의 특수성에 알맞게 작성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학교를 7년제로부터 8년제 의무 교육제에로 이행하며 또한 둘째 교육 계단에 있어서의 각종 학교의 조직을 1959—60학년도부터 시작하며 이 사업을 4—5년 내로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8—10학년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로동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면서 현행 과정안 및 교수 요강들에 의거하는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중학교 개편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수의 중학교 졸업생을 대학들에 보장해 주도록 예견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높은 기능을 소유한 젊은 전문가 간부들을 인민 경제에 보충하는 사업이 중단되여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매개 가맹 공화국들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중학교들을 과도기에 있어서(물론 4—5년 간이다) 보존하여야 한다.

학교 개편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쏘련 내각, 가맹 공화국 교육성, 지방 당 및 쏘베트 기관들로 하여금 학교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며 다부제 수업을 청산하며 생산 교

육을 조직하여 졸업생들을 제때에 취직시키며 교수 요강, 교과서, 교수 방법에 대한 참고서들을 준비하는 등의 커다란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개 가맹 공화국들에서 지방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 사업의 개시와 종료, 방학기, 공업 및 농업 생산에서의 학생 로동 조직 등에 대한 문제들을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맹 공화국들에 부여하여야 한다.

공산당은 쏘련내 모든 민족의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을 가일층 제고할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체 남녀 로동자, 꼴호즈원들이 중등 교육을 소유하도록 당적 및 국가적 배려를 최대한으로 돌려야 하며 이 과업을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는 조건으로, 따라서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직업 교육에 대하여

26. 일반 교육의 개편과 관련하여 청년들에 대한 직업—기술 교육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의 과업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위하여 문화적이며, 기술 지식을 소유한 기능공 및 농업 로력자들을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양성하는 데 있다.

일부 로동자들의 불충분한 직업—기술적 수준은 지금 벌써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생산의 장성을 제지하고 있다.

가일층의 기술적 진보는 전체 로동자 기본 대중들의 기능에 대한 요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직업—기술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쏘련의 인민 경제의 앙양을 위하여 공산당이 계획한 새로운 요강과 긴밀한 련계 속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27. 현존하고 있는 로동 후비 직공 학교, 직업 학교, 철도 학교, 광산 학교, 건설 학교 및 인민 경제 쏘베트와 산하 기관의 직업 기술 학교, 직공 학교들은 장성하는 공업 및 농업 생산의 제 요구에 뒤떨어지고 있다. 이 학교들은 1년 내지 3년 간의 수업 년한을 가진 전문화된 주간 및 야간 도시 직업—기술 학교들로서와 1년 내지 2년 간의 수업 년한을 가진 농촌 직업—기술 학교로 개편되여야 한다. 이 학교들의 수업 년한은 해당 전문 직업의 복잡성 여하에 따라 규정된다.

도시 직업 기술 학교는 생산 부문별로 전문화되며 공업 기업소, 건설, 운수, 통신, 도시 경영, 상업 및 문화 편의 기관들을 위한 기능공들을 양성한다.

농촌 직업 기술 학교는 기능 있는 농업 기계 조정자, 건설자 및 농촌 경리에 필요한 기타 일'군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처녀들을 농촌 직업 기술 학교에 입입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특히 그들을 편의 시설, 상업 등등의 전문 부문 뿐만 아니라 공업 생산의 직종들(기구 제작, 무선 공학, 전기 공학, 방직, 피복, 메리야스 공업 등등)에도 인입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직업—기술 학교는 학생들이 8년제 학교에서 받은 과학의 기본에 대한 지식과 기본 생산 기술 및 일반 로동 지식에 의거하여 피교양자들에게 일반 교육 과목에 대한 보충적 지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직업—기술 학교의 수는 이에 대한 인민 경제의 수요에 적응하게 증가되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로동 후비 학교들은 앞으로 3—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 기간에 10년제 일반 교육 학교를 졸업하게 될 청년들이 기술 학교에 진학하며 또한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중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직업 학교, 건설 학교, 철도 학교, 광산 학교, 직공 학교 및 농업 기계화 학교 등에 진학할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서이다.

28. 직업—기술 학교들은 직업상 기술의 기본을 습득함에 필요한 공작실들과 교육—생산 시설에 적응하여 장비된 실험실들, 그리고 생산 교육의 기능자들과 전적으로 학생 교육 교양을 담당하는 기사—교원들의 유능한 성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학교들에서의 교육 과정은 생산 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참가하는 데 기초하여 조직되며 일정한 직종의 로동자들을 양성하는 과업에 복종된다. 생산 교육과 광범한 기술 교육과의 유기적 련계, 공작실 및 기업소들에서의 교수의 실천과의 결합은 이 학교들에서 기술을 잘 알며 높은 수준의 기능을 소유한 광범한 직종의 로동자들을 양성할 수 있게 한다.

직업—기술 학교는 학생들의 생산 실습을 위하여 작업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과정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 선진 기술 공정 및 생산 능률이 높은 로동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는 데 배려를 돌려야 할 의무를 지닌 기업소, 건설장 및 꼴호즈들과 긴밀한 련계 속에서 교수 교양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직업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쏘베트는 백방으로 되는 방조를 줄 사명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그들의 사상 단련, 그들 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형성은 직업 기술 학교들의 중요한 과업이다. 직업—기술 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 있어서 공청은 커다란 역할을 놀 사명을 지니고 있다.

29. 직업—기술 학교들이 점차 개별적인 독립 채산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교육 기관의 생산 활동에 의한 수입을 확대하며 제고할 데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며 그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가 향상됨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직종 기능을 보다 훌륭히 습득할 데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료로 피복을 주며 급양하는 대신에 학생들에게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현재의 물질적 보장 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적으로 되는 국가적 보장은 고아로 된 학생, 고아원 원아 및 다자녀 가정의 아동들을 위하여 보존되여야 한다.

직업—기술 학교들에서의 꼴호즈 청년들의 교육에 필요한 해당한 자금을 지출할 데 대한 문제를 꼴호즈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30. 직업—기술 교육의 개편은 직업—기술 학교의 교원들과 생산 교육의 기능자들의 기술적, 정치 사상적 및 교육학적 준비 수준에 대하여 새로운, 일층 더 높은 요구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학교망의 발전은 생산 교육의 기능공들과 교원들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전문 학교 및 대학들에서의 이런 간부들을 양성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교과서들과 직관물들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더 많이 만들어 내며 교육용 기술 및 대중 과학 영화 필림의 생산을 확대하며 또한 직업 기술 교육에서 라지오, 텔레비죤을 광범히 리용하여야 한다.

31. 쏘련 국가 계획 위원회, 쏘련 내각 직속 로동 후비 총국, 가맹 공화국 내각 및 교육성들은 8년제 일반 교육 학교, 생산 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및 직업—기술 학교를 졸업하는 미성년들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취직 전망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있어서는 기업소들에 청년들을 받아 들일 특별한 작업 장소의 설정, 로동 보호 및 안전 기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2. 직업—기술 학교의 발전과 함께 개별적 브리가다 학습 및 기업소들에서의 단기 강습을 통한 새로운 로동 간부 양성 사업도 개선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생산 교육은 기업소의 특성에 적응하여 현지에서 구체화되는 매개 직업별로 통일적인 과정안과 교수 요강들에 기초하여 실시되여야 한다. 리론 교육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직업—기술 학교에서 진행할 것이다.

중등 전문 교육에 대하여

33. 공업 및 농업 생산에 있어서 또한 문화, 교육 및 보건 기관들에 있어서 중등 전문 교육을 받은 일'군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생산 조직자로서의 기수의 역할은 결정적 역할중의 하나이다. 바로 이 기수들이 직접 생산을 조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부들을 양성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과학 및 기술의 최신 성과에 의거하는 현대적 생산의 리해 관계는 중등 전문 교육 기관 졸업생들에게 실천에 대한 훌륭한 지식과 또한 높은 수준의 리론적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 기관들에 있어서의 교육의 질은 아직 실생활의 제 요구에 응하고 있지 못하다. 기술 전문 학교, 기술 학교 학생들은 생산 로동에 적게 참가하고 있으며 실천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중등 전문 교육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중등 전문 교육 체계는 8년제 기본 생산 기술 학교 및 완전 중등 교육에 토대하여 조직된다.

중등 전문 교육 기관들에서의 전문가 양성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로동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인민 경제의 어느 부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가에 따라서 또한 기업소, 건설장 및 기타 기관들에서의 로동 조건에 따라서 생산에서 유리되거나 또는 유리됨이 없이 진행하는 개별적 학습 기간들은 각이할 수 있다. 중등 전문 교육 기관들에서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일반 교육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들의 전문에 따르는 필요한 지식, 로동 숙련 및 해당 전문에 있어서의 한 가지 기술 자격을 소유한 일정한 직업을 부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등 전문 교육 기관들에 있어서 교수의 질을 제고하며 교원 구성을 개선하며 그들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35. 중등 전문 교육 기관들을 생산에 접근시키며 경제 구역들에서의 간부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중등 전문 교육 기관을 발전시켜야 하며 야간 및 통신 교육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쏘베트, 성 및 총국들은 중등 교육을 소유한 전문가 양성 사업에서의 통합을 광범히 실시하여야 하며, 가맹 공화국들은 이런 간부에 대한 수요를 보다 잘 연구하여 이의 양성 사업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전문 학교 학생들의 힘으로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제호 및 공작실들을 조직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농업 전문 학교들은 대규모적 경리에 토대하여 조직되여야 하며 그리고 모든 기본 작업들은 학생 자체들에 의하여 수행되여야 한다.

야간 및 통신 교육에는 주로 선택한 전공과 동종의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 통신 교육은 유능한 교원 간부들과 해당한 교육—물질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 상설 전문 학교들에 조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등 학교에 대하여

36.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는 고등 학교 앞에 교수와 실천과 생산과의 긴밀한 련계에 기초하여 전문가 양성 사업의 질을 가일층 개선할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과업은 고등 학교 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결함들을 퇴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많은 젊은 사람들은 대학을 나온 후 실지 사업을 잘 모르며 현대 생산의 제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불충분하게 준비되여 있다. 이와 같은 전문가가 로동 집단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간다. 고등 학교는 실생활에, 생산에 접근하여야 하며 그와 진정으로 결부되여야 한다.

동시에 과학의 최신 성과에 적응하게 전문가 양성의 리론적 수준도 제고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건설의 현 조건하에서 고등 학교는 해당 과학 및 기술 분야를 깊이 알며 적극적이고 자각적인 공산주의 건설자인 다방면적으로 교육된 사람들을 양성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공업 및 농업 전문가 양성 사업의 질을 가일층 제고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전문가들의 실천적 및 리론적 준비를 훌륭히 보장하기 위한 고등 교육 체계의 개편은 사회 과학에 대한 연구의 현저한 개선과 청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촉진하며 또한 학생 교양 사업에 전체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되여야 한다.

국내의 전체 과학 간부들의 약 절반이 고등 교육 기관들에 집중되여 있음에 비추어 과학 연구 사업에서 고등 교육 기관이 노는 역할을 현저히 높여야 하며 이에 전체 교원들을 적극적으로 인입하여야 한다.

대학들에는 실천적 로동의 경력을 가진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켜야 한다. 청년 로동자 및 꼴호즈원들에게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한 훌륭한 조건들을 지어 주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교수와, 실천 및 로동을 결부시키는 구체적인 형태들은 대학의 성격, 대학생의 구성 그리고 또한 민족적 및 지방적 제 특성에 따라 결정되여야 한다.

37. 우리 고등 교육의 발전은 우선 야간 및 통신 교육의 로선을 취하여야 한다. 야간 및 통신 고등 교육 체계에서의 교육을 백방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질적 수준에로 제고하여야 한다. 통신 및 야간 대학망을 더욱 개선하고 강화하여야 하며 야간 및 통신 교육도 역시 유능한 교수—교원 진영과 충분한 물적—기술적 조건들을 구비한 주간 대학을 토대로 하여 조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 응답소와 대학 분교는 대규모적 공업 및 농촌 경리 기업소들에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경제 기관, 당, 직맹 및 공청 단체들로 하여금 대학생들의 학업을 통제하고 방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야간 및 통신 대학, 학부, 과 및 질의 응답소들에는 가장 유능한 교수—교원, 이 체계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보장할 수 있을만한 인원이 보충되여야 한다.

과학 및 기술의 가일층의 발전 과정에서는 고등 교육과 새로운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 학교는 생산에서 유리됨이 없이 인민 경제와 문화 및 교육의 각이한 부문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자질 향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통신 학생들에 대한 교과서, 참고서, 학습 지도서 및 기타 자료들의 보장 사업을 개선하며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인쇄 및 출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서 판매 기관들은 학생들이 필요한 교과서 및 참고서들을 언제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생산에서 유리됨이 없이 학습하는 학생들에 대한 시험과 자쵸트는 년간을 통하여 각이한 기간에 조직되여야 한다.

공업 기업소들에서 일하는 통신 학생들이 받고 있는 특전을, 모든 과정안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꼴호즈원 통신 학생들에게도 보장하여 줄 것을 꼴호즈들에 권고하여야 한다.

고등 교육 통신 체계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유익한 로동을 하면서 사업의 여가에, 희망에 따라 고등 교육을 받으며 또는 자기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예술, 회화, 음악, 인문 과학 등등을

배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되여야 한다.

38. 기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교수와 생산 로동과의 련계 형태들은 각이할 수 있다. 대다수의 기술 대학에서는 초기 1—2학년에 있어서 야간 또는 통신 교육 체계에 의하여 교수와 생산 로동과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학생들이 초기에 많은 복잡한 리론 과목들을 학습하며 또한 많은 실험실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일련의 전문 분야에서는 첫 2—3년 동안 생산과 유리되여 교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후 학생들에게는 1년 동안 직접 생산에서와 실험실 그리고 설계 연구소들의 성원으로서 실천적 사업을 하는 것이 반드시 예견되여야 한다.

고등 교육 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새 기술 분야와 과학과 설계—계획 사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기사 양성에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과학 및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기술 지식과 심오한 리론적 준비가 결합된 새로운 형의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년간에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자동 장치와 전기에 의한 기계의 원거리 조종 장치, 전자학, 전기 기계 제작 및 기구 제작, 라지오 공학, 체신, 화학 공학에 대한 기사 양성이 광범하게 발전되여야 한다. 대학들은 현대 기술을 완전히 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기사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기사들은 높은 기술적 준비와 함께 경제와 생산 조직 분야에 대한 높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생산 로동은 그들이 앞날의 전문을 훌륭하게 소유하는 것을 돕도록 조직되여야 한다. 기업소들에서는 학생들에게 생산 기술 공정을 철저하게 연구할 가능성을 주는 질서가 수립되여야 한다. 실제 사업에서 유리됨이 없이 교수를 받는 기간에 학생들은 자립적인 연구에 가장 적합한 학과목들을 습득한다.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생산 경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학에 입학시켰을 때는 그들을 생산에서 유리시켜 교수를 조직할 수 있다. 생산이 계절적 성격을 띤 인민 경제 분야의 기사들을 양성하는 대학들은 계절적 원칙에 따라 생산 작업과 대학에서의 학습을 교체할 수 있는 교수 과정의 조직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교수와 생산 로동을 결합하는 훌륭한 형태는 대기업소들에 부설된 공장—고등 기술 전문 학교들이다. 공장—고등 기술 전문 학교는 례컨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큰 상설 대학의 공장내 분교에 기초하여 조직할 수 있다. 또한 대학들에는 학생들의 힘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공업 기업소 및 제호들을 조직할 수 있다.

39. 농업 대학들에서의 교수와 생산 로동과의 결합은 생산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조직되여야 한다.

교수는 대규모적인 쏩호즈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모범적인 큰 시험 농장과 훌륭한 실험실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실천 작업의 모든 조건이 구비된 대학들에서 반드시 진행되여야 한다. 학생들 자신이 가축을 사육하여야 하며 기계를 수리하고 조종하여야 하며, 파종하고 재배하고 수확하여야 한다. 모든 농업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와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 조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국내의 개별적인 지역들에 적응한 농업 전문가들을 양성할 일정한 방침이 필요하다.

농업 대학은 과학적 중심이 되여야 하며 수확고와 축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농촌 경리 생산의 조직과 기계화에 있어서, 실험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꼴호즈와 쏩호즈에 방조를 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과학 연구소들 및 시험장들과 농업 대학과의 통합을 보다 광범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은 자질 향상 학부와 자질 향상을 위한 기타의 조직 형태들을 통하여 농촌 경리 전문가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40. 쏘베트 과학, 기술, 문화는 종합 대학 교육의 가일층의 발전을 요구한다. 종합 대학은 과학 연구소에 필요한 전문가와 중등 학교 교원들을 양성한다.

종합 대학에서 수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어문학자 그리고 기계, 화학 및 기타 일부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함에 있어서는 공장 실험실과 설계 연구소, 농사 시험장 및 기타 과학 연구 기관들에서 학생들을 보다 장기간 작업시킴으로써 그들의 실천적 준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종합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 학교에 사업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수한 중학교 교원들을 인입하여 교수 방법상의 준비와 교수 실습의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최근 년간에 종합 대학들에서는 수학자 특히 계산 수학자와 생물학자 우선 생물 물리학자, 생화학자, 생리학자, 실험 유전학자들과 물리학자 특히 원자 물리학자, 라지오 물리학자들 그리고 화학적 촉매와 고중합 물질(高重合物質) 분야의 화학자들의 양성을 현저히 확대하여야 한다. 종합 대학들에는 전자 기계로 장비된 계산 실험실을 설치하며 핵 실험실을 현대적 가속 장치로 완비하고 라지오 화학 및 라지오 생물학 실험실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합 대학 교육의 완성 과정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거대하여지는 인문 과학에 대해서도 백방으로 관심을 더 돌려야 한다.

경제학자, 법학자, 철학가, 인문 과학 전문가들을 양성함에 있어서는 생산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첫 1—2년 간 인민 경제 분야에서 로동과 유리됨이 없이 학습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41. 중등 교육 체계의 개편은 사범 대학과 종합 대학들의 교원 양성 사업에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한다. 이 대학들은 자기 전공 과학 부문의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충분한 교육적 숙련을 가지며 실생활을 잘 알며 학생들을 공산주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정신으로 교양할 수 있는 중등 학교 교원들을 양성해 내야 한다. 초등 학교 교원 양성은 점차 모든 학교 교원을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써 완전히 충당하는 단계에로 이행함을 고려하여 사범 대학내 특설 학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기술 과목(농업, 축산, 기술 등등) 교원 양성을 사범 대학에서와 또한 기술 대학들에서 구체적 조건에 따라 조직하여야 한다. 자격 있는 공학 및 농학 기사들의 일정한 인원에게 교육 활동의 준비를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지어줌으로써 이들을 1959—1965년 기간에 중등 학교와 직업—기술 학교 및 기술 전문 학교에로 교수 사업을 위해 파견하여야 한다. 사범 대학에서의 현존하는 교육 체계는 보다 광범한 생산 실습 및 교육 실습으로써 보충되여야 한다.

사범 대학에서는 교수의 과학 리론적 수준을 제고하고 과학 연구 사업을 백방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중등 학교, 생산 기관, 과학 기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과학 실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42. 고등 교육을 소유한 의사 양성 사업의 질을 제고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의사의 로동은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높은 요구들을 많이 제기한다. 아직 의학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매개 젊은 사람은 반드시 의사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하며 진료 기관에서 약간의 실천적 경험을 소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학 대학들은 병원과 치료 예방 기관들에서 보조 일'군으로 근무하여 실천 사업을 한 청년들을 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의학 대학 학생들에 대한 교수는 치료—예

방 기관과 위생—보건 기관들에서의 부단한 실습을 동반하여야 한다. 중등 의학 지식과 전문 부문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교수는 첫 두 학년 과정을 로동에서 유리됨이 없이 조직할 수 있다.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학 대학들에서 중요한 의학 분야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의 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

43. 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은 로동을 가장 사랑하며 준비된, 그리고 재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원칙에 따라 대학생들을 보충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학들에서는 실천 사업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면서 경쟁에 의하여 청년들을 입학시켜야 한다. 경쟁적 선발에 있어서는 시험의 일반적 결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습득한 지식을 단기간내에 생산에 성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날의 전문 직업에 해당한 과목들의 성적, 사회 단체들의 추천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대학들에 청년들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일련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필답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등 교육 기관의 지도 일’군들, 당, 직맹 및 공청 단체들은 공장, 꼴호즈, 쏩호즈들에서, 로동자 및 꼴호즈원들의 대학 입학률의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학생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선택한 전문에 대한 기호와 사랑, 또한 남성 및 녀성 로동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44. 대학들의 과학—교육 간부 구성의 개선은 젊은 전문가들의 실천적 및 리론적 준비를 제고하는 결정적 조건 중의 하나이다. 고등 교육을 받았고 실천적 사업 경험을 가진 재능 있는 청년들 중에서 과학, 기술 및 문화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할 능력 있는 유능한 과학—교육 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여야 한다.

대학들에서의 교수 사업에 선진적 생산 방법과 과학 및 기술의 현대 성과를 리용하여 교수를 할 수 있는 기업소, 건설장, 설계 사무소와 과학 연구소의 유능한 기사—기수 일’군들과 농학자들 및 의사들을 광범히 인입하여야 한다. 이런 일’군들이 생산에서의 기본 사업과 교수활동을 겸임하는 조건, 그리고 대학들에서의 그들에 대한 보수 지불 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학들의 매개 교원의 의무는 자기의 과학적 자질을 부단히 높이며 과학 연구 사업과 생산에 과학적 방조를 주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대학 교원들이 일련의 전문별로 그들의 과학 교육 활동의 성격에 따라 인민 경제의 해당한 분야의 실천적 작업에 일정한 기간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그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이다. 과학—교육 간부들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현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과학 사업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며 자기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과학과 실천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자에게만 학위를 수여하여야 한다.

대학 교수들과 교원들은 기본적으로 경쟁 제도에 의하여 선발되여야 하는바, 이 제도를 본질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대학들에 과학—교육적 면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

45. 과학, 기술 및 문화 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은 부단히 커지고 있다. 대학들에서는 인민 경제, 과학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높은 리론적 수준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교수들과 교원들은 생산과의 련계를 더욱 긴밀히 하며 기술적 진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연구에 참가하며 과학과 기술의 최신 성과들을 생산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기업소의 선진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일반화하고 선전

하며 사회 과학에 대한 보다 더 심오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업과 건설에 대한 지도를 기업소들에 접근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학—연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대학들을 방조한다. 인민 경제 쏘베트 및 농촌 경리 관리 기관들은 과학 연구 결과의 실현에서, 생산 시험의 조직에서 대학들에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일부 과학 연구소들은 그 성격에 따라 그에 해당한 대학들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과학 사업에서 대학들, 쏘련 과학원 및 가맹 공화국 과학원들과 부문별 과학원들, 과학 연구소 및 대공장 실험실들 간의 협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6. 대학들의 교양적 의의는 거대하다. 대학들에서는 자기의 전문을 훌륭하게 소유하고 용감하며 또 락천적이며, 우리 사업의 승리를 깊이 확신하는, 레닌적 사상과 공산당 정책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수호자들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런 품성을 교양함에 있어서 사회 과학의 학습은 커다란 역할을 논다. 맑스—레닌주의 기본 지식은 모든 부문의 전문가들에게 필요하다. 레닌을 배워야 하며 그의 거대한 리론적 유산을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하며 공산주의적으로 생활을 건설할 줄 알아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수는 창조적이며, 박력 있고, 전투적인 성격을 띠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을 부르조아 이데올로기 및 수정주의의 어떠한 발현에 대하여도 비타협적인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 과학에 대한 교수는 자연 과학의 연구와 불가분리적 련계 속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대학생들의 과학적 인식 방법의 형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대학들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교수에 제기되는 높은 요구들은 매개 교원에게 자기의 지식을 부단히 그리고 확고하게 심화하며 자기 사업을 실천 및 당면한 과업과 밀접히 련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학에서 청년들을 교양하는 것은 모든 교수 및 교원과 당, 직맹, 공청 단체들의 사업이다. 그들의 의무는 대학생들에게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 로동에 대한 사랑, 공산주의 도덕, 사회 활동의 숙련을 교양하는 데 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책임적 태도, 과학 습득에 대한 창조적 태도, 사업에서의 자립성을 형성시켜야 한다. 의무적 학습의 과중한 부담을 제거하여야 하며, 상급 학년 학생들을 과학 연구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여야 한다.

47. 대학들을 생산과 접근시킴과 관련하여 국내의 대학망을 정비하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공업 중심지들에, 특히 씨비리, 원동 그리고 중앙 아세아의 가맹 공화국들에 대학들의 수를 증가하여야 한다. 모쓰크바, 레닌그라드, 끼예브 및 일부 다른 도시들에 대학들이 부당하게 집중되여 있음을 시정하여야 한다.

48. 교수를 생산 로동과 결합시키는 방향에서의 고등 교육 체계의 개편은 매년 인민 경제와 과학 및 문화 부문에 요구되는 전문가들을 졸업시키는 수가 장성되게끔 계획되며 조직되여야 한다. 현저한 부분의 대학들의 사업 개편을 1959년도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3—5년 기간내에 합리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인민 경제 쏘베트, 기업소, 과학 연구소 및 기타 기관들의 지도자들은 대학들에 유급 로동 인원 및 기술 인원의 정원을 주며 그 직무를 학생들로써 보충하도록 조직하여야 하며 그들의 생산 수업을 조직해야 하며 그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며 작업복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대학의 개편을 위한 모든 조치는 대학들에 제기된 중대한 국가적 과업을 그들이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을 촉진시키게 한다.

* *

중등 및 고등 학교 개편은 수백만 사람들, 전체 쏘련 인민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 이 과업의 정확한 수행은 쏘베트 사회의 가일층

의 물질적, 정신적 발전을 위하여, 특히 쏘련 공산당 제 21차 대회에서 심의되고 채택될 위대한 설계도의 실현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학교의 실생활에로의 접근은 공산주의하에서 생활하며 로동하게 될 자라나는 후대들을 훌륭히 교양하기 위한 참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한다.

우리 나라에는 학교 개편에 관한 문제에 열렬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정이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와 쏘련 내각은 이 테제를 전 인민적 토의에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것은 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방도를 종국적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이미 청년들의 로동 교양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선진적 학교와 대학들의 실지 경험과 광범한 쏘베트 사회계의 의견들을 보다 충분히 리용할 가능성을 줄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물론 매개 가맹 공화국들의 민족적 특성들도 참작되여야 한다.

예견된 개편은 청년들의 교육 교양에서 학교의 역할을 제고시킬 것이며 그들의 일반 교육 수준과 실무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이며 인민 경제와 과학 및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높은 자질을 소유한 간부들의 양성을 보다 훌륭히 보장할 것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대로를 확고히 전진하고 있는 쏘련의 위력 창성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촉진시킬 것이다.

독일 공산당의 창건은 독일 로동 운동 력사에 있어서의 전환점이다

윌헬름 피크

1918년의 독일 11월 혁명의 과정은, 인민의 모든 혁명 력량을 목적 지향성 있게 령도하는 맑스—레닌주의 당이 선두에 서 있을 때에라야만 로동 계급은 승리할 수 있다는 레닌의 학설을 확증하여 주었다. 1918년 12월 31일 독일 공산당의 창건은 이 학설의 실현이였으며 군국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인민을 배반한 사회 민주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및 사회 배외주의적 정책을 반대하는 독일 로동 운동 좌익의 일관한 투쟁의 계속이였다. 독일 공산당의 창건과 함께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독일 로동 계급의 통일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가 조성되였다. 평화 유지 및 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독일 사회 통일당 중앙 위원회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정책은, 40년 전 11월 혁명에서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군주 제도를 전복하고 제국주의 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독일 로동 계급의 우수한 사람들의 영웅적 투쟁의 계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근로자들은 독일 공산당 창건 40 주년 기념일을 평화를 유지하며 모든 압박 받고 착취 당하는 인민들을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독일 좌익의 투쟁 정신으로 경축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가 시작되면서 독일 로동 운동에 있어서도 옳바른 정치적 방향의 결정을 위한 론의가 시작되였다. 이 때 수정주의자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멸망 단계인 제국주의 시기의 로동 운동이 독점 자본에 대한 혁명적 공격에로 대중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계급 투쟁의 새로운 형태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의 명제를 거부하였다. 이 때 로자 룩셈부르그와 클라라 체트킨의 지도하에 혁명적 좌파가 형성되였는바 이는 독일 사회—민주당에 그의 혁명적 성격을 보전하려고 하였다. 수정주의는 로동 운동의 통일을 와해시켰으며 그것을 무장 해제시켰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을 때에 사회 민주당이 취한 태도는, 개량주의의 영향을 받은 당이 평화 유지와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근로자들을 지도하는 데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다만 레닌을 선두로 하는 좌익이 지도하였던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만이 국제 사회주의자 대회에서 맡은바 의무를 실행하였으며 제국주의 전쟁과 짜리 통치를 반대하는 로씨야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였다. 이 모범은 칼 리프크네히트의 영예로운 행동에서 반향을 일으켰는바 그는 12월 2일의 국회에서 유일하게 전쟁 차관에 반대 투표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 국경을 넘어 널리 비친 신호를 주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전쟁을 반대하여 싸우겠다는 독일 로동 계급의 우수한 사람들의 굳은 결의를 모든 나라의 소박한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다음 해에는 어떠한 야수적 박해도, 체포도, 투옥도, 제국주의 전쟁의 계속을 반대하는 공

개적 군중 대회, 시위, 파업의 장성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 례하면 4월 대파업과 1917년 8월의 해군 폭동과 같은 전쟁 반대 투쟁은 로씨야 2월 혁명의 영향하에 점점 더 결정적으로 제국주의적—군주 제도의 존속을 반대하는 데로 돌려졌다.

인류 력사에서의 위대한 전환인 10월 혁명은 기아와 경제적 곤난으로 기진맥진한 독일의 근로 인민들과 참호 속에서 포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 가는 독일 병사들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10월 혁명은 그들에게 날로 악화되여 가는 참화로부터의 출로와 평화에로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파업과 항쟁이 전 독일에 갑자기 늘어 갔다. 우선 해군에서 군중적인 명령 거부가 일어 났다. 1918년에는 독일에 로동 계급의 결정적 행동을 요구하는 혁명적 위기가 성숙되였다. 좌익은 칼 리프크네히트, 로자 룩셈부르그, 프란츠 메링그, 클라라 체트킨과 그리고 나의 지도하에 스파르타크단에 하나의 사상적 중심을 형성하였는바 독일 로동 계급의 결정적 력량이 그것을 따라 갔다.

1917년 4월에는 독일 사회 민주당 지도부의 전쟁 지지 정책 때문에 많은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이 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수명의 중앙파 간부들의 지도 밑에 독일 독립 사회 민주당을 형성하였는바 이 중앙파 간부들은 이때 아직도 완강한 기회주의적 경향에 사로잡혀 있었다. 스파르타크단은, 보다 각성한 사람들의 절실한 충고에 따라 볼쉐위크들의 경험에 기초한 독자적인 전투적 당을 창건할 대신에 역시 독립 사회 민주당에 들어갔다. 이리하여 혁명적 력량이 공고하게 조직적으로 결속되며 독일 로동 계급의 다수를 획득하는 것이 곤난하게 되였다.

군국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스파르타크단의 자기 희생적 투쟁은 독일 로동 운동사에서 위대하고 영예로운 한 페지를 차지하고 있다. 레닌은 1918년 10월 18일에 《가장 곤난한 환경하에서 체계적인 혁명적 선전을 수행한 독일 스파르타크단의 사업은 실제로 독일의 사회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의 명예를 구원하였다》라고 썼다. 스파르타크단의 구호가 근로자들의 리해 관계에 부합되였고 또 위대한 로동 대중이 전쟁, 빈궁, 불행으로부터의 유일한 출로를 스파르타크단이 취한 방향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1918년 11월 혁명에서 스파르타크단은 독일 로동 계급과 기타 근로자층의 선두에 서서 나아간 가장 결단성 있고 가장 혁명적인 력량의 지도자로 되였다.

11월 혁명에서 대중들은 강력한 혁명적 돌격으로써 군주 정체를 타도하고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제국주의적 통치 체제에 대하여 결정적인 파렬구를 만들어 놓았다. 며칠 동안에 거의 독일 전 지역에서 로동자 쏘베트들과 병사 쏘베트들이 창설되였다. 현저한 부르죠아—민주주의적 자유와 사회적 개선이 전취되였다. 그러나 혁명의 목적 지향성 있는 계속과 반동적 국가 기구의 완전한 파괴는 장애에 부닥쳐 드디여 저지되고 말았다. 혁명 군중의 대부분은 민주 제도가 창설되였으며 사회주의가 오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은 국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의 선동적인 약속을 믿고 있었다. 스파르타크단의 투쟁은 결정적인 장애를 받게 되였는바 그것은 그를 지지하고 있는 광범한 대중을 긴밀하게 조직할 수 있는 단결된 지도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혁명의 진척,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의 변절, 에베르트와 노스케에 의한 반혁명 군대의 초청, 독일 독립 사회—민주당 지도부의 타기할 태도, 스파르타크단의 활동에 대한 반동들의 강력하게 회복된 력량에 의한 방해 등은 더욱 더 불가피하게 독자적인 혁명적 맑스주의 당 창건을 요구하였다.

1918년 12월 30일, 독일 각지로부터 스파르타크단 대표자들이 베를린에 모여서 독일 공산당 창건을 결정하였는바 그 중앙 위원회에는 칼 리프크네히트, 로자 룩셈부르그, 클라라 체트킨, 프란츠 메링그, 레오 요기헤스와 그리고 내가 선출되였다. 독일 공산당의 창건은 좌익의 정책의 결정적 승리이였으며 독일 로동 운동 력사에서의 전환점이였다. 독일 공산당의 창건은 기회주의와의 조직적인 결렬이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기초 우에서 독일 로동 운동의 통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일보로 되였다. 독일 공산당은 즉시로 영광스러운 볼쉐위크 당의 편에,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승리후 레닌의 평화 호소를 발표한 청소한 쏘베트 국가의 편에 서 있었다.

쏘베트 주권과의 굳은 동맹하에 략탈과 억압으로부터 근로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싸우려는 불굴의 의지가 독일 공산당의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공산당은 처음부터 반동적 제국주의 세력에 의하여 야수적인 박해를 받았다. 당이 창건된 수일 후에는 벌써 당의 지도부들인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그가 반혁명적 노스케 군대의 사관들에 의하여 살해되였다. 나도 역시 체포되였으나 겨우 같은 운명은 면하였다. 수주일 후에는 레오 요기헤스도 살해되였으며 프란츠 메링그는 테로와 박해 때문에 죽었다. 이들의 죽음은 히틀러의 전쟁 정책과 황당무계한 세계 제패 계획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했다고 해서 나치스 사상범 수용소에서 야수적 방법으로 살해된 우리 당의 수만의 영웅들에 선행하였던 것이다.

1918년으로부터 1933년까지는 독일 공산당의 끊임 없는 장성의 시기이였다. 근로자들의 권리를 결정적으로 옹호하며 반동을 반대하는 공산당의 비타협적 투쟁은 한편으로 당에 심대한 희생을 요구하였지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근로 인민들로 하여금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지배에 대한 심중한 위협을 정당하게도 독일 공산당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해가 갈수록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때문에 독점 자본가들은 파씨스트들이 1933년 1월에 일종 비상 수단으로 정권을 잡는 데 방조를 주었다. 즉시로 시작된 나치스의 테로는 우선 공산주의자들에게 돌려졌는바 최초에 수만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사상범 수용소에 투옥되였다. 여러 해 동안 감금되여 있다가 해방 직전에 생명을 빼앗긴 수 많은 희생자들 가운데는 독일 공산당의 당수이며 우리의 잊을 수 없는 에른스트 텔만도 들어 있다. 그는 1933년부터 여러 형무소들로 끌려 다니다가 1944년 8월 16일에 부헨발트의 사상범 수용소에서 에스에스 도당(나치스 헌병…역자)에 의하여 살해되였다.

그러나 나치스의 압박의 가장 곤난한 시기에도 독일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다. 극심한 비법화를 강요 당하면서도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독일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준비된 제 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파씨스트 전쟁 기구가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하나씩 침공하여 페허로 만들고 강제 로동을 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독일로 랍치하여 감에 따라 항쟁이 일어났으며 전쟁과 파씨즘을 반대하는 비합법적 투사들의 국제적 단결이 공고화되였다.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나라 반파쑈 항쟁 투사들과 공동으로 전개한 영웅적 활동은 다시금 독일 로동 계급의 영예를 수호하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민주주의적 독일과 다른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적 협조를 위한 최초의 전제를 만들어 놓았다. 오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당시 파씨스트들에 의하여 점령되여 있던 많은 나라들과 맺고 있는 형제적 친선은 역시 독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공통성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 로동 계급의 통일과 그리고 평화 애호적, 민주주의적 국가를 위한 독일 공산당의 수십년에 걸친 투쟁은 독일의 민주주의적 지역에서 1946년 4월 21일에 이루어진 독일 공산당과 독일 사회 민주당의 합당에 의한 독일 사회 통일당의 창건 및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창건으로써 승리의 개가를 올렸다. 과거에 언제나 반동들에게 리용될 뿐이였고 드디여는 파씨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한 독일 로동 계급의 해독적 분렬은 끝났다.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로동 계급의 통일은 평화 애호적 민주주의적 독일 국가의 건설을 위한 결정적인 전제로 되였으며 동시에 독일의 이 지역으로부

허는 다시는 제국주의 군대가 우리의 린방 인민들을 습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담보로 된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포츠담 협정에 따라서 제국주의, 군국주의 및 파씨즘을 뿌리채 뽑아 버렸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해마다 새로운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또 그들은 독일 사회 통일당 제 5차 대회에서 채택된 계획을 열성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바 이 계획에 의하면 1961년까지에 모든 중요 식료품과 소비품의 인구 1인당 소비에 있어서 서부 독일을 릉가하게 될 것이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공황에 빠진 서부 독일 로동자들에게 벌써 귀중한 경제적 원조를 줄 수 있게 되였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평화와 인민들 간의 호상 리해 및 모든 근로하는 사람들의 복리의 장성을 위한 공고한 성새로 발전하였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재통일될 독일을 위한 원형으로 되고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협상을 통한 독일의 재통일, 두 독일 국가의 련방 형성 및 강화 조약의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 평화 정책과 독일 최초의 로농 국가의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업적들은 서부 독일 주민들에게 부단히 장성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 서부 독일에서는 아데나우어의 원자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점점 더 심해 가는 경제 공황과 본 정부의 가일층의 파쑈화를 반대하는 항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아데나우어 정부는 테로와 비상 조치령으로써 그리고 모든 진보적 단체들을 금지하고 마지막 민주주의적 자유마저 청산함으로써 이미 여당 대렬에까지 향해지고 있는 인민들의 증대되는 반항을 억압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서부 독일 주민들 사이에는 독일 제국주의의 교권적 파쑈 체제가 서부 독일에 빈궁과 공황과 전쟁을 가져 온다는 인식이 점점 더 침투되고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근로자들은 독일 공산당 창건자들의 유업(遺業)을 실현하여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평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민이 독일에서의 평화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납득하게 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독일 공산당 창건 40주년 기념일을 경축하고 있다.

(본지를 위한 특별 기고)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인민 무력 강화를 위한 우리 당의 투쟁

엄 기 현

우리 당은 군사 문제를 혁명 투쟁의 승리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함에 있어서의 기본 문제의 하나로 간주한다. 일찌기 레닌은 군사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배 계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는 만약 그가 진정으로 지배하기를 원하며 또 지배하려면 이것을 자기의 군사적 조직에 의해서도 증명해야 한다》(레닌 전집, 로문, 제 4판, 제 29권, 133페지).

당은 우리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있어서 조성된 정세에 적응하게 자기의 군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 정세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군사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릴 것을 요구하였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당은 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우리 인민이 쟁취한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1948년 2월에 조선 인민군을 창건하였다.

인민 군대는 김 일성 동지가 지도한 항일 빨찌산을 골간으로 하여 해방된 조선의 로동자, 농민 및 근로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된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는 정반대로 우리 인민 무력은 국토의 안정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 임무로 한다.

전쟁전 시기 당은 북반부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평화적 건설 사업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인민 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왔다. 당의 이러한 배려에 의하여 인민 군대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 정규군으로 강화 발전되였다.

1950년 6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무력 침략으로 말미암아 인민 군대는 전체 인민과 더불어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 들어 서게 되였다. 당은 전쟁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우리 인민 무력을 강화함에 전력을 다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부단히 육성 강화된 우리 인민 군대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무력 침략을 격퇴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영예롭게 보위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 승리는 제때에 인민 군대를 창건하였으며 그를 부단히 육성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우리 당의 군사 정책의 정당성의 실증으로 된다.

*　　　*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해방후 첫날부터 북반부에 대한 침략 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여 왔다. 적들은 불의의 무력 침략으로써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청산하고 전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을 침범하고 제 3차 대전을 도발하려고 시도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적들의 불의의 무력 침략으로 말미암아 조선 인민 앞에는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였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혁명적 무력으로써 적들의 무력 침략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정부는 적들이 무력 침공을 개시하자 곧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분석하고 적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화국 경비대와 인민 군대에게 적에 대하여 반공격을 가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와 동시에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쟁 승리를 위한 확고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전쟁 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은 1950년 6월 26일 김 일성 동지의 방송 연설에서 전 당과 전

인민에게 천명되었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전선에로!》라는 전투적 구호는 전쟁 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방송 연설에서 조국 해방 전쟁의 목적과 이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승리할 수 있는 제 요인들을 해명하면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자기의 모든 사업을 전시 태세로 개편하며 모든 사업을 전쟁의 승리와 적들을 소탕함에 복종시키며 인민 군대에 대한 전 인민적 방조를 조직하며 인민 군대의 후방을 공고히 하는 사업에 일체 력량을 돌릴 것을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1950년 6월 26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군사 위원회를 창설하고 그에 국내의 일체 주권을 집중시켰으며 그 다음날인 27일에는 전시하 사회 질서와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 상태에 관한 정령을 발표하였으며 또 동년 7월 1일에 전시 동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화국 전 지역에 전시 동원령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대책들은 나라의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을 전쟁 승리를 위한 사업에 조직 동원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였다.

당은 특히 전쟁이 시작되자 곧 우리 인민 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에 있어서 당은 우선 우수한 간부들로써 인민군 최고 사령부와 군대내 핵심을 튼튼히 꾸리는 데 선차적 배려를 돌렸다.

각종 병종들의 동원과 복잡한 군사 전략 전술적 원칙들의 적용을 요하는 현대전에 있어서 군대의 지휘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군대의 참모부가 얼마나 현명하고 대담한가, 군대의 핵심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실로 매개 전투에서의 승패 뿐만 아니라 전쟁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전쟁이 시작되자 곧 김 일성 동지를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하였으며 김 책 동지를 전선 사령관으로 임명하였으며 장구한 항일 무장 투쟁에서 단련되였고 풍부한 군사적 경험을 가진 우수한 간부들을 인민 군대의 지도적 자리에 파견하였다. 또한 당은 공장과 농촌에서 우리 당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군대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군대내에서와 모든 전투 초소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으로 되었다.

우리 인민군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현명한 참모부와 견고한 핵심을 가진 것——이것은 강대한 적과의 투쟁에서 첫 시기부터 승리를 쟁취하며 전쟁의 매 단계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및 전술적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수 있은 기본 담보의 하나였다.

당은 전쟁 행정의 전 기간에 있어서 군대를 계속 보강하며 그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당은 자기들의 침략 전쟁에서 우리의 영웅적 인민 군대에 의하여 참패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병력과 기술 기재를 투입하면서 전쟁을 확대하며 장기전에로 이끌려 하였다. 미제는 조선 전쟁에 자기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해군 함대의 주력을 총 동원하였으며 15개국 추종 국가 군대까지 끌어 들였다.

그들은 전쟁 방법에 있어서도 국제 법규와 사람의 초보적 량심까지 저바리고 독까스탄, 세균 무기까지 대량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악랄하고 량적으로 우세한 적과의 투쟁에서 우리 군대 대렬을 계속 보강하며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는 것은 전쟁 승리를 위한 중요 고리의 하나였다.

가렬한 전쟁을 진행하면서 인민 군대를 현대식 무장으로 장비 강화하는 문제는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이 어렵고 거대한 사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당의 부름에 따라 조국 수호에 궐기한 수 많은 청년들이 자원하여 계속 인민군 대렬에 참가하였다. 전쟁이 개시되여 불과 몇 주일 동안에 북반부에서 80여 만의 청년들이 인민군 대렬에 참가할 것을 지원하여 나섰으며 해방된 남반부 지역에서도 40 여 만의 청년들이 의용군에 참가할 것을 지원하였다.

일시적 후퇴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은 후퇴하여 온 부대들을 새로운 인원과 무기로써 보충하여 5개의 주력 군단을 편성하였으며 3개의 예비 군단을 편성 훈련하였다.

당은 이와 같이 군대를 보강하며 후비군을 준비함에 있어서 전 인민을 무장시키는 사업에 많은 주의를 돌렸다. 전 인민을 무장시키는 사업——이것은 레닌의 교시에 립각한 우리 당 군사 정책의 기본이다.

레닌은 모든 인민이 병사가 되고 그들이 무장하고 자기의 자유를 위해 싸울 때 어떠한 적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군대를 무장한 인민과 합류시키라… 전 인민의 무장만이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것이다. 그것만이 반동을 완전히 타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전쟁 폭동 및 평화에 관한 레닌, 쓰딸린 저작들》,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85—86 페지).

우리 당은 후방 인민들, 특히 청장년들에 대한 군사 훈련을 체계적으로 조직 진행하여 원쑤들과의 결전에 언제나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청장년들에 대한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인민 군대의 후비를 보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간첩, 암해, 파괴 분자들의 침해로부터 향토와 공장을 수호하며 또 적의 후방에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함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특히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적들의 강점 지역들에서 지하 당 단체들의 지도하에 진행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빨찌산 투쟁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 인민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투쟁은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였었다.

후방——이것은 전선에 각종 수요품과 사람들을 공급하는 동시에 전선 장병들의 정신적 력량도 공급한다. 어떠한 군대도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공급하는 공고한 후방이 없이는 장기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할 수 없다. 가장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후방과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당은 전쟁의 정의적 목적과 해방적 성격을 해설 침투시키면서 전체 인민들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무력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으며 국내의 일체 사업과 생활을 전시 체제로 개편시켰다.

당은 전시 생산을 보장하며 증대되는 전선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기업소들을 군수품 생산에로 전환시키며 일부 기업소들을 안전 지대로 분산 소개시켜 생산을 조직하였다.

당은 전시에 량곡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의 우수한 력량을 농촌에로!》라는 구호하에 농촌 경리 발전에 거대한 주의를 돌렸다.

전쟁 기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만행에 의하여 우리 공장, 농촌 뿐만 아니라 매개 인민들의 생활상 토대도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그러나 당과 정부는 그 어려운 전쟁 환경 속에서도 전재민들에게 식량과 의류를 공급하며 전체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다른 한편 당은 우리의 후방에서 비겁 분자, 각종 암해 분자들과 그리고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면서 당의 통일을 공고히 하며 당과 정부와 인민 대중과의 정치적 통일을 강화함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이와 함께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당이 취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의 결과에 우리의 후방은 철옹성같이 강화되였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 무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로동 계급을 선두로 전체 인민은 전쟁이 가렬하고 장기화될수록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정부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어떠한 곤난 속에서도 동요와 실망을 모르고 당 정책을 받들고 전선 원호에서 고도의 애국주의와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 이와 같이 공고한 후방을 가진 우리 인민 군대는 전쟁 기간에 량적으로 3배나 장성되였으며 예비 력량을 충분히 가지게 되였다. 또한 인민 대중의 애국적 지원에 의하여 인민 군대의 기술적 장비도 비상히 강화되였다. 1951년에 비하여 1952년에 보병 화력은 160%로, 사단의 각종 무기로써 1분 동안 발사할 수 있는 탄환은 140%로 장성되였다. 특히 기술 병종 부대들을 확장하며 기계화 수준을 더욱 제고시켰다.

당은 전쟁 행정의 경험에 근거하여 산지전에 적응하게 자동 화력, 곡사 화력, 박격포 화력을 비상히 증가시킴으로써 산악 수림 지대의 전투에서 보병과 포병간의 긴밀한 협동과 민활한 화력 기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쟁 기간 우리 공군도 거대하게 장성되였으며 적들의 제공권을 분쇄하게 되였다.

당은 전투가 진지 방어전에로 이행한 이후 방어 공사를 강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견고한 방어 공사는 인원과 무기의 피해를 감소시키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을 성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당은 전선에 철벽같은 갱도식 방어 진지를 굴설케 하였다. 인민 군대들의 헌신적 투쟁과 후방 인민들의 적극적 방조로 수백 키로메터에 달하는 갱도를 굴설하여 적 유생 력량 소모전을 효과 있게 진행하였으며 진지를 철벽의 방어선으로 만들었다.

당은 전쟁의 전 행정에서 매개 전투원들로 하여금 무기와 전술에 정통하도록 하며 지휘관들의 지휘 능력을 제고함에 많은 주의를 돌리였다.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령도하에 후방 예비 부대는 물론 전선과 동서 해안에 있는 부대들까지 전투 여가를 리용하여 전투 정치 훈련을 강화하였다. 부대들의 훈련에 있어서는 《전투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치도록 하라》는 당의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산악전과 야간 전투에 능숙하도록 산악 및 수림 지대에서의 훈련을 강화하였다. 이 훈련의 약 40% 이상은 야간에 진행되였다.

당은 지휘관 및 군관들의 양성을 위하여 각급 군관 학교들과 강습소들을 신설 확장하고 근로자 출신의 새로운 지휘관들과 군관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였다. 당의 배려하에 전쟁 기간에 군관 학교수는 전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되였으며 그 외에도 많은 병종 강습소들이 신설되였었다.

이러한 교육 기관을 통하여 새 간부들의 양성과 함께 재직 군관들을 재교양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 진행하였다. 군관들로 하여금 전선에서 실천적 단련을 쌓는 한편 전투 여유 시간을 리용하여 재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자기 경험을 총화하며 새로운 군사 리론과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전체 군관들은 련합 부대에서 단기 강습과 전반적 임무에 적응한 대부대 훈련들을 받았다.

초급 지휘 성원인 하사관들도 단기 교도 훈련을 통해서 재교육하였으며 그들의 능력을 일층 제고시켰다.

당의 이러한 제 대책으로 각급 지휘관들은 전쟁 행정에서 리론적 지식과 풍부한 전투 경험으로 무장되였으며 현대 전투를 보다 훌륭히 조직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또 인민 군대는 수 많은 예비적 지휘관들까지 가질 수 있게 되였다. 지휘관 성원들의 이러한 질적 장성에 기초하여 당은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인 중대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1952년도부터 부대내에서 모범 중대 창조 운동을 전면적으로 조직 전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군인들 속에서 창발성과 군사적 의무 수행에서의 자각성과 책임성이 일층 제고되였다. 이 운동을 통해서 398개의 모범 중대가 육성되였고 수 많은 모범 군인 대렬이 확대되였다.

당은 인민 군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군대내 당 정치 사업 강화에 특별히 주력하였다.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 정책이 가장 엄격히 실시되고…규률이 가장 엄하며 군대내 정치 사업과 군사 위원들의 사업이 가장 주의 깊이 실시되고 있는 곳에서는… 군대내의 해이성이 없으며 군대의 질서와 사기가 더 좋으며 승리가 더 크다》(전집, 29권, 4판, 413페지).

당은 군대내 당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1950년 10월 당 중앙 정치 위원회 결정으로 조선 인민 군대내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고 부대내에 전면적으로 당 단체를 설치하였다. 또한 당 군사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목적으로 군대내에 군사 위원 제도를 수립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하에 군대내의 당 단체들은 군인들 속에서 당의 정책과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침투 관철시키며 군인들을 당과 정부 주위에 단결시키며 부대의 전투력을 제고하며 군인들을 전투 과업의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하였다.

또한 당 단체들은 부대내에 강철같은 자각적 군사 규률을 확립하며 군사 조직과 관리 운영의 기초로 되는 군사 유일 관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1950년 11월 독로강 고급 군관 회의와 1950년 12월 당 중앙 위원회 제 3차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그의 실천을 위한 투쟁은 군대내에서 후퇴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발로되였던 비규률적 현상들을 급속히 근절하며 부대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일층 강화하며 군사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전환을 일으켰다.

군대내 당 단체들은 당 장성 사업과 당원들의 당성 단련 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군대내에서 당 장성 사업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차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성과 있게 추진되였다. 전쟁 기간에 원쑤들과 영웅적으로 싸운 14만 명에 달하는 우수한 군인들이 영예로운 조선 로동당에 입당하였다. 로동당원들은 군대내에서 열성적인 선전 선동자로, 당의 군사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전체 군인들의 모범적 고무자로 되였다. 전쟁 기간에 배출된 공화국 영웅들 중 76%가 로동당원이였다는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당은, 온갖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결국 전쟁을 진행하는 대중의 정신 상태 여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레닌의 교시에 립각하여 군인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과 혁명적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거대한 주의를 돌렸다.

1951년 7월 《인민 군대내에서 조선 로동당 단체의 설치의 총화와 정치 기관들의 사업 정형》, 1952년 7월 《인민 군대내 당 정치 사업 진행 정형과 그의 개선을 위한 금후 대책》에 관한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들은 지휘관, 정치 기관 및 당 단체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부대의 유일 관리제와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며 특히 부대내에서의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기본 지침으로 되였다.

당은 군대내의 선전 선동 사업 체계를 전시 실정에 근거하여 개편하였으며 군대내 정치 기관 및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직접적 지도하에 군무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군인들에게 우리 전쟁의 정의적 성격을 명백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적을 증오하고 혁명적 전취물을 사수하는 애국주의 사상,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전통으로 교양하는 것은 군대내 정치 사업의 기본 중심이였다.

군대내 당 정치 사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항일 유격대의 혁명적 전통 교양이였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적 전통은 아무리 곤난한 전투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승리의 신심과 용감성과 대담성을 고무하여 주는 힘으로 되였다.

1951년 가을 적들의 발광적인 《추기 공세》가 진행될 때 최전선 전호 속의 한 부대 전사들이 최고 사령관에게 보내 온 다음과 같은 편지 구절이 이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당신이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조국을 사랑하며 수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명령대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영예를 위하여 우리 진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하여 귀중한 우리 조국 강토를 지키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군대내에서 강력한 당 정치 사업의 결과에 인민군 장병들의 전투 사기와 전투 도덕적 품성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결속되였다.

＊　　　＊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제 대책의 결과에 우리의 인민 군대는 전쟁 시기에 불패의 군대로 강화되였으며 전쟁의 매 단계에서 당이 제시한 군사 전략적 및 전술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은 전쟁과 군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쏘베트 군사 과학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국 해방 전쟁의 매 계단마다에서 정확한 전략적 방침과 투쟁 방법을 제시하여 주었으며 그의 실현을 직접 조직 지도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 제 1 계단에 있어서 당은 적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반공격에로 이전하여 미제 침략자들이 자기의 대병력을 조선 전선에 투입하기 전에 기동 있는 련속적 타격으로써 적의 기본 집단을 포위 소멸하고 단시일 내에 남반부 전 지역을 해방할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의 이 정확한 방침에 근거하여 우리 인민 군대는 적의 진공을 좌절시키고 반공격을 개시한지 1개월 반 동안에 광대한 남반부 지역을 해방시켰다.

일시적 후퇴의 곤난한 시기에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일방으로는 적들의 진공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남반부에서 인민군 주력 부대들을 계획적으로 퇴각시키며 타방으로는 후비 부대를 계속 준비하는 일시적 전략적 후퇴의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인민군 부대들은 매 계선마다에서 맹렬한 저항과 련속적 타격을 가하면서 장거리 후퇴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재진공 준비를 급속히 진행하였다.

이러한 토대 우에서 우리 당은 인민 군대로 하여금 중국 인민 지원군과의 긴밀한 협동하에 적에 대한 반공격으로 넘어가 공화국 북반부에 깊이 침입한 적들을 38선 이남으로 구축할 전쟁 3계단의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 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인민 군대는 적들의 소위 《제한 공세》, 《총 공세》 및 상륙 기도를 모조리 분쇄하고 적들을 38선 계선에 주저 앉게 하였다.

당은 1951년 6월부터 시간을 쟁취하여 우리의 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적의 유생 력량과 기술 기재에 계속 막대한 손실을 주며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에 유리한 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미 차지한 계선에서 적극적인 진지 방어전을 진행할 방침을 수립하였다.

진지 방어 기간에 적들은 《하기 및 추기 공세》, 《금화 공세》 등 대규모적 공격을 거듭 진행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 군대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적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 분쇄되였다.

진지 방어 기간에 우리 인민 군대는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지도하에 각종 창발적인 투쟁 방법을 창조하였다. 우리 인민 군대의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한 산악 지대에서의 전투 활동, 특히 포병 화력의 집중적 리용, 해상과 해안에서의 적 륙전대의 소멸을 위한 기습 작전과 해안 방어의 조직, 갱도전과 야간 전투, 비행기 사냥'군조, 각종 습격조와 파괴조의 조직, 유동포의 리용, 저격수 활동 등은 군사 예

술 분야에서 새로운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패배의 운명에 직면한 적들은 1953년 초에 동서 해안에 대한 상륙 작전 시도와 배합하여 전선 돌파를 기도하면서 소위 《신 공세》를 발광적으로 준비하였다.

당은 적들의 이러한 시도에 대처하여 제 5차 전원 회의와 조선 인민군 고급 군관 회의에서 진술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당 중앙 위원회 편지들을 통하여 인민 군대와 전체 인민들을 적들의 군사적 모험을 분쇄하기 위한 결사전에로 불렀다.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인민 군대는 전선과 해안의 방어선을 철벽같이 수호하였으며 요란스럽게 떠들던 적들의 《신 공세》를 미연에 파탄시켰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37개월 간의 조선 전쟁에 실로 12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였으며 막대한 군사비와 군수 물자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인민 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였으며 우리 인민 앞에 투항하고 말았다.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 장병들은 전쟁 기간에 39만 여 명의 미군을 포함한 적 장병 109만 3천 여 명을 살상 포로하였으며 1만 2천 여 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 격상시켰으며 순양함을 포함한 257척의 각종 함선을 침몰시켰으며 수만대의 자동차와 기타 막대한 군수 기재를 분쇄하였다.

전쟁 과정에서 우리 인민군 대렬에서는 480명의 공화국 영웅과 74만 6천 여 명의 각종 수훈자들이 배출되였으며 13개의 부대, 련합 부대들이 근위 칭호를 받았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당에 의하여 육성 강화되였으며 항일 빨찌산 투쟁의 혁명적 애국 전통을 계승한 인민군 부대들과 군인들의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의 뚜렷한 표현으로 되며 그의 위력의 시위로 된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이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인민 무력을 강화하며 인민 군대의 모든 승리를 직접 조직 지도하였다.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정책과 지도——이는 인제나 조선 인민군의 전투적 위력의 원천이며 백전 백승의 담보이다.

당에 의하여 육성 강화된 우리 인민 군대는 오늘 조선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의 고귀한 성과와 우리 나라와 나아가서 극동의 평화를 튼튼히 수호하고 있다.

서적 해제 및 평론

칼 맑스의 로작 《철학의 빈곤》에 대하여

리 규 린

지난 6월 말에 칼 맑스의 천재적 로작 《철학의 빈곤》이 우리 말로(조선 로동당 출판사) 번역 출판되여 나왔다.

《철학의 빈곤》은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당 선언》과 더불어 성숙된 맑스주의의 최초의 로작이다. 이 로작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에 대한 맑스의 원칙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의 태도와, 그 투쟁을 통하여 맑스의 리론이 가일층 성숙된 사실을 명확히 볼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모든 로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로작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로작이 집필된 시기의 사상 투쟁의 정형과 그리고 다른 로작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맑스의 이 로작은 1847년에 집필, 출판되였다. 그 시기는 1848—1849년 혁명이 박두한 때였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부 모순의 집중적 표현으로 되는 경제 공황이 전체 자본주의 세계를 휩쓸었으며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대중의 처지는 참혹하였다. 서구라파 각국에서 계급적 대립은 아주 첨예화되고 있었으며 로동 계급은 부르죠아지를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부르죠아지의 대변자들은 《질서》를 운운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들 중의 주요한 인물은 실증주의자(實證主義者) 콩트였다.

한편 소부르죠아적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실증주의자들을 추종하면서 《사회주의》라는 문구를 방패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을 반대하고 개량주의와 계급 타협을 설교하였다. 이러한 조류로서는 주로 독일에 류포되였던 《진정 사회주의》와 불란서에 류포되였던 프루동주의 및 기타가 있었다.

《철학의 빈곤》은 바로 이 프루동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직접 관련되는 로작이다.

프루동은 전형적인 소부르죠아지의 대변자이며, 개량주의의 설교자이며, 무정부주의의 시조의 한 사람이였다.

프루동주의는 맑스주의와는 적대되는 사상 조류의 하나였다. 프루동은 이미 19세기 40년대에, 맑스와 엥겔스의 과학적 공산주의의 사상 리론적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던 시기로부터 로골적으로 반프로레타리아적 사상을 류포시켰다. 그는 자기 저서 《재산이란 무엇인가》(1840년)에서 소부르죠아적인 사'적 소유를 합리화하며 리상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적인 대규모적 소유는 《불공평한 병합》이며, 《절취》이며, 《부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도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듯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실지에 그는, 소부르죠아적 소유는 인간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러한 립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적 소유의 조건하에서 소부르죠아적 경리는 자본주의적 경리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소부르죠아지는 자체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 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여 나설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소부르죠아지의 대변자였던 그의 저작은 과학적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동적인 견해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혁명적 로동 계급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주되는 장애물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는 그가 과학적 공산주의로 무장할 수 있게끔 방조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비과학적 견해를 고집한 나머지 점점 더 반동적인 주장을 들고 나오게 되였다. 즉 그는 1846년에 《빈곤의 철학》(《경제적 모순의 체계

또는 빈곤의 철학》)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체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프루동은 《빈곤의 철학》에서 전적으로 부르죠아적 원칙에 의거하면서 과학적 공산주의와 로동 계급의 해방을 위한 정치 투쟁을 반대하여 나섰다. 이 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는 혁명적 맑스주의 변증법을 반대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적인 모순을 우상화하였으며 운동과 발전의 존재를 거부하였다. 동시에 그는 가치 법칙을 외곡 비속화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제도를 그대로 보존하는 기초 우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제반 모순을 《해결》하려고 몽상하였다. 또 그는 부르죠아 대변가들이 오래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떠들던 《자유》, 《평등》에 관한 사상에 의거하면서 공상적인 《평등한》 교환, 《구성된 가치》 등에 의하여 계급적 대립을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평등》이란 바로 최고의 가설로서의 리상에 불과하였다.

이 점을 단적으로 표현한 그의 소위 리론적—방법론적 공식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조금도 변경함이 없이 자본주의 사회의 《악한 면》을 제거하고 그것의 《선한 면》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 공식은 《만병 통치약의 처방》과도 같았다. 따라서 이 공식에 의거하면 생산자들(소부르죠아적 생산자들) 호상간에는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물물 교환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루동은 전형적인 개량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소부르죠아적 리기주의를 끝까지 관철시켰다. 즉 그는 사회를 우상화하면서 사람들(소생산자만을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보았다) 사이에서 《평등》이 지배하는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권력은 필요 없으며 따라서 국가도 필요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무정부주의 사상을 류포시켰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불가피적으로 몰락의 운명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계급적 립장을 고수하려는 소생산자의 계급적 립장을 반영한 것이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사회적 근원을 청산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전 인류를 해방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계급 투쟁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직접적 표현이였다.

그의 이와 같은 반동적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발로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프로레타리아트는 인간의 소위 본질적 표징으로서의 사'적 소유를 상실한 불완전한 계급이며 따라서 그들의 계급 투쟁은 어떠한 긍정적인 목적도 실현할 수 없는 맹목적인 봉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전구라파를 휩쓴 1848—1849년 혁명 직전에 기세 당당하게 궐기하고 있던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반역적인 항변이였다. 이것은 당시 맑스주의의 주되는 적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와 엥겔스는 프루동주의를 반대하는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프루동의 견해를 반대하여 조직적인 협동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엥겔스는 맑스와의 협의에 의하여 1846년 말부터 파리에 있는 선진적 로동 계급의 조직을 통하여 프루동의 사상의 공상적이며 반동적인 본질을 폭로하고 맑스의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의 정당성을 론증함으로써 로동자들의 계급 의식을 제고시켰다.

맑스는 1846년 말 프루동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맑스는 우선 그의 사상을 비판 폭로할 방향을 제시하고 다음에 계속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이에 대한 맑스의 비판의 기본 방향은 1846년 말 안넨꼬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에서 제시되였다. 이 서한에서 맑스는 프루동의 계급적 립장은 철두철미 소부르죠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부르죠아지는 그 계급적 처지로 보아 모순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소부르죠아는 모순을 우상화합니다. 왜냐 하면 모순이 그의 본질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구현된 사회적 모순 이외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실천에서의 자기의 정체를 리론에서 합리화하여야 합니다》(본서, 194페지).

이렇게 맑스는 우선 반혁명 분자 프루동의 계급적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의 온갖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는 그의 계급적 본성의 이러저러한 표현이며, 그것들은 로동 계급의 고상한 투쟁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똑똑히 천명하였다. 로동 계급의 립장에 서서 온갖 반동적인 견해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는 것은 사상 투쟁에서 가장 주되는 문제이다.

그러면 프루동은 사회적 모순을 어떻게 우상화하였으며 합리화하였는가? 그는 부르죠아지에 의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비인간적 착취의 본질을 음폐하기 위하여 무근거한 공담을 늘어 놓으면서 부르죠아지와 타협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런데 그는 부르죠아적 질서가 《영원한 진리》이라는 것을 직접 주장하는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부르죠아적 관계를 표현하는 범주들을 합리화하는 방법으로써 간접적으로 그것을 변명하였다. 즉 그는 이 범주들을 《영원한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는 이 《본질》이 잘 실현되게끔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례컨대 독점 및 기타 범주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실현되게끔 개선하여야 한다고 떠벌리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순의 우상화는 모순의 해결인 것이 아니라 반동적인 타협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그는 식민지를 대규모 기계 공업의 필수적 조건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이것은 그가 로동운동 뿐만 아니라 《온갖 정치 운동의 판박은 원쑤》(본서, 192페지)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소부르죠아 리론가로, 탁월한 철학자로 또한 경제학자로 자처한 프루동이 이러한 반동적 견지에로 떨어지게 된 것은 그의 계급적 처지와 동시에 또 다음과 같은 점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맑스는 지적하였다. 즉 그것은 력사 발전 법칙을 알지 못하였으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과도적이며 력사적인 형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맑스는 이 점을 폭로하면서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일정한 생산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 《자기들의 물질적 생산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리념이나 범주도 즉 이 사회적 관계 자체의 추상적, 리념적 표현도 역시 만든다는 것》(본서, 191페지)을 해명하였다.

요컨대 프루동은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의 범주를 부르죠아적 경제적 관계의 추상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관계를 경제적 범주의 실현이라고 보았으며, 이 범주는 매개 사회와는 독립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면서 실현되기만 하는 것으로 보았다.

* *

맑스는 이상과 같은 립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1847년 《철학의 빈곤》을 집필, 출판하였다. 이것은 론쟁적 형식으로 된 철학적, 경제학적 로작이다. 맑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로작을 불란서 로동자들이 읽음으로써 그들이 프루동의 사상의 반동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란서어로 집필하였다. 두 개 장으로 된 이 로작의 제 1장에서는 주로 프루동이 가치 법칙을 비속화하고 있는 점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제 2장에서는 프루동의 방법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 특히 로동 계급의 계급 투쟁과 관련된 일련의 중요한 사상들도 천명하고 있다.

이 로작에서 맑스는 프루동이 정치 경제학의 제 문제를 비속화한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여기에서 주되는 문제는 가치론 특히 로동 가치설에 관한 문제이다.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로동 가치설은 이미 19세기 초에 영국 고전 경제학에 의하여 체계화되였다. 이것은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 거대한 일보 전진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루동은 이 학설은 공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그 대신 자기의 소위 《절대적 기술 방법》을 제기하였다. 프루동의 이 《방법》은 《모든 것에 적합하며》, 《모든 것에 대답하며》, 《모든 것에 설명을 주기》 때문에 종래의 경제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가치의 모순된 성질을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이것은 그의 추상적인 공담을 일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그는 소위 이러한 《절대적》 립장에서 우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반비례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으며, 사용 가치와 공급을 동일시하였으며, 교환 가치와 수요를 동일시하였다. 다음에는 교환 가치라고 부르는 것까지 반대하고 《의견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치》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호상 관계를 유용성과 의견의 호상 관계로 보았다. 그리고 이 량자의 대립을 제거하는 것은 《결정의 자유》로 되여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가치의 2중성도 가치의 원천도 묵살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교환》에 의하여 자유 의사가 실현되며, 완전무결한 평등이 보장되는 순수한 가치 법칙이 실현되게 된다는 것이였다. 그는 사회 력사적 현상을 자기의 인위적인 수법에 의하여 거부하려고 공상하였으며 경제 법칙의 객관적 성격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본주의적 조건하에서 로동력은 상품이라는 점을 거부하고 생산비는 《구성된 가치》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였다.

맑스가 분석한 바와 같이 소위 《구성된 가치》에 관한 프루동의 날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단히 작용하는 가치 법칙의 소부르죠아적 리상화이며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원천을 음폐하고 개량주의 사상을 류포시키려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의 온갖 반동적 책동의 집중적 표현의 하나이였다.

맑스는 이러한 개량주의적이며 타협적인 견해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의 교환 형태는 생산 형태에 조응한

다…개인적 교환도 역시 일정한 생산 방식에 의존하는바, 이 생산 방식은 또 계급들의 적대에 조응한다》(본서, 79페지). 사회란 추상적인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계급적 적대에 기초한 로동자 대 자본가, 소작인 대 지주 등등의 관계이다. 바로 이 관계를 떠나서 《개혁》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허위적 요설에 불과하다.

맑스의 사상을 옹호하면서 레닌은 프루동의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이비 비판과 그의 개량주의적 본질을 폭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본주의와 그 기초인 상품 생산을 폐절할 것이 아니라 이 기초에서 람용 행위, 혹(瘤) 등을 제거할 것, 교환과 교환 가치를 폐절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구성하며>, 그것을 전반적이며 절대적이며 <공정하며> 동요, 위기, 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 것—바로 이것이 프루동의 사상이다》(레닌 전집, 제 20권,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23페지).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내는 반동적 현상들을 미화 음폐하는 프루동의 견해를 견결히 반대하였다. 과학적 견해에 립각한 맑스의 비타협적 태도는 현대 자본주의의 반동적 본질을 음폐하기 위하여 《인민적 자본주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등등의 허구를 날조하면서 정치 경제학상의 주요한 명제들을 외곡하고 독점 자본의 악랄한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온갖 부르죠아 사상 및 그에 전적으로 추종하는 수정주의자들의 반역적 책동을 철저하게 분쇄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거대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　　*

프루동은 정치 경제학의 원칙들을 반동적으로 외곡하는 동시에 변증법도 비속화하면서 자기의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를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시도하였다.

프루동은 자기의 소위 《변증법적인 방법》을 《절대적 방법》이라고 선포하면서 이것을 일대 발견이라고 자부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사물을 어떻게 고찰하였는가,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시대의 순서에 일치하는 력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의 계기(繼起)에 일치하는 력사를 서술한다》고 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변증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원칙인 운동, 발전에 관한 사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그가 당시의 생생한 현실을 보려고 할 대신에 반동적 망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현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에 고무되면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는 우리 로동 계급을 위시한 전체 근로 대중의 장엄한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 외면하고 현실을 보려하지 않는 자들은 부르죠아 사상의 진탕 속에 빠져 들어 갈 수 있으며 보수주의에로 떨어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프루동은 형이상학적인 견지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경제적 범주를 초력사적인 범주로 보았다.

맑스는 그의 이러한 관념론적 견해를 배격하고 력사에 관한 유물론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상도 력사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생산 관계의 력사적 발전을 도외시하는 한, 우리가 이 범주에서 다만 현실적 제 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제 리념, 자연 발생적 제 사상만을 보려고 하는 한, 우리는 부득불 이 제 사상의 기원을 순수 리성의 운동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본서, 107페지).

맑스가 강조한 바와 같이 존재하는 모든 것, 지상과 수중에 생존하는 모든 것은 다만 어떤 운동에 의하여서만 존재하며 또 생존한다. 그리하여 력사의 운동은 사회적 제 관계를 만들어 내며 산업의 운동은 우리에게 산업 생산물을 가져 온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프루동은 헤겔 변증법에서 그 관념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의의를 가지는 운동 발전에 관한 사상마저 버리고 그보다도 일보 후퇴하였다. 맑스는 비단 이 점을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헤겔의 관념론적 견해까지도 비판함으로써 맑스주의적 유물 변증법과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과의 근본적 대립을 명확히 론증하였다.

맑스는 소위 《절대적 방법》의 본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것은 운동의 추상이다. 운동의 추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추상적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이다. 추상적 형태에 있어서의 운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운동의 순 론리적인 공식 또는 순수 리성의 운동이다. 순수 리성의 운동은 무엇에 있는가? 그것은 자기를 정립(定立)하며, 자기를 자기 자신에게 대립시키며, 자기 자신과 합성하는 데 있으며 테제, 안티 테제, 신테제로서 자신을 공식화하는 데 있으며 또는 자기를 긍정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의 부정을 부정하는 데 있다》(본서, 109페지).

프루동은 현실적인 객관적 과정으로서의 운동과 발전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또한 운동의 원천으로서의 대립물의 투쟁에 관한 사상도 거부하게 되었다. 그는 이 사상을 무내용한 말장난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프루동에 의하여 《대립물은 호상 균형화시키며 서로 중화시키며 마비》(110페지)시키는 것으로 되였다고 맑스는 강조하였다.

프루동의 이러한 견해는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에 있어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1848—1849년 혁명 직전에 앙양되는 로동 계급의 혁명적 기세를 마비시키려고 한 반혁명적 립장과 관련된다. 또 그것은 그가 일정한 사회적 관계도 생산력의 발전과 계급들의 처지의 적대적 성격에 기인된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과도 관련된다.

맑스는 이러한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그의 견해를 비판하였고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관한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적 관계는 생산력과 밀접히 련결되어 있다. 인간은 새로운 생산력을 획득함으로써 자기의 생산 방식을 변경하며 생산 방식 즉 자기 생활의 보장 방식의 변경과 함께 자기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변경한다. 매'돌은 봉건 군주가 지배하는 사회를 줄 것이며 증기 제분기는 산업 자본가가 있는 사회를 줄 것이다.

자기들의 물질적 생산의 발전에 적응하여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는 그 동일한 인간들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적응하여 원리, 관념 및 범주도 또한 만들어 낸다.

이리하여 이 관념, 이 범주도 그것들에 의하여 표현되는 관계와 마찬가지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력사적, 일시적 산물이다.

생산력의 장성 운동, 사회적 관계의 파괴, 관념의 발생 등이 부단히 진행된다. 운동하지 않는 것은 다만 운동의 추상…뿐이다》(본서, 111—112페지).

프루동은 바로 운동의 추상에 매달렸다. 그리하여 그는 모순의 개념을 경제적 범주의 두 측면—《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으로 바꾸어 놓고 다만 《악한 측면》만 제거하면 된다고 함으로써 자기의 개량주의적인 견해를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가 《변증법적 운동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본서, 115페지). 그는 드디여 변증법을 완전히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상 관점에 선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적대적 성격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제도는 자연적인 것이라고 찬미하게까지 되였다. 그는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유의 혼성물이며 부단히 동요하는 소부르죠아지의 전형적인 대표자이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증오한 그가 1848—1849년 혁명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마찬가지로 그의 후계자들이 로동 운동내에서 악랄한 종파에로 전락하였으며 1871년 파리 콤뮨 시기에는 혁명 대렬의 파괴를 책동하고 투항주의의 길로 나가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도 명백한 바와 같이 종파주의는 악성 고질과도 같이 집요하게 작용하며 로동 운동의 각이한 발전 단계에 따라 각이한 수법으로 반역적 죄행을 감행한다. 따라서 반종파 투쟁은 체계적이며 일상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방침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하는 것을 이 로작은 잘 말하여 주고 있다.

*　　*

맑스는 《철학의 빈곤》에서 프루동의 타협적이며 개량주의적 견해를 분쇄하면서 계급 투쟁 및 혁명에 관한 학설을 발전시켰다.

다른 모든 부르죠아지의 대변자들과 마찬가지로 프루동도 역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을 《사회적 질병》으로, 혁명을 《사회적 재해》로, 《몽매한 대중의 파오》로 인정하였다.

맑스는 착취자 사회에서의 계급적 적대의 필연성과 그에 기초한 계급 투쟁은 혁명을 초래하며 혁명적 대중은 새 사회의 창조를 지향한다는 것을 론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피압박 계급의 존재는 계급들의 적대에 립각하고 있는 매개 사회의 사활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피압박 계급의 해방은 필연적으로 새 사회의 창조를 의미한다》(본서, 176—177페지).

맑스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질서》와 《진보》를 내걸고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던 실증주의자 콩트 및 개량주의자 프루동의 견해의 반동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맑스는, 사회 발전을 가일층 촉진시키는 혁명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기초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선진적 계급은 생산력의 발전과 리해 관계를 같이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모든 생산 도구중에서 가장 강력한 생산력은 혁명적 계급 그 자체이다》(본서, 177페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생산력에 대한 개념의 가일층의 발전이며, 물질적 부의 생산자—근로 대중이 력사에서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에 관한 명제의 구체화인 동시에 혁명에 관한 학설의 발전에 있어서의 일보 전진이였

다. 이 명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창발성을 과학적으로 확증하였다.

맑스는 또한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으로서의 발생 발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개괄하면서 그들의 확고부동한 계급적 단결은 필승불패의 위력을 창조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맑스는 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단결은 현대 산업의 발전 및 장성과 함께 잠시도 머물지 않고 전진하며 확대되고 있다》(174페지).《결합하려는 로동자들의 최초의 기도는 언제나 단결이라는 형식을 취한다》(175페지). 이 단결은 우선 그들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처지에 기인한다. 더 광범하고 더 강력한 단결을 위한 투쟁은 정치적 성격을 띤다. 바로 이 투쟁을 통하여 로동 계급은 《자재적 계급》으로부터 《자위적 계급》에로 발전한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맑스는 《계급 대 계급의 투쟁은 정치 투쟁이다》(176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맑스는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을 분리시키고 경제 투쟁만을 우상화하는 개량주의적 환상의 반동성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투쟁은 정치 투쟁에 복종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은 부르죠아지의 정치적 지배의 타도이라는 것을 론증하면서 《로동 계급의 해방의 조건은 모든 계급의 페절》(본서, 177페지)이라고 하였다. 이 사상은 《철학의 빈곤》의 직후에 서술된 《공산당 선언》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보다 완성된 사상으로 정식화되였다.

맑스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사상, 조직적 통일을 강화할 필요성과 혁명적 당에 관한 학설의 기본 사상도 천명하였다.

그리고 맑스와 엥겔스는 이미 이 시기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적 조직——당을 위한 실천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공산주의자 동맹》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표현되고 있다.

맑스는 계급 투쟁 및 혁명에 관한 학설을 발전시키면서 특히 이 로작에서는 착취자들의 계급적 지배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은 무자비하고 비타협적이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주요 원칙의 천명으로써 맑스는 계급적 원쑤인 부르죠아지 앞에 투항하는 프루동의 개량주의 사상을 철저히 분쇄하였으며, 그의 허무주의적이며 무정부주의적인 견해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 적적으로 배반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 *

이상에서 프루동주의를 반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투쟁 및 그 투쟁과 관련된 중심적 로작인 《철학의 빈곤》의 기본 사상을 개괄적으로 보았다.

맑스의 로작 《철학의 빈곤》——비타협적인 당성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으며 개량주의적인 프루동의 사상이 전면적으로 분석 비판된 력사적인 이 고전은 맑스—레닌주의 철학 및 경제학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현 시기 온갖 부르죠아 반동 리론과 수정주의자들의 배신적 책동을 분쇄함에 있어서도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오늘 국제적으로 수정주의 류파들이 맑스주의의 혁명적 본질을 거세하고 부르죠아지의 비위에 맞도록 그것을 개량주의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들에 대하여 각국 공산주의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전개되고 있는 이때, 우리 나라에서 이 로작의 출판은 독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으로 될 것이다.

맑스의 이 천재적 로작의 심오한 연구는 현 시기 우리 혁명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일'군들이 우리 당 정책의 맑스—레닌주의적 본질을 파악하며,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단호히 반대하고 맡은바 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1958년 《근로자》 총 내용

제목	필자	호수	페지

—문 헌—

—편집국 사론설—

—론 설—

—당 사업 경험—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끈 쓸 따 찌 야—

—서적 해제 및 평론—

—기 타—